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 연구 포럼

Forum on the assistant system for reunion
on the adoptees and their birth families

일시 :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14:00-16:30

장소 : 서울시민청 태평홀

Date: July 17th, 2023 14:00-16:30 (KST)

Place: B2 "Tae-Pyeong Hall" at Seoul Citizen's Hall



발행정보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 연구 포럼

발행일 2023. 7. 17

발행처 사단법인 뿌리의집

발행인 김도현

번역 김훈밀

기획편집 김창선

주소 0303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25-10

전화 02-3210-2451

팩스 02-3210-2453

홈페이지 www.koroot.org

copyright©KoRoot. All rights reserved.

목 차

환영사

김도현 ((사)뿌리의집 대표)	1
------------------------	---

발제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에 관한 기초연구 (요약)	3
김호수 (뉴욕 시립대, 사회학과/인류학과 교수, 스테튼 아일랜드 캠퍼스)	
입양정보공개청구 및 친생가족찾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27
이주연(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	

토론

이별, 입양, 재회의 공명과 애도	41
신필식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재회 조력 시스템의 문제점 - 친생모의 관점에서	45
전현숙 (TheRUTHtable)	
재회의 구조적 장애물에 대한 논의	49
승미 로라 조 (MSW, 위스콘신-매디슨 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인 사 말

김도현 대표 / 뿌리의집

슬프게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2014년 미국의 현수가 입양부에게 살해되었습니다. 2015년 대구의 은비가 입양부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2019년 정인이가 입양모의 학대의 결과로 죽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죽음 안에 깃든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산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목격자 혹은 증언 청취자들에게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수가 죽었을 때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은비의 죽음을 애도했던 분들이 중심이 되어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내어 놓았지만, 우리 사회 일각의 거칠고 험한 반대로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입양 제도의 불비는 입양아동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거듭 불러 들였고, 결국 정인이의 죽음까지 이어졌습니다. <입양의 공공성 강화와 진실규명을 위한 연대회의(입양연대회의)>가 꾸려졌고, 마침내 지난 6월말 입양특례법의 전부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또한 해외입양인들과 뿌리의집이 몇몇 연대단체들과 함께 출생등록의 의제를 제기한지 13년 만에, 지난 6월말 출생통보제 역시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236명의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고 단 1%에 불과한 23명 조사에서 3명의 아동이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고, 국회는 이 보도가 나온 날로부터 단 열흘 만에 출생통보제를 입법했습니다. 죽은 아이들이 법을 만들고, 자신들이 떠난 사회를 보다 더 인간다운 사회로 만들고 있는 아이러니를 목격합니다.

오늘 개최하는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에 관한 연구는 바로 이러한 우리 사회의 취약성에서 발생한 사람들의 아픈 삶의 여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피는 연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원을 알 권리(rights to origin)를 지켜줄 필요가 없다는 식의 거친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뿌리의집은 지켜진 생명도 근원을 알 권리의 취약함 안에서 그 생명이 시들어가고 마는 일들을 아프게 목격해오곤 했습니다. 생명을 지킬 권리와 근원을 알 권리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둘 다 온전히 지켜내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오늘 재회에 대한 연구도 바로 이런 사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응답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의 의제는 단순한 정보의 제공을 넘어서서 근원을 알 권리를 훼손당한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의 수습을 어떻게 경청하고 동행하며 조력할 것인가를 묻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럼이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과제에 길을 새롭고도 풍부하게 제시하는 포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이 연구를 책임지고 수행해오신 뉴욕시립대 스테이튼 칼리지의 김호수 박사님과, 최근 아동권리보장원의 프로젝트로 관련 연구를 하신 이주연 박사님의

발제에 감사드립니다. 토론해주시는 중앙대학교 인권센터의 신필식 박사님, 친생모모임 더루스테이블의 전현숙 대표님, 위스콘신 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에 계시는 승미 로라 조 선생님께 또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포럼의 좌장을 맡아 주신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님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깊은 마음으로 오늘 이 포럼에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경청해주시며 고견을 나누어주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에 관한 기초연구 (요약)

김호수

(뉴욕 시립대, 사회학·인류학과 교수, 스테튼 아일랜드 캠퍼스)

본 연구는 사단법인 뿌리의집과 해외입양역사에서의 친생모를 주제로 연구해 온 뉴욕시립대학교 김호수 교수가 각자의 활동과 연구를 통해 도달한 문제의식 - 지난 70년간 해외입양사업으로 인해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성장해 온 이십여 만 명의 해외입양인과 수백만 명에 이르는 그들의 한국친생가족들의 삶의 경험,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기억하고 위로할 것인가? - 에서 기획되었다. 우리는 이 문제의식을 현재 해외입양인들과 친생가족들의 재회를 향한 집단적 갈등과 경험을 분석하면서 해외입양실천과 담론을 더이상 개인의 불운이나 성공, 성장 서사가 아닌 사회적 기억, 그리고 국가와 공공영역의 책임의 장으로 견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해외입양인-친생가족의 (1) 실질적인 재회의 노력, 과정을 통해 본 재회 현황, 절차를 파악하고, (2) 당사자의 관점에서 현행제도의 개선점과 재회의 의미를 환기함으로써, (3) 재회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과 제언을 목표로 한다.

한국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연구 (2013)에서 전체 1028명의 해외입양인 응답자 중, 친생가족을 ‘찾고 싶다’는 응답자는 82%, ‘시도해 보았다’는 응답자는 72.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해외입양인의 친생가족과의 재회가 자신의 태생에 대한 알고자 하는 보편적 의지 및 권리로 이해되고 있는 데 비해, 친생가족의 재회 의지에 대한 체계적 조사는 상대적으로 적다. 김호수의 저서, 『한국의 해외입양과 친생모』 (원제: Transnational Adoption Practice and Birthmothers in South Korea, 2016)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약 100 명의 친생모가 거쳐간 ‘다음’ 커뮤니티 “아이를 입양 보낸 엄마들의 슬픈 사랑이야기”에서는 거의 모든 친생모가 입양 후 재회를 염원하고 있었고, 또 같은 연구서에서 다루어진 친생모 구술사 연구에 따르면, 친생모가 재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는 경우가 22명의 구술 중 반 정도가 되었다. 또한 2014년 이래 뿌리의 집에 재회를 희망하며, 유전자 검사 등록을 의뢰한 친생 가족이 100명을 넘는다. 친생가족의 재회에 대한 의지가 체계적으로 연구된 바가 거의 없는 것은, 친생가족의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아동을 입양 보낸 가정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도덕적 질타의 시선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2000년대 이후 매년 약 4천여 명의 입양인이 친생가족 찾기를 비롯한 여러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입양에 대한 사후지원 서비스 제도와 전담 기관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주로 입양서류를 보유하고 있는 입양기관을 통한 가족찾기와 재회가 이루어져왔는데, 가족찾기를 비롯한 입양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기관으로서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입양원)¹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공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었음에도

¹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입양원(Korea Adoption Services, KAS)은 입양특례법 제 26 조에 근거하여 2012년 8월 5일 설립되었으며,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 및 확산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관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2019년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입양원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NCRC)으로 통합되었다. 정부는 아동학대, 입양, 가정위탁, 실종 등 7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운영하고 있었던 여러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을 찾으려는 입양인과 친생부모는 개별적으로 직접 고군분투하고 있다. 해외입양인들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에 방문하여 입양기관을 찾아가 가족의 정보를 찾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경찰서와 보육원을 찾아다니며 가족의 소재를 파악하고 연결되기를 기다리기도 한다. 해외입양인이 머무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뿌리의집은 매년 방문하는 해외입양인들의 재회 과정을 지켜보고 조력해오면서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목격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양측에게 재회의 여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입양 정보에 관한 접근 권리, 입양서류의 부정확성 또는 의도적 조작 및 조력관계기관과의 의사 소통 문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재회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직접적인 일차 조력기관(입양기관, 아동권리보장원), 그리고 기타 시민단체 및 정부기관과의 접촉과 소통의 경험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지원체계와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점을 촉구하기 위한 기초연구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참여를 위한 입양인 응답자의 모집은 뿌리의 집이 주관하는 행사와 게스트하우스의 이용으로 관리하고 있던 입양인 이메일과 페이스북 계정, 그 밖의 입양인 지원단체, (325 KAMRA) 와 (Me &Korea) 등의 입양인 연락망을 통해 2020년 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총 12개국에 살고 있는 171명의 국외입양인이 참여하였다. 해외입양인 재회연구 기초질문지는 총 응답자에 관한 기본 인적 정보 6개 문항과 주제별 7개의 카테고리 나뉘어진 총 6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영어로 작성되었다. 그에 더해 10인의 친생 가족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각각 생모 6인, 생부 1인, 형제 1인, 그리고 입양에 직접 관여한 고모와 외삼촌으로 이루어졌다.

1. 입양인 설문조사

1) 응답자 배경

응답자의 성별정체성은 80%가 여성, 18%가 남성, 논바이너리(nonbinary) 1명, 무응답 2명이었다. 응답자의 지정성별은 여성이 80%로 남성보다 많이 참여했다. 해외입양아동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여성이, 이후에는 남성이 더 많은데, 본 설문조사 응답자 다수가 7-80년대 생으로 여성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라는 비율은 모집단의 성비보다 여성이 과대표집된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가족찾기에 더 적극적이라고 보고하는데(Schechter and Bertocci, 1990: 권지성 외, 2009에서 재인용), 이러한 특성은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해도, 본 설문조사의 여성 참여자 비율은 80%로 타 설문조사보다도 높다는 특징이 있다.

입양인 응답자의 출생연도는 1954년~2003년 사이였고, 가장 많은 응답은 1969년생이다. 1970~1980년대생이 73.1%를 차지했다. 응답자 연령은 최소 18세에서 최대 67세였고, 40대가(42.1%) 가장 많았다. 본 설문조사의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 그에 따라 그동안 입양 정책을 총괄해오던 중앙입양원도 통합시키게 되었고, 정부 정책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이 중앙입양원의 업무를 승계하게 되었다.

응답자 연령대는 40대가(42.1%) 가장 많다. 40대 이상은 응답자의 68.4%를 차지한다. 이는 뿌리의집 게스트하우스의 주요 방문자 층이 3-40대이고 게스트하우스가 설립된 지 15년이 된 시점에 설문이 진행되었다는 점이 응답자의 연령대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설문조사에 협력한 <미앤코리아>가 주로 5-60대인 혼혈입양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응답자 입양연도는 1956년~2004년의 범위에 있었다. 1971년~1986년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했고, 응답자의 입양연도로 가장 많은 해는 1976년(15명, 8.8%)이었다. 입양연도에서 출생연도를 차감해 입양 시 나이를 산출했다. 0세에서 최대 13세까지 분포했고, 가장 많은 연령대는 1세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62.6%)이 0세에서 1세에 입양되었다.

응답자가 입양된 국가는 미국이 가장 많다. (107명, 62.6%) 그 외에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등 유럽지역이 많다. 이는 모집단(1958년~2018년까지의 누적 입양국가 비율)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응답자의 입양국 입양기관은 미국의 홀트인터내셔널Holt International(21.1%)과 스위스의 테르 데 줌르Terre des hommes(10.5%)가 많았고, 그 밖에 다양한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 입양기관으로서 홀트아동복지회(86명, 50.3%)를 통해 입양되었고, 대한사회복지회 (31명, 18.1%), 동방사회복지회 (25명, 14.6%), 한국사회봉사회 (21명, 12.3%)이 뒤를 따랐으며, 기타 (8명, 4.7%) 집계되었다.

응답자 중 한국 방문 경험자는 90.6%이다. 이 중 2-4회가 42.1%, 5회 이상이 28.7%로 응답자의 70.8%가 2회 이상 한국에 방문한 경험이 있다. 응답자 중 개인여행만을 이용해 한국에 방문한 사람은 46.8%, 단체여행만을 이용한 사람은 10.9%이다. 둘 다 경험한 사람은 66명(42.3%)이다. '둘 다'를 포함하면 응답자의 89.1%가 개인여행, 53.2%가 단체 여행을 통해 한국을 방문했다. 단체여행(group tour)을 이용한 응답자는 다양한 기관의 모국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상당수가 한국의 입양기관이나 입양인 지원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모국방문 프로그램이었다. <미앤코리아Me&Korea>가 운영하는 모자이크 투어Mosaic Tour의 이용자가 가장 많았고(25.8%), 그 다음으로 해외입양인연대(G.O.A.'L)의 퍼스트트립홈First Trip Home이 많았다(11.2%). <미앤코리아>는 설립한 지 7년이 된 신생 단체임에도 많은 응답자가 투어에 참여했다. 이는 설문참여자 모집에 이 단체가 협력하였던 영향으로 보인다. 기타 응답에는 입양국 대사관 등이 운영하는 자체 프로그램, 미디어(MBC),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주한미군프로그램(U.S. Army deployment exercise), 여행사, 친구 등이 있었다.

응답자의 95.9%(163 명)가 유전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관계있는 사람을 한국에서 찾기를 원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86.8%(145명)가 그 과정에서 한국에 있는 자신의 입양기관에 연락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9.4%(101명)가 가족찾기를 위해 유전자 등록을 했다고 답했다. 연령대에 따른 유전자 등록 여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유전자 등록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0대 응답자 그룹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전자 등록 비율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본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재회에 적극성을 가진 집단으로 파악된다. 응답자의 한국방문 횟수, 입양기관 연락 여부 등을 종합했을 때 이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가족찾기에 적극적인 해외입양인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유전자 검사처를 묻는 문항에는 복수 응답이 가능했고 전체 검사처는 185곳이었다. 응답자 다수가 여러 기관에 유전자를 등록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응답자 중 한국의 경찰서가 가장 많았다(36.4%, 36명). 유전자

검사기관인 <23 and Me>도 많았으며 (35.4%, 35명) 그 밖에 유전자검사 기관인 <FamilyTreeDNA>에 30.3%, <Ancestry>에 26.3%, <325캄라>는 15.2% 순으로 유전자를 등록했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37.4%(64명)가 한국 가족을 만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기존의 재회성공율 2~4%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로, 본 설문조사에는 재회를 경험한 해외 입양인들이 과밀하게 표집 되었다 할 수 있다. 또 이는 응답자의 한국방문 및 그 빈도수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령대에 따라 친생가족을 만난 응답자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2-30대는 50%가 넘었지만 40대 이상에서는 절반 이하였다. 또한 높은 연령대 그룹일수록 친생가족을 만나지 못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76.3%(129명)가 양부모에게 입양기록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입양기록을 처음 열람한 시기는 10대 시절이 35%(50명)로 가장 많았다. 70%가량이 29세 이전에 기록을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 표집단의 특이사항 중 하나는, 60대 이상 국외입양인 중 50세가 넘어서 처음으로 입양 기록을 열람한 비율이 가장 높은 37.5%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된 60대 이상의 국외입양인 중 상당수가 Me & Korea의 2014년 이후 하파투어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고 입양기록을 열람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양부모에게 받아 열람할 수 있었던 자료에 대한 서술형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양부모가 보유한 모든 서류를 받았다는 서술과 추상적으로 ‘입양기관에서 받은 서류’ 또는 ‘입양서류를 받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언급된 구체적인 서류명은 귀화증명서, 출생증명서, 건강(접종)기록, 입양기관이나 보육시설(구 고아원)의 아동생활기록부, 비자신청서, 여권, 사진, 입양기관과 양부모 간 편지, 친권포기각서 등이다. 가족찾기에 유용한 친생가족의 연락처나 호적등본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입양가정에서 본 입양기록은 가족찾기에는 불충분한 정보였다는 응답이 많았다. 일부 양부모는 서류를 못 보게 하였거나, 일정 연령 이후에 열람이 가능했다. 입양과 관련한 거짓 정보를 보거나 들었다는 경우도 있었다.

2) 입양기관에 대한 정보 요청

해외입양인의 입양기록에 대해 알 권리는 2012년 ‘입양특례법’ 제36조에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제입양의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마련해 놓은 ‘헤이그 아동입양협약’에서도, 계약국에 아동의 출생에 관한 정보(특히 병력과 그 부모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보존하고 아동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30조). 현재 입양인이 입양기록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자신의 입양이 처리되었던 한국의 입양기관과 아동권리 보장원 (구, 중앙입양원) 두 곳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입양인들은 입양기록청구에 대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을까?

입양기관에 연락을 취해 입양정보를 청구한 응답자는 152명으로 전체응답자 중 88.9%에 달하고, 아동권리 보장원에서 입양정보를 열람한 응답자도 전체 응답자 중 61%인 105명이었다. 입양기관에 연락을 취한 152명을 살펴보면, 118명은 이메일 연락이 77.6%로 가장 많았고, 방문 접촉도 106명(69.7%)이었다. 이 문항에 응답한 총 152명이 271개의 응답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응답자들은 방문과 이메일, 전화 등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입양정보 요청을 한 응답자 중 입양인의 절반가량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1.9%(80명)가 입양기관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고, 48.1%(74명)가 제공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입양서류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응답은 24.5%(24명)에 불과했고, 제공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75.5%(74명)였다.

입양기관에 요청했을 때 추가적인 입양정보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사람의 33%(58명)가 정보를 받은 반면, 56.1%(96명)는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한 추가정보의 획득은 13.5%(23명)이고 받지 못한 응답자는 76.5%(75명)였다. 이는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인의 열람청구를 받아 우선 입양기관에 연락을 취해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입양기관보다 훨씬 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요청하여 받은 입양정보를 통해 입양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록보다 상세한 입양배경 기록을 얻을 수 있었다(입양배경, 고아호적, 아동인수 리포트, 보육원 기록, 자신이 발견된 장소, 위탁가정의 기록, 발견당시 옷차림새, 자신을 발견한 경찰서의 기록 등). 그 기록 중에는 친모/부의 생년월일, 친모로부터의 편지, 가족의 편지, 가족사진, 입양가족에게 주지 않았던 사진들이 포함된다. 또한 친생가족의 바뀐 전화번호나, 친생가족이 찾고 있었다는 사실 혹은 또 다른 친형제/자매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례도 있다. 입양기록을 열람할 때, 보육원, 경찰서나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입양기관에 방문하여 입양서류를 볼 수 있었다는 답변은 50.3%(86명)이고, 볼 수 없었다는 응답자도 39.8%(68명) 있었다. 입양기관에서 입양서류 복사본을 받았다는 응답 51.6%(80명), 받지 않거나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3.9%(75명)이었다. 입양서류 복사본을 받은 경우, 양부모가 가진 서류와 같거나 그보다 부족한 서류를 받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호적등본이나 입양배경 같은 새로운 정보나 서류를 얻은 경우도 있었다. 입양기관에서 입양인들에게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문도 많았다.

입양정보 획득을 위해 한국 입양기관에 방문한 횟수는 한 번이 가장 많았다(73.1%, 98명). 두 번 이상 방문한 응답자는 26.8%(36명)이며, 5회 이상 방문자도 있었다(2.9%, 4명).

한국 입양기관 방문 시 누구와 동행했는지를 중복 선택할 수 있는 질문에 가족(입양 가족, 배우자나 파트너 등)과 함께 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30.3%, 36명). 입양인 친구(22.7%, 27명), 시민사회단체 자원활동가(22.7%, 27명)와 방문했다는 답변도 비슷한 수준으로 많았다. 시민사회단체 자원활동가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해외입양인연대 G.O.A.'L>과 <미앤코리아>가 다수 언급되었다. 혼자 방문했다는 답변도 23.5%(28명)로 많았다. '기타' 답변으로는 그룹투어 중 방문, 언론과 방문, 입양국 입양기관 직원과 방문 등이 언급됐다.

입양기관 정보획득 도움 요인으로는 (복수 응답) '찾은 연락(이메일, 전화)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60.5%(69명)로 가장 많았다. '찾은 방문'이 20.2%(23명)였고, 한국어 통역사와 동행이 도움되었다는 응답이 27.2%(31명)로 나타났다.

가족찾기에 필요한 정보를 묻는 서술형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자신과 친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친생부모의 주소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었다. 이때 '구체적 정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많았다. 입양서류 접근성 제고, 가족찾기 절차 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입양서류를 받는 대가로 입양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5명(9.68%)이었다. 입양서류를 받는 대가로 후원을 요구받은 적이 있었다는 응답자는 13명(7.6%)이었다.

한국 입양기관 직원들이 입양서류 열람을 꺼리거나 주저하는 것을 경험한 응답자는 38.3%(59명) 있었다. 입양기관 직원들의 태도에 관해서 경험은 직원마다 얻을 수 있는 서비스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접촉 시기도 영향을 주는 요소로 파악된다. 전반적으로 정보제공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례에 대한 기술이 많았으며, 직원이 가족찾기에 대해 부정적인 개인 인식을 표출한 경우도 보인다. 찾지 말라고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 사례들이 보고된다. 사전 약속을 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를 열람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한국 입양기관의 입양정보 제공에 대한 입양인의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2.86점이었다. 입양기관에서 경험하는 입양정보 요청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가 가족과 재회한 경우(평균 3.10)가 재회하지 못한 응답자 그룹(평균 2.62)보다 높게 나타났다.

해외입양인은 입양정보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특히, 입양인들이 양부모로부터 받은 자료는 번역된 자료로서 정확한 이름이나 지명,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입양인들의 가족찾기에는 한국 입양기관이 가진 기록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입양인들의 정보청구에 응해야 하는 기관은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이다. 입양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입양정보청구제도는 입양기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기관의 기록을 전수조사, 보존, 열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개개인의 입양인들의 요청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 바, 입양인의 알 권리가 얼마나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3) 가족찾기

입양 관련 정보요청을 하는 모든 입양인이 가족찾기를 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 어떤 입양인들은 가족찾기를 시도하지 않고 자신의 입양기록만을 열람하며, 입양기록 열람 후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다른 계기로 가족찾기를 시도하기도 한다. 이 절에서는 입양인의 가족찾기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각각의 조력기관과의 협력정도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가. 한국 입양기관의 조력에 대한 평가

한국 입양기관이 가족찾기 절차에 대해 충분한 수준의 가이드를 제공했다는 응답은 32.4%(48명), 제공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67.6%(100명)이었다. 입양기관은 입양서류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응답은 31.3%(46명), 그렇지 않았다는 응답은 68.7%(101명)이었다.

입양기관으로부터 가족찾기에 대한 후속 정보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27.4%(40명), 제공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72.6%(106명)였다. 후속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 빈도는 '한 달에 한 번'(18명, 36.7%), '석 달에 한 번'(12명, 24.5%), '6개월~1년에 한 번'(38.8%) 등 다양했다.

후속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응답자를 포함하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후속 정보제공의 빈도에 대한 일관적인 가이드가 없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0입양실무매뉴얼』(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입양기록을 보유한 기관은 입양인에게 입양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연락을 주고받은 한국의 입양기관 직원들의 전반적인 태도와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2.84점이다. 전반적으로 만족했다는 응답(4점과 5점, 31.5%)보다 불만족에 가까운 응답(1점과 2점, 41.8%)이 더 많았다.

응답자 중 3명을 제외한 대부분(97.7%, 137명)이 영어로 소통했다. 설문조사가 영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어로 소통했다는 응답이 다수였을 것을 감안하더라도, 설문조사 응답자 중 35%가 프랑스를 비롯한 비영어권 국가의 입양인임을 감안할 때, 한국 입양기관과 전반적인 소통이 영어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통했던 한국 입양기관의 통번역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26점이었다.

입양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차별과 무례함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25명(17.4%)이 직원에게 차별과 무례함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공감 부족, 자의적 판단으로 입양인에게 가족찾기를 포기하라고 반복적으로 권유, 정보를 감추려고 하거나 거짓을 말함 등이 언급되었다.

가족찾기에 대한 입양기관의 반응과 조력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77점으로 측정되었다. 만족(4점과 5점) 응답(28.3%)보다는 불만족에 가까운 응답(1점과 2점)이 더 많았다. (42.8%) 입양기관 만족도는 친생가족과 재회 여부에 따라 달랐다. 친생가족과 재회한 집단(평균 3.13)은 재회하지 못한 집단(평균 2.56)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나. 아동권리보장원에서의 경험

가족찾기를 시도할 때 아동권리보장원과 접촉 경험이 있었던 사람에 한해 응답하도록 했다. 전체 응답자의 61%인 105명이 응답했다.

아동권리보장원과 접촉경험이 있었던 응답자 중 가족찾기 과정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응답은 35.2%(37명)이었고, 61.4%(68명)는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입양서류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응답은 24.5%(25명)에 불과했고, 제공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75.5%(74명)였다.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한 추가정보의 획득은 13.5%(23명)이고 받지 못한 응답자는 76.5%(75명)이었다.

아동권리보장원과 소통 언어는 한 명을 빼고 모두(98.7%) 영어로 소통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번역 서비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08점이었다. 아동권리보장원 직원과 소통의 문제점에 대해 응답자 중 6%(5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구체적 서술을 살펴보면, 직원의 무반응이나 관료주의적 태도에 대한 내용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이 없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가족찾기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77점으로 평가되었다. 만족에 가까운 응답(4점, 5점)보다 불만족에 가까운 답변(1점, 2점)이 더 많았다.

다. 기타 시민단체 및 정부기관과의 경험

입양인들은 가족찾기를 위해 한국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 외 경찰서(51.7%, 62명), 보육시설(구 고아원. 36.7%, 44명)을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접촉한 시민단체로는 <해외입양인연대 G.O.A.'L.>(50.8%, 61명)로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입양인 친구나 한국인 친구 등 개인들과 접촉한 경우도 많다(41.7%, 50명). 일단 한국에 나와서 재회를 시도하는 입양인들은 여러 기관과 단체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찾기를 위해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등 한국 정부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1.3%(17명)로 저조했다. 한국 정부가 가족찾기에 충분한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35명만이 응답했는데,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다는 답변(68.6%)이 다수였다.

4) 친생가족 상봉경험

본 연구에 참여한 171명의 입양인 중 64명(38%)이 친생가족(Birth family)과 상봉·재회했다고 응답했다. 친생가족과 만난 시기는 1992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93%가 2000년 이후 상봉했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재회한 연도는 2019년(8명)이다. 재회 시 응답자의 나이는 14세~62세 사이였으며 평균 31.5세였다. 20대에 재회한 응답자가 47.6%, 30대에 재회한 응답자는 37.7%였다. 주로 20-30대에 재회가 많이 이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한국 방문 횟수에 따라 친생가족 상봉의 성사 여부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2회 이상 방문자의 재회 비율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한국 방문 빈도가 높은 그룹에서 친생가족과 재회하는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이 결과를 한국에 여러 번 방문하여야 재회 성사가 가능한 것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고, 가족과 재회한 응답자가 재회 이후 한국에 여러 번 방문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입양기관 연락 여부와 재회도 관련이 있었는데, 입양기관에 연락한 경험이 없는 그룹이 가족을 찾을 확률은 매우 낮았다. 입양기관을 통한 가족찾기의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재회한 친생가족을 모두 기술하는 답변에는 어머니를 만났다는 응답자가 44명(69%)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를 만났다는 응답자도 20명(31.7%), 응답자 중 29명(60%)은 친생모만 만난 경우였고, 친생부만 만난 경우도 8명으로 전체의 15.7%가 된다. 부모 둘 다 만난 경우는 14건으로 전체 재회응답의 27.5%를 차지하고 그 밖에도 17.5%의 응답자가 형제/자매(이복형제/자매 포함)와 24%의 응답자가 기타 친척(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포함) 상당수가 여러 가족을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만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미국의 아버지를 만난 사연, 한 가정에서 다른 가정으로 입양된 형제/자매를 만난 사연도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를 먼저 만나고 기타 친척을 만난 경우가 많았지만,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형제 자매나 기타 친척만 먼저 만난 경우도 일부 있었다.

응답자의 15명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재회가 이뤄졌다고 응답했고 이 수치는 전체 재회를 경험한 64명 중 23%에 해당한다. 특히 50대 이상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한 재회 성공 비율이 높았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재회하였는지에 대한 응답은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30대와 40대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한 재회 응답비율이 낮았고, 50대 이상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한 재회 응답비율이 높았다. 이 경우, 특히 50대 이상의 응답자 중, “혼혈인”의 비율이 높고 그들 중 한 명이 미국 아버지를 찾은 경우가 재회응답에 포함되었다.

본조사에서는 한국 친생가족과의 재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주체로 입양기관을 꼽았다. (29명, 42.6%). 그 다음은 개인(8명, 11.8%)과 시민사회단체(7명, 10.3%) 순이었다.

재회에 걸린 시간을 살펴보면, 친생가족을 찾는 데 소요된 기간은 짧게는 최소 1주부터 최대 62년이다. 재회 시도의 시작점에서 1년 안에 친생가족을 만난 경우가 31명(49.1%)이었고 1년에서 5년 사이에 재회를 한 입양인은 15명(23.7%), 그리고 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재회에 성공한 분들도 16명(27.3%)이나 된다. 재회를 시도하고 5년이 넘게 기다려 만난 입양인 응답자의 재회여정에 대해 상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친부모임을 확인하고 실제적인 만남을 수행하는 데 걸린 시간인지, 아니면 확인하는 데 1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지, 아니면 입양기관에서 재회조력 절차의 문제로 만남이 지체되었는지 많은 상황변수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서베이의 결과로만 해석하기에는 미진하다.

상봉을 준비하는 해외입양인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은 통번역의 문제이다. 입양인들은 본인 스스로 통번역자를 섭외하기도 하고, 입양인 권리옹호단체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며, 입양기관이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섭외를 도움받기도 한다.

5) 상봉 이후

본 연구에 참여한 입양인들은 응답자 70명 중 90%(63명)가 상봉에 대해 긍정평가로 대답했다. 하지만 친생가족과의 상봉경험은 복잡다단하고 중첩적이면서 일관적이지 않은 경험이 대부분이다.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 답변은 압도, 벅참, 혼란, 궁금증이 생김, 비현실적, 슬픔 등이었다. 부정적이거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에 대해서는 언어 장벽, 문화 장벽, 여전히 비밀로 부쳐진 관계, 화가 나고 슬픈 감정, 입양기관의 거짓말 확인 등으로 설명되었다. 이를 통해 재회는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인 감정과 상황의 경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추후 재회의 경험과 감정에 대해서는 양적연구뿐 아니라 심도 있는 질적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서로에 대한 기대나 예상, 문화적 차이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어, 심리, 문화적 지원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친가족 상봉 후, 부정적이거나 해소되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는가 하는 질문에 70명의 응답자 중 45명 (64.3%)이 그렇다고 답했다.

재회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보다 상세히 입양인 응답자로 하여금 재회 당일의 갖가지 경험들을 돌이켜 보고, 재회조력기관이나 조력담당자들의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러므로, 앞서 밝힌 “재회”가 갖는 주관적 의미와는 별도로, 상봉 당일 재회경험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물은 질문이다. 재회경

험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3.84점이다. 4점 이상 긍정적 만족도 응답이 65.2%이지만, 1점이라고 답한 매우 부정적인 경험자도 7명(10.1%)이었다. 재회 시 통번역 서비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76점이다. 4점 이상 긍정적 만족 응답이 66.7%이지만, 매우 나쁨의 경험도 8명(12.7%) 있다. 가족 재회 경험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특별한 서비스를 묻는 질문(중복 응답 허용)에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자들이 가족상봉 통역에 대한 접근(71.4%, 40명)⁸⁾과 입양서류 번역에 대한 접근(67.9% 38명)을 꼽았다. 즉,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6) 상봉이후 친생가족과의 관계

재회의 사건은 많은 질문들의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이며 현재 진행형이다. 상봉 이후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은 어떻게 관계를 쌓아가고 있을까? 첫 상봉 이후 한국에 재방문한 응답자는 76.6%(49명)이다. 응답자의 78.8%(52명)가 한국의 친생가족과 연락하고 지내며, 21.2%(14명)가 연락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친생부모·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대한 질문에는 주 3회 이상 (11.1%), 월 3회 이상(11.1%), 월 1-2회라고 대답한 응답자수가 19%로, 응답자의 41.3%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회입양인의 4분의 1은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을 취한다고 응답했다.

연락을 지속하는 경우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는지에 대한 서술형 응답은 다음과 같다. 거의 대부분이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소통하고 있었다. 그 밖에 이메일, 직접 방문, 전화 등도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와 연락하는 경우도 많지만, 부모의 연령이나 SNS 활용 여부 또는 영어 능숙도에 따라, 혹은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소통의 방식과 빈도는 다양했다. 온라인 소통채널을 사용하면서 형제·자매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재회 이후 한국에 방문하고 연락을 유지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도 90%에 달했다. 이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가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혔다. 또한 많은 응답자가 재회 이후에도 친생부모와 자신의 관계가 비밀로 부쳐진 경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친생부모의 현재의 배우자가 입양인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입양인의 재회경험을 통해, 입양인의 재회경험이 진정한 화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또한 문화 차이와 언어 차이로 인한 서로에 대한 거리감이나 재회 이후의 관계회복을 입양인이나 친생가족 개인의 과제로만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는, 재회 이후의 과정을 지지해주는 입양인-친생가족의 치유프로그램 및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응답자들은 서술형 답변을 통해, 재회의 경험과 다양하고 복잡한 측면이 가족찾기를 원하는 다른 입양인들과도 공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회는 일시적인 첫 만남이 아니라, 재회 후의 관계 복원, 치유와 회복 등을 포함하는 긴 과정이라는 점도 제기했다. 따라서 재회에 대한 사후서비스는 일시적인 이벤트로서 첫 상봉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재회 이후의 회복을 지원하고 지지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7) 재회에 관한 소회

입양인들의 재회의 경험에 대한 서술형 답변은, 재회의 시작과 과정에서 절차상의 개선점뿐만 아니라, 재회가 입양인의 정체성, 삶의 여정에서 갖는 의미를 드러내 주었다. 아래 조사된 개개인의 재회에 관한 소회는, 재회 = 힐링·화해·치유라고 보는 간편한 이해에 대한 반성을 요구한다. 특히 입양인들의 재회 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은, 입양을 담당했던 입양기관, 입양을 장려하고 방조했던 한국정부, 또한 해외입양에 대한 한국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윤리적 책임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① 해외입양인만이 경험하는 삶의 어려움, 정체성의 혼란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온전한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데 재회는 의미가 있다.

② 해외입양을 발생시킨 한국사회와 한국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혼모의 양육여건을 개선하고, 입양인의 재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③ 재회에 대한 편견과 환상을 깨고 재회의 진실을 입양인과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해외입양인들의 시민사회에 대한 지지와 기대는 현재 해외입양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재회를 조력하는 일을, 해외입양을 알선하고 진행시킨 4대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과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입양원) 외에도 이미 많은 단체들이 해오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입양인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시민사회의 조력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지하고 있었다.

서술형 답변에서는,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에게 해외입양의 재회절차에 대한 인지도 교육, 인력의 전문성 증강처럼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문화적 지지망, 그리고 재회 시 입양인들과 짝을 이룬 멘토링 시스템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특화된 제안도 있다. 또한, 시민사회의 사설 입양기관과 정부의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견제와 제도개선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요구가 눈에 띈다. 특히 주의를 끈 것은 접근성에 관한 문제이다. 입양인들은 많은 재회 조력단체에게 언어적, 물리적, 정보력에 대한 접근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 친생가족 심층 인터뷰

1) 재회와 한국의 친생가족

(1) 친생가족의 인구학적 배경

본 연구는 재회에 관하여 해외입양인만이 재회를 원하고 시도한다는 기존의 선입견에 대항하여, 친생부모·가족들의 재회 시도, 노력, 여정, 그리고 상봉, 재회 후의 관계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을 주목한다. 이를 통해, 친생부모·가족들의 재회욕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친생가족들께 본 연구에 대한 참여를 의뢰하기 위하여, <뿌리의집>은 <325캄라>의 유전자 데이터 뱅크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 <325캄라>의 협력을 통해 사전 동의를 받은 친생가족들 중 다섯 분께 연락을 취해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또 다른 다섯 분은, <뿌리의집>에서 그동안 해외입양인 지원활동을 통해 알게 된 친생가족들께 연구협조 요청과 동의를 구하여 총 열 명의 친생가족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사는 2019년 7월부터 11월초까지 대면 또는 전화 인터뷰로 이루어졌고, 입양인 재회경험 설문지를 바탕으로 친생가족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진행되었다. 입양인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였지만, 친생가족들은 인터뷰를 통해 인터뷰어가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기입하고 발언내용을 녹취하였다.

총 열 명의 친생가족 중, 생모는 여섯 명, 생부는 한 명, 형제 한 명,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입양에 관여한 고모와 외삼촌이다. 이들의 나이는 2021년 기준, 만 40세부터 74세까지이고, 해당아동의 입양연도는 1966년부터 2000년에 이른다. 모두 <325캄라>에서 주관하는 친생가족 유전자검사등록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다. 열 명의 친생가족이 총 열두 명의 입양인¹⁴⁾을 찾고 있었고, 이 중 다섯 명은 입양인과 재회를 경험했다고 전한다. 전체 참여자 중, 세 명은 실종으로 인해 자식이나 자신의 친형제·자매와 이별을 경험하였고, 이 중 두 명은 수십년의 노력 끝에 <325캄라>의 유전자 등록 사업을 알게 되어 <뿌리의집>에 유전자 등록을 위해 직접 방문하였다.

입양에 이르게 된 계기는 실종, 가정불화, 이혼으로 인한 생활고와 양육의 어려움, 장애아동 출산, 미혼출산과 양육의 어려움, 가족들의 종용, 그리고 아동유괴 등이다. 하지만 가정의 불화나 이혼은, 경제적 어려움이 입양으로 이어지기까지 우연하고도 복합적인 원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사연을 종합해 보면, 스스로 입양기관에 의뢰를 했던 어머니는 고작 2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스스로 입양기관에 아동의 입양을 의뢰했던 아버지는 두 명이다. 그 외에 두명의 가족은 유괴나 실종으로 인해 행방불명된 아이를 입양 간 것으로 추측하면서 찾고 있었고, 친모 모르게 입양을 처리했던 남동생과 고모도 조카를 찾고 있었다.

친생가족들의 참여자 시선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구조 질문지를 가지고 진행했던 인터뷰 내용을 개개인의 입양의 경험과 재회를 결심하게 된 동기, 망설임, 그리고 경험을 중심으로 다시 직조해 보았다. 여기서는 친생가족분의 증언을 토대로 담당기관들의 행정적, 관례적 절차와 친생가족이 마주하게 되는 난관들을 파악해 보았다.

(3) 재회를 위한 시도와 노력의 흔적들

열 명의 참여자들이 재회를 위한 행동에 나서게 된 계기는 다 다르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너무 미안한 마음 때문에”, “티비에 해외입양인들이 가족을 찾으러 나오는 것을 보고”, 또는 “거기 미국에서 잘못돼가지고 있으면 한국에서 내가 데리고 살고 싶은 마음”으로 재회에 나섰다. “가는 그날부터 찾고 싶었다.”는 신선화님의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 재회를 둘러싼 친생부모들의 마음의 자락을 오지영님은 이렇게 표현하였다.

“나한테 손가락질해도(울음) 사죄도 하고 싶고... 한번 보고 싶어요.” 용서도 받고 싶고, 밥도 한 번 먹이고 싶다고, 너무 미안하지만... 한번 보고 싶다고... 근데 지금 이게 잘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괜히 찾아 놓고도 엄마 원망할까봐. 원망하고 안 볼까봐. 안 만난다고 할까봐. 그래서 안 만난다고 해도 그냥 멀리 서라도 보고 싶어요. 멀리서...(흐느낌) 보고 싶어요... 안아주고 싶어요. 안아주고... 우리 아들 잘커줬다 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어요. 미안하다고...(흐느낌) 엄마가 사랑하고 미안하다고... 내 손으로 미역 국 끓여서 밥먹여주고 싶어요.”(오지영님)

재회를 시도하고, 재회를 기다리는 마음의 이면을, 이미선님은 “아이에게 지금 맞는 건지, 이게 내가 찾는 거 때문에 혹시 아이가 곤란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은 있어요”. 이렇듯, 재회는 찾고 싶다는 간절함과 이것이 맞을까 하는 번민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3-1) 재회의 첫걸음 – 입양기관 연락

생사를 확인하고 싶고 미안하다는 사과를 해야 하면서도 복잡한 마음이 떠나지 않는 재회. 그 재회를 위해서, 해외입양이라는 블랙홀로 실종된 아이들인 입양인의 소식을 구한다는 것은 아이의 입양을 담당했던 입양기관에 연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신선화님은 입양기관에 전화했을 때 아무말도 없이 끊겨 버린 기억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전한다². 이렇게 어렵게 발을 들여놓은 입양기관에서, 친생가족은 다시 한 번 냉대와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전한다.

“입양기관을 찾아갔을 때 웬지 의기소침해지고, 들어가려고 수위아저씨에게 말해야 하고, 특히 예전에는 딱히 사후입양 상담 서비스 이런 게 없어서, 어두침침한 골방 같은 곳에서 이야기했던 게 생각납니다. 입양기관의 비협조적인 태도, 말투, 비언어적인 거... 눈빛”에서부터 차별감을 느끼고 불편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미선님)

많은 친생부모·가족들은 직접 입양정보를 찾아보려고 입양기관에 갔을 때의 경험을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고 전한다. “너무 자존심 상하게... ‘무엇 때문에 아이를 찾느냐’는 느낌으로 대했고,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제가 의지를 하려고 그 아이를 찾는다’는 그런 느낌”을 주었다. 쉽게 말해서, “죄인 취급을 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김정화님).

모멸감과 차별을 견디면서도 입양기관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김정화님은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보낸 사람들(은) 입양을 보낸 기관에 전적으로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입양기관에서 너무 그 죄인 대하듯 하거나 저희가 현재 지금 생활이 좋아졌던, 나빠졌던 어떠한 상황에 있든 간에 그 아이가 잘 살고 있는지, 입양 간 아이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아이가 아파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런 거라도 알고 싶어서... 입양기관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최소한 저희가 죄인이기는 하지만 죄인취급을 안 해주시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아이를 찾아내라고 떼를 쓰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김정화님)

신선화님은 분명 한국의 입양기관에서는 본인 딸의 입양수속을 처리했던 미국의 입양기관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지인 입양인의 도움으로 딸의 입양을 중개했던 입양기관이 지금도 운영되고

² 신필식은 재회를 희망하고 경험한 친생가족과의 인터뷰를 통해 친생가족이 경험하는 재회의 망설임과 입양기관의 높은 벽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저도 입양 보낸 아들을 찾아봐서 아는데 친부모들이 자식 찾으려고 입양기관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주변만 빙빙 맴 도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신필식 논문, p.189-191, 340-341

있다는 사실을 듣고, 한국 입양기관에 다시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 문자 입양기관 직원 김모 씨가 “그럼 어머니가 알아보세요.” 하며 편지를 주었다고 한다. 입양기관의 비협조적이고 차별적인 태도에도, “우리 애 왔는데 나한테 연락을 안 해주면 어쩌나 싶어서”, 본인은 항상 조심스럽다고 한다.

그렇게 연락을 하는 입양기관에서 친생부모가 가장 처음 듣는 이야기는 ‘재회 불가능함’이다. “우리가 직접 못 찾는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홀트에 연락을 해보니, 저희는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못 찾고, 산부인과에서 간호사 이름으로 미혼모로 보내졌기 때문에 간호사가 찾으면 찾을 수 있을까 그러는데... 저희는 못 찾고 그쪽에서(입양서류에 기재된 간호사명)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오지영님). “그냥 그... 인제 내 아들 최○○ 씨는 미국인이라고, 미국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야만 하지 내가 찾으 면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쪽에서 찾아와야만 내가 찾을 수 있다는 거지.”(이선혜님)

특히, 직접 입양수속에 참여하지 않은 이선혜님이나 오지영님 같은 경우는 입양서류에 있는 친생모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 아니어서, 당시 입양서류에 기재된 사람이 이선혜님 또는 오지영님이 본래 친엄마임을 증명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선혜님이나 오지영님은 입양서류가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꾸며졌는지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입양기관의 비협조적태도와 차별적인 언행과 눈빛은 심층인터뷰에 참여하신 대부분의 친생가족이 지적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회를 위해선 한국의 입양기관이 유일한 소통창구이자 매개기관이기 때문에 친생부모들은 입양기관에 항의를 하거나 부당함을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3-2) 친생가족들의 재회 시도 경험과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입양원)의 역할

2008년 최초의 정부기관 성격을 띤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입양원)이 설립되었다. 2013년부터 아동권리보장원은 총 3개의 민간단체인 입양기관으로부터 해외입양서류의 데이터 일부를 이관받아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서비스를 돕고 있다³. 하지만 친생가족 심층인터뷰에서는 반 이상의 참여자들이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셨다. 아동권리보장원을 찾으셨던 친생가족분들 또한 “의지가 없고, 행정적으로만 일을 대하며 (김병호님), 비전문적인 느낌을 받으셨다.(이미선님)

친생가족들 중 매우 적극적으로 재회를 준비하시는 신선화님은, “중앙입양원도 정부에서 하는 거라 도움이 많이 될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내가 찾아가겠다고 해도 별로 원하지도 않더라고요. 또, 한 번은 중앙입양원에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입양인들 오면 친생부모와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 그러면 각 기관에다가 입양인들 나오면 친생부모와 만나는 계기가 있는 것을 얘기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³ 2021년 12월 기준, 3곳의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서류는 233,000건인데, 아동권리보장원의 전산화는 24% 정도인 56,000건에 이르고 있다.

‘어, 그래요?’하고 그닥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제의를 해봤는데 아동권리 보장원으로 통합되고 명칭이 바뀌고 조직이 정리가 안 됐는지 뭐가 잘 안 되더라고 요”. (신선화님)

(3-3) 재회를 향한 친생가족의 여정, 의미와 기대

가족들의 사연을 보면 몇 가지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 국외입양인을 찾고 있는 친생가족이 있다. (2) 친생가족 또한 입양인들과 마찬가지로 재회를 위해 각자 개개인이 노력하고 있다. (3) 이 친생가족이 반드시 친부모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4) 국외로 입양을 갔다는 사실을 모르는 친생부모·가족이 있을 수 있다. (실종자 가족, 직접 입양에 관여하지 않은 친생부모·가족들) (5) 친생가족들은 입양기관의 사무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를 경험한다. (6) 친생가족들에게 아동권리보장원의 존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친생가족 중 다섯 명은 입양인과 재회를 했고, 다른 다섯 명은 재회를 못한 상태이다. 3명은 재회를 하려고 경찰서, 입양인네트워크, 시민단체, 입양기관,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까지 다 다니다가 결정적으로는 우연한 기회에 또는 지인의 도움으로 재회에 성공한 경우이고, 2명은 <325 캠프> 유전자 검사를 통해 결정적으로 재회를 한 경우이다. 35년 전 남동생의 아이들을 입양시키고 “너무 미안해서” 찾기 시작하는 고모부터, 어린이 대공원에서 아주머니에 안겨 사라진 남동생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입양인지원단체에 유전자 정보를 등록해 놓은 형제, “운이 좋으면 입양을 가지 않았을까” 하면서 35년째 아이를 찾는 친생부, 그리고 자신의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눈이 안 보이기 전에 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친생모까지 모두들 유전자 등록을 마치고, 입양기관에 연락처를 전한다. 친생가족의 재회를 위한 노력은 기다림이다. 또, 이 기다림 끝에 재회를 경험한 다섯 명의 친생가족의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되었다. 재회의 경험을 둘러싼 감정들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다. 재회의 시점에 따라 흥분과 기대감, 삶의 안정감과 균형감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렵게 찾은 입양인과 관계의 시작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마음, 조심스러움이 가득하다. 입양 보낸 아이와의 재회가 본인들의 삶에서 “숙제를 한 느낌,” “마음의 응어리가 풀린” 그리고 뭔가 재회 후 “잘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회술한다. 재회는 친생가족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삶의 변곡점이다. 또한 재회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친생부모·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듯하다. 친생부모의 입양인 정보청구권이나 정보열람권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입양기관을 찾아가 자신 의 주소나 연락처를 남겨두고, 유전자 검사를 해두고, 혹시나 올지 모르는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다.

친생가족의 인터뷰는 국외입양의 절차와 그 위법성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한다. 그리고 당시의 국외입양 관련 법조항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입양기관이 아동을 인수하면서, 관행적인 인권침해사례는 없었는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특히 (1) 열 명의 친생부모·가족들의 사연은, 해외입양에 있어서 친모, 친부 모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입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오지영님의 사례에 따르면 간호사의 이름이, 또 이선혜님의 경우, 입양서류에 작은 동서(이혼한 남편 동생의 부인)의 이름이 친 모로

기재되어 있다고 전했다. (2) 열 분의 친생가족 중 한 분은 실종아동이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된 경우였다⁴ 이 연구에 참여하신 열 분의 친생가족의 이야기가 해외입양 70 년의 아동인수에 관한 관행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사례는 2016 년 김호수의 해외입양 친생모의 구술사 연구와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Kim, 2016) 많은 친생모들은 아이의 입양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거나, 본인이 직접 입양 결정을 한 경우에도 국외입양의 절차와 결과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일회적인 상담을 끝으로 입양을 결정하고 자신의 아이와 이별을 한다. 이러한 입양관행은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정상가족의 외부에 놓인 저소득여성, 이혼여성, 미혼여성 등의 재생산권리를 묵살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친생가족의 인터뷰를 통해서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해외입양인의 재회는 해외입양인을 교육하고 재회를 돕는 시스템을 일괄적이고 투명하게 재정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과 지지는, 한국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며, 이를 위한 법적 토대와 자원마련은, 해외입양에 대한 역사적 재정의와 한국사회구성원들의 윤리적, 집단적 책임의식이 수반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III. 제언

이 섹션은 입양인과 친생가족이 재회조력기관인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 시민단체, 그리고 한국정부에게 보내는 제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입양인의 제언을 우선 입양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시민단체 순서로 묶어 보았고, 친생가족의 서술답변은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한 제언으로 정리했다.

1. 입양인 응답자의 제언

한국의 입양기관에게 대한 제언을 묻는 서술형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입양정보와 가족찾기 절차에 대해서 투명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공개하라. 입양인의 입장에 공감하길 바라며 우리에게 재회 권리가 있음을 알아달라. 도우려는 적극성을 가져달라. 해외입양을 중단하라.”

⁴ 한국의 입양과 실종아동의 연관성은 이미 1970년대부터 신문지면을 통해 보도되었다. 현재 14개국 17여만 명의 한국태생 해외입양인 중 3만여 명이 “유기 등에 의한 무연고 아동”으로 친생부모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 이 무연고 아동 중 실종아동도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Q58. 한국 입양기관에 조언

주제	세부 내용
투명성	가족찾기 절차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 입양기록 숨김없이 공유 거짓말이나 정보조작 하지 말 것
입양기관과 뿌리찾기 서비스(기록관리) 분리	민간에서 기록을 관리해선 안 됨 입양기관과 뿌리찾기 서비스 분리
통번역 서비스	번역 지원 언어 프로그램 지원
입양인 중심의 서비스	적극적 의지로 지지와 지원, 상세한 정보 제공 입양인의 재회의지를 권리라고 인식할 필요 입양인 의견 경청/존중 뿌리찾기에 개인 의견을 반영하지 말 것
해외입양 중단	해외 입양을 중단하고 아동이 국내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함 입양인에게 책임지는 자세로 가족찾기를 지원

2)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입양원)에 대한 제언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의견은 기본적인 문의에 대한 응대, 직원의 근무 안정성과 전문성 제고 등과 같이 기본적인 역량 부분이다. 정부기관으로서 적극적이고 충분하게 입양인의 재회욕구와 실천을 지지하 라고 제언했다. 그 세부적인 권고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입양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찾기 문의 응대와 서비스 개선 등과 같이 기본적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길 바라며,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재회를 위한 공적 기관으로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

Q59. 아동권리보장원에 조언

주제	세부 내용
가족찾기 서비스 개선	직원의 전문성 강화 및 전문인력 확보/신속한 일처리 홈페이지 개선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인 가족찾기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서비스 이용 방법 유전자 검사를 통한 matching system 마련
입양기록 열람권 강화	입양인이 입양기록을 열람할 권리 보장
입양인 중심 관점	입양인의 입장에 서서 역할 해외입양의 국가적 책임환기 주도적 역할 재회 후 절차를 위한 서비스 지원
해외입양축소/감독	해외입양 축소 입양기관 감독

3)재회에 관련된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제언

본 연구의 입양인 응답자들은 재회를 위해서, 입양을 알선했던 해외입양기관과 2009년 이후 정부기관으로 입양인의 조력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 이외에도 각종 입양인 자조단체, 시민단체를 방문하고 있다. 입양인 설문조사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기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성을 높이고 온라인을 더욱 활용하라. 입양인들에게 가족찾기 절차, 정보, 한계를 투명하게 알려주고, 정부에 견제 입장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 달라. 입양인과 가족의 문화 이해, 의사소통,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가 마련되면 좋겠다. 도움이 되었고 지금처럼 계속 지원하라.”

Q60.시민단체에 제언

주제	세부 내용
전문성 확보	일관성 확보 봉사자들이 더 나은 훈련과 급여를 받아야 함 신속한 후속조치와 명확한 절차 마련 한국어와 영어를 잘 할 줄 알며 입양인에 공감하는 직원이 가장 좋음
온라인 활용	정보와 단체들이 연결된 하나의 플랫폼 재회 후 입양인들과 친부모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보유정보(지역, 생년월일 등)로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
투명한 안내	가족찾기 단계별 절차 안내 입양인들이 부정적 상황에 대응하도록 투명하게 현실을 안내 입양서류의 정보가 거짓일 수도 있다는 점을 입양인에게 알려줄 것
문화 이해 지원	한국과 입양국의 문화를 상호 이해하도록 도움 한국 입양 역사와 미혼모에 대한 차별 등 부정적인 사실도 이해하도록 도움

2. 친생가족이 정부와 기관에 바라는 점

1) 정부기관⁵에 바라는 점

1-1. 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알 권리 및 법제도 개선

- 장기실종아동의 가족들에게 해외입양인들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창구 개설
- 입양인의 입양기록 열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진단, 복원이 필요
- 정부 차원에서 입양인 유전자 검사 실시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한 입양서류 접근 제한을 재고하고 제도적 개선 필요

1-2. 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 지원

- 해외입양의 재회 전담기관 마련
- 경제적인 이유로 재회를 못하고 있는 입양인과 친생가족에게 경비지원
-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를 담당하는 책임있는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 재회 시 통역 제공
- 해외입양 중단 및 해외입양 미화 금지

⁵ 해외입양에 관계된 정부기관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있다. 이 외에도 해외입양 아동의 비자발급과 연계된 외교부와 법무부 등의 정부부처가 있으며, 연구 및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등이 있다.

2) 입양기관에 바라는 점

- 입양인의 입양에 관한 모든 기록에 대한 접근권 보장
- 친생가족을 대하는 입양기관 직원들의 차별적 언행 시정과 인간적 예우에 대한 교육

3) 한국사회에 바라는 점

- 입양인이 한국의 가족을 찾으러 왔을 때 환대하며 예의있게 대하고, 성심성의껏 노력할 것
- 친생가족을 차별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사회

IV. 결론

1. 시사점과 제언

본 연구를 통해서 입양인 응답자와 친생가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목했던 내용을 정책적 제언으로 정리 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입양기록의 공적 관리
- 재회 전담 공적기관 설립
- 입양정보 공개 청구 법제 개선
- 해외입양인-친생부모 유전자 데이터 베이스 구축

1) 입양기록의 공적 관리

입양인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인 입양기록이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정보의 열람이 기관 직 원들의 자의적 판단과 태도에 좌우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기관의 투명성이나 공정함에 대해 입양인이나 친생가족 모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입양기관은 입양인과 친생가족에게 독점적인 정 보제공권을 행사하고 있어, 입양인들과 친생가족 모두 기관과의 소통과 상호작용에 대해 위계 관계를 경 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입양인들의 제언 가운데에는 입양기록은 공적으로 기록·관리·청구 및 열람되어 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친생가족의 인터뷰를 통해 입양기관의 인권침해적인 행태(친권포기각서 와 친생모부에 관한 기록의 왜곡, 누락, 소실)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입양기록의 은폐와 조작은 입양 예비아동을 만드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회를 시도하는 친생가족들 역시, 입양기록의 공개와 기록에 대한 접근권 보장, 입양기록과 재회를 전담하는 정부 부서 신설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2) 재회 전담 공적기관 설립: 입양인과 친생가족 중심의 지지 체계 마련

본 재회연구에서 입양인 응답자와 친생가족들은 재회 및 장기적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별도의 공적 기관 설립을 요구한다. 본 조사에서 파악된 재회 전담기관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입장에 공감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관점과 적극성을 갖추고 재회를 조력 할 것

둘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할 것(한국의 해외입양역사에 대한 이해와 지식, 입양국가의 언어 구사 능력, 재회를 앞둔 입양인을 위한 심리상담 역량, 문화적 차이에 대한 민감성을 갖춘 통번역 등)

셋째, 가족찾기와 첫 상봉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회 이후의 관계형성과 회복을 조력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 특히 가족찾기 과정에서부터 첫 만남, 재회 이후 관계 형성 과정에서도 통번역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 재회 통번역은 단순히 언어의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양인과 친생부모가 놓인 맥락과 입장을 이해하고, 재회의 의미를 알며 이를 위한 통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천하는 일이다. 즉, 재회를 지원하는 통번역은 전문적 역량을 요한다. 또한 통번역은 일회성 서비스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서비스다.

3)입양정보 공개 청구 법제 개선 - 당사자인 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 욕구를 모두 반영

입양인이 친부모 찾기를 청구했을 때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이 취하는 조치는 등기우편 발송이다. 입양기록에 근거한 주소지로 세 차례 발송 후 답이 없으면 프로세스가 종결된다. 다시 말하면, 수십년 전 친생부모·가족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는 것은 매우 실효성이 낮은 방식이다. 최근 3년간 국외입양인의 입양정보 공개 청구 5,174 건 중 친생부모가 정보 공개를 거부한 건수는 5%인 277 건에 불과했다. 무응답은 25%인 1,342 건은, 친생부모가 정보 공개를 거부했는지 불분명한 데, 등기우편을 통해 주소지로 동의 요청을 보내는 방식이 실제 친생부모의 재회 의지를 확인하는데 유효하지 않은 방식임을 알 수 있다(김동규, 2020.9.28.).

입양정보 공개 청구 제도는 입양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나,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설문조사 응답 중에는, 입양인의 부모를 알 권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답변이 많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7 조 및 9 조를 통해 아동에게 부모를 알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고, 최근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에 대한 검토서에서도 “입양아동은 친생부모를 찾을 권리와 친생부모의 정보에 적절하게 접근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아야 한다”고 권고한 만큼(UN, 2019), 입양인 과 친생부모 간 재회 성사를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입양인의 알 권리가 막혀있듯이, 해외입양인을 둔 친생부모에게도 입양인들의 생사와 안위를 확인하는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친생부모 입장에서, 입양정보 공개청구제도는 친생부모의 재회 의지를 고려하지 않고 친생부모를 수동적인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친생부모가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거부한 경우가 전체의 5%에 불과하고, 25%의 무응답을 소극적 거부의로 해석해본다고 해도, 70%의 친생부모는 입양인의 재회 시도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친생부모 재회 연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회에 팽배해 있는 아이를 버린 비정한 부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 본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입양기관의 “그쪽에서 먼저 찾기 전에는 못 찾는다.”는 식의 단호한 태도이다. 201 년 강태인은 친생부모들의 가족찾기 욕구를 사회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하는 과제로 보고, 입양특례 법에 친생부모들의 자녀찾기를 지원하는 법률 규정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⁶. 해외입양인의 재회 의지를 입양인의 알 권리의 발현으로 본다면, 입양특례법에 친생부모의 재회를 조력하고 지지하는 법률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4) 입양인-친생부모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마지막으로, 64 명의 입양인들 중 25%인 16 명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한국의 가족을 찾았다고 밝혔다. 또한, 친생가족 10 명 중 2 명이, 그리고 아직 재회하지 못한 입양인들 모두 유전자 검사에 재회의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다. 2015 년부터 <325 캄라>라는 초국적 입양인연대를 통해 입양인의 가족찾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한국정부는 2019 년 12 월부터 외교부, 보건복지부, 경찰 합동³⁶⁾으로 세계 14 개국 34 개 의 해외공관에 한국 태생 입양인이 자신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 등록,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유전자 검사는 60 대 이상 나이대의 입양인 또는 실종/무연고 아동처럼 기록이 소실된 입양인들에게는 재회의 유일한 가능성이 될 수 있다. 지난 70 년간 17 만여 명의 한국 태생 해외입양인 중 3 만여 명이 무연고 아동으로 친생부모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실종가족의 사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기실종자 가족들과 해외입양에 전혀 동의하지 않은 채로 추후에 해외입양소식을 알게 된 친생가족들, 그리고 재회를 원하는 친생가족들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입양인-친생부모-가족 유전자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유전자검사를 통한 가족찾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와 일대일 대응을 통한 방식이 아닌 친족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다만, 적어도 가족찾기를 원하는 이들 또는 현재와 미래의 이산가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단으로서 유전자등록을 홍보·독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2. 의의

본 연구에서 수집된 해외입양인들과 친생가족의 경험과 각 조력기관에 대한 그들의 제언은 한국사회에서 재회를 위한 조력에 요구되는 법적, 경제적, 사회적 토대를 질문케 하고, 이는 곧 한국정부와 기관, 그리고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해외입양에 대한 책임을 환기시킨다. 지난 70 년간 강제이주를 경험한 해외입양인들의 재회 의지에 한국사회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리고 빈곤, 미혼,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가정, 장애인 가족, 실종 등의 이유로 입양을 선택하거나 타의에 의해 입양을 경험하게 된 이름 없고 얼굴 없는 친생모·부·가족들이 재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일까? 해외입양인과 친생모·부·가족의 재회란 더 이상 사적인

⁶ 강태인 「해외입양인 친생부모의 생애사 연구 : 자녀 찾기 경험을 중심으로」(2014)

행위나 욕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입양인 과 친생모·부·가족 모두 재회를 통해 비로소 해외입양으로 인한 상실을 확인하고 애도할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재회에 '성공'한 입양인들과 친생가족들이 겪는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한국정부가 해야 할 해외입양과의 화 해·애도의 시작점이라 생각한다.

해외입양인과 친생부모·가족의 재회를 위한 공적 지지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마련하려면, 한국정부가 70 여 년에 걸쳐 지속해온 해외입양의 역사적 부정의, 해외입양 절차상의 인권침해 상황, 여성에 대한 재생산권 침해 상황, 해외입양 아동이 겪은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와 재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사회복지 학문의 확립과 함께 발전해 온 해외입양의 실천과 담론을 다시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70 년 아동복지 시스템으로서 기능해 온 해외입양이 더 이상 '미혼모 문제'로 불리지 않도록, 해외입양 복지산업에 기여한 다양한 이해기관과 행위자들에 대한 체계적 연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양정보공개청구 및 친생가족찾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2023.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
이주연 부연구위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LEADING THE WAY IN IMPROVING PEOPLE'S QUALITY OF LIFE AND SOCIAL AFFAIRS

목 차

포럼

- 1 들어가며
- 2 입양정보공개청구 및 친생가족찾기 서비스의 쟁점
- 3 정책적 개선방안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LEADING THE WAY IN IMPROVING PEOPLE'S QUALITY OF LIFE AND SOCIAL AFFAIRS

1.

들어가며

1. 들어가며

입양인에게 있어서 입양정보의 의미

 정체성에 대한 열망, '삶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는 과정

"3살 정도에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었어요. ... 한국이 너무 그리웠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었어요. ... 입양된 나이에 관계없이, **한국을 떠나는 건 많은 부분을 잃은 듯한 느낌**일 거예요. ... 가족을 만난 지금은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주연 외, 2022, 국외입양인 인터뷰 결과)

 '인생의 퍼즐 맞추기', 가족을 찾고 만나서 다시 살고 싶은 마음보다는, 내 존재의 정당성을 알고 싶은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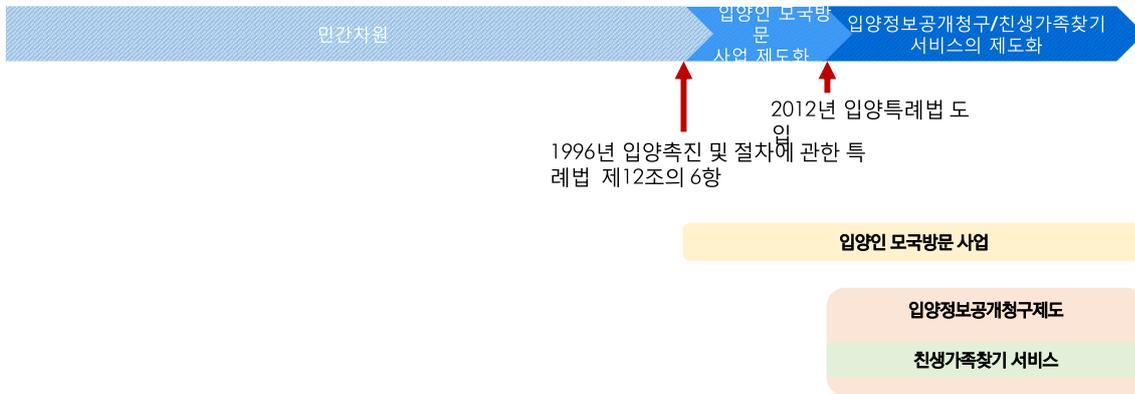
"내 인생의 **퍼즐 맞추는** 느낌. 나의 존재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 받고 싶은 생각. 나의 존재가 **정당하지 않은 결과였는가**라는 의문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태어나서 그 가족과 사는 것이 일반적인데 나는 그렇지 않아서, **왜 나는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을 친생가족찾기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가족을 찾고, 만나서, 그 사람들과 같이 다시 살겠어 라는 마음으로 친생가족찾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주연 외, 2022, 입양 전문가 인터뷰 결과)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태어난 것인지, 태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친구들이 대부분 가족 관계 유지하는 것보다는 **자기 정체성을** 알고 싶은 거라서... (입양인들은) 한국 가족을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태어난 건지 그 이후에 있었던 일 알고 싶어해요." (이주연 외, 2022, 입양 전문가 인터뷰 결과)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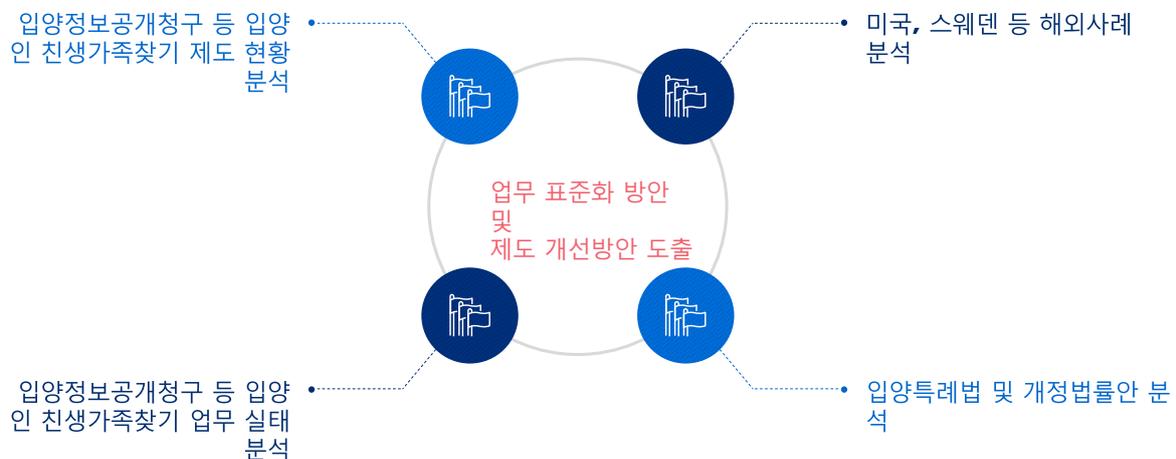
입양인의 재회를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정부는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5조4호에 따라 입양인 친생가족찾기 서비스 제공

1. 들어가며

2022년 아동권리보장원의 수탁과제로 수행된 “입양정보공개청구 등 입양인 가족찾기 업무 표준화 연구” 결과 활용



2.

입양정보공개청구 및 친생가족찾기 서비스의 쟁점

2. 입양정보공개청구 및 친생가족찾기 서비스의 쟁점



연구결과 도출된 쟁점의 종합(1)

- | | | | |
|---|---|---|---|
| <p>1 입양기록의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유형에 따른 입양 관련 정보의 불균형 입양기록의 부실 혹은 진실성 문제 제공 기관의 정보 중복 혹은 정보 오류 문제 | <p>2 수행체계에 대한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 운영기관 간 관계 정립 필요 요구 창구의 일원화 및 다원화 요구 국외 입양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이 요구되는 문제 | <p>3 제도 설계 상의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 및 서비스 대상 범위 확대 요구 절차의 정비(식별정보/비식별정보의 청구절차 분리) 요구 서류 보존기간과 대상자 불일치에 따른 업무 어려움 | <p>4 지침의 모호성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뉴얼 상 허용된 기관 재량이 야기하는 입양인의 혼란 기관 혹은 기관 유형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량, 서류 서식/시스템, 제공 정보 수준의 차이 |
|---|---|---|---|

2. 입양정보공개청구 및 친생가족찾기 서비스의 쟁점

연구결과 도출된 쟁점의 종합(2)

5 제도의 현실화 문제

청구건별 소요시간 사례 난이도에 따라 완화 필요

친생부모 의사 확인 방안 개선 필요

미성년자 대상 기준 마련 어려움

데이터 시스템 개선 필요

6 입양인의 불신

입양인의 입양기관에 대한 불신

입양인의 요구와 불만으로 인한 입양기관의 업무 어려움

7 운영체계/서비스 질 문제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상담업무의 어려움과 해소 방안 필요 요구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필요

2. 입양정보공개청구 및 친생가족찾기 서비스의 쟁점

연구결과 도출된 쟁점 - 입양기록의 문제

1 입양기록의 문제

기관유형에 따른 입양 관련 정보의 불균형

입양기록의 부실 혹은 진실성 문제

제공 기관의 정보 반복 혹은 정보 오류 문제

입양정보공개 신청 자격

- 「고아입양특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및 「입양특례법」 등에 따라 입양된 입양인(만19세 이상은 직접 신청)
- 고아입양특례법 : 시행령 상 입양인가를 위하여 개인이 법원에 호적등본, 아동 및 가정조사서, 입양동의서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입양기관이 직접 인가 받을 때에는 이러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1977년 입양특례법 : 시행규칙 제11조3항 입양알선기관이 입양관계서류의 작성 및 비치할 것을 규정

1996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입양정보의 영구보존, 입양관계서류로 입양아동 뿐 아니라 양부모의 서류도 포함

2012년 입양특례법: 입양정보의 기록, 기록의 공공화, 입양기록의 영구보존



법령상 기록보존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영구보존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과거의 일정 기간 동안 입양기록이 온전하지 못할 가능성

✓ 따라서, 1996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입양된 입양인은 규정 상 신청자격이 있으나, 입양의 기록과 기록의 보존이 어려웠던 시기에 입양되었으므로, 온전한 입양정보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2. 입양정보공개청구 및 친생가족찾기 서비스의 쟁점

연구결과 도출된 쟁점의 종합 - 수행체계와 제도 현실화 문제

2 수행체계에 대한 문제

제도 운영기관 간 관계 정립 필요 요구

창구의 일원화 및 다원화 요구

국외 입양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이 요구되는 문제

5 제도의 현실화 문제

청구건별 소요시간 사례 난이도에 따라 완화 필요

친생부모 의사 확인 방안 개선 필요

미성년자 대상 기준 마련 어려움

데이터 시스템 개선 필요

✓ 입양정보공개 신청 기관의 이원화: 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관

- ▶ 청구처가 기록물 원본 보관상소에 따라, 청구횟수에 따라 상이하여 신청기관 별로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을 조정하기 어려우며, 국외입양인의 접근성 저해
- ▶ 입양기록 원본을 입양기관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기관에 원본 기록물의 사본을 제공받아야 하며, 제공받는 기록물의 범위 또한 입양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함

✓ 친생부모의 동의 확인 절차가 등기우편(3회)으로 한계

- ▶ 친생부모의 무응답, 폐문부재, 타인수령, 수취인 불명, 수취거부, 입양사실 부인 등의 경우 재연락 어려움

✓ 신청거별 특성에 따라 절차의 차이, 복잡성 가중

- ▶ 입양사유, 제공가능한 입양정보의 양과 질에 따라 입양정보공개가 친생부모 소재지파악, 정보공개동의, 무연고입양인 유전자 정보 등록 등과 연결 진행

2. 입양정보공개청구 및 친생가족찾기 서비스의 쟁점

연구결과 도출된 쟁점의 종합 - 제도 현실화 문제

3 제도 설계 상의 문제

제도 및 서비스 대상 범위 확대 요구

절차의 정비(식별정보/비식별정보의 청구절차 분리) 요구

서류 보존기간과 대상자 불일치에 따른 업무 어려움

비식별정보

입양인의 배경 정보(시행령 제13조)

- 입양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 입양일 및 입양 사유
- 친생부모의 거주 지역명(「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의 명칭을 말한다)
-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보육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입양정보

식별정보(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은 후 공개)

친생부모의 인적정보(시행령 제13조)

-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 ✓ 입양인의 배경정보와 연관된 기록물(예: 친생모 상담기록지,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카드 혹은 상담기록지)에는 보다 상세한 입양사유가 적혀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를 공개하기 어려움. 입양정보 중 공개가능한 비식별정보의 내용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 연관 기록물을 통해서 비식별정보를 추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

2. 입양정보공개청구 및 친생가족찾기 서비스의 쟁점

연구결과 도출된 쟁점의 종합 - 지침의 모호성 문제

4 지침의 모호성 문제

매뉴얼 상 허용된 기관 재량이 야기하는 입양인의 혼란

기관 혹은 기관 유형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량, 서류 서식/시스템, 제공 정보 수준의 차이

공개되는 입양정보의 원본 기록은 어디에?

- 입양정보의 원본 기록물은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폐업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정부기관을 통해 입양된 경우)에 각각 보관
- 단,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에 51개 항목으로 전산화된 입양정보를 보유

구분	전산화된 항목의 내용
입양인	성명(입양전),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출생일시, 출생장소, 혈액형, 건강이상, 건강이상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인수일자, 기관고유번호, 가족유형, 장애등급판정, 보호 유형, 조치일자, 조치구분, 국적(국외입양), 국외협력기관(국외입양), 성명(입양후), 입양 신고일(국내입양), 출국일(국외입양), 국적취득일(국외입양), 파양이력, 아동고유번호
친생부모	친부성명, 친부 주민등록번호, 친모성명, 친모 주민등록번호, 주소(친모), 연락처(친모), 취약 계층구분(친모), 입양사유(친모), 입양동의여부(친모), 정보공개여부(친모), 장애등급유무 (친모), 주소(친부), 연락처(친부), 취약계층구분(친부), 입양사유(친부), 입양동의여부(친부), 정보공개여부 (친부), 장애등급유무(친부)
입양부모	양부성명, 양부생년월일, 양모성명, 양모생년월일, 양부국적, 양부종교, 양부직업, 양부학력, 양모국적, 양모종교, 양모직업, 양모학력, 양친주소, 양친 연소득, 양친 친자유무현황, 양친 연락처, 양친 주택종류, 양친 부채, 양친가점조사신청일

- 전산화된 입양정보만으로 입양인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는가의 문제, 입양 원본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기록물의 사본을 제공받는 등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 기록물에 제시된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공개할 것인지가 원본 기록물 보유기관의 재량하에 있다는 문제

2. 입양정보공개청구 및 친생가족찾기 서비스의 쟁점

연구결과 도출된 쟁점의 종합 - 입양인의 불신

6 입양인의 불신

입양인의 입양기관에 대한 불신

입양인의 요구와 불만으로 인한 입양기관의 업무 어려움

- 서류마다 다르게 기재된 입양정보: 기록의 진실성에 대한 불신을 키움

"정보가 진짜인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어떤 서류에는 결혼했다고 되어 있기도 하고, (다른 서류에는) 안 했다고 써 있기도 하고..."(이주연 외, 2022, 입양인 인터뷰 결과)

- 기록의 오류: 기관과 기록에 대한 불신을 키움

"(제가 입양기관에서)받았던 정보는 전체 정보가 아니었고, 입양배경정보에 대해 예를 들어 얼마 아빠가 데이트했는데, 헤어졌고, 얼마가 임신을 해서 아빠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는 그런 얘기와 관련된 정보 조금만 받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힘들었어요. ... 00기관에 사회복지사가 확실하게 말하길 얼마가 그동안 저를 전혀 찾지 않았고, 저 외에 다른 아이도 없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였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제 가족들이 그동안 저를 찾았어요. 제 사진도 두 장 있었어요. 아무도 제게 얘기해주지 않았던 거죠." (이주연 외, 2022, 입양인 인터뷰 결과)

- 방문횟수, 동행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제공 정보의 양과 질: 기관에 대한 불신을 키움

"갈 때마다 정보 조금씩 더 알려주는 ... 처음에는 혼자 갔어요. 혼자 갔는데 그건 혼자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안 보여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 첫 번째 갔을 때 (자료들) 복사해주지 않았어요. ... 두 번째는 ... 한국말 잘하고 한국문화도 잘 알고 있어서 그때 조금 더 받았어요. ... 세 번째는 같이 일했던 남자분들과 같이 갔는데, 한 코분들이었어요. ... 문제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있어야 되는데" (이주연 외, 2022, 입양인 인터뷰 결과)

- 과거의 불법적 관행을 알게 됨: 기관과 기록에 대한 불신을 키움

"제 생각에는 해외로 입양되어온 고아들은 사실은 부모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저희를 해외로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 등록부 상에 저희를 고아로 만들어야 했던 건데, 사실은 부모가 살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부모를 찾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주연 외, 2022, 입양인 인터뷰 결과)

2. 입양정보공개청구 및 친생가족찾기 서비스의 쟁점

연구결과 도출된 쟁점의 종합 - 운영체계 및 서비스의 질 문제

7 운영체계/서비스 질 문제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상담업무의 어려움과
해소 방안 필요 요구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필요

입양정보공개청구의 이용자 현황

청구연도	청구건수	
	청구건 기준	청구인 기준
2019	2,175	1,241
2020	1,449	960
2021	1,327	921
2022	2,045	1,153

선행연구에 따르면 입양인의 50% 이상이 생애 한번 이상은 친부모를 찾고자 하며 (Selman, 1999), 국외입양의 경우에는 친생가족을 찾고자 하는 비율은 31.6% 수준

입양정보공개청구의 잠재수요(국외입양인)



3.

정책적 개선방안

3. 정책적 개선방안

01. 입양정보공개 및 친생가족 찾기 청구권자의 확대

현행

- ✓ 양자가 된 자(미성년자인 경우 양부모 동의)
- 입양특례법 제35조



개선방안

- ① 친생부모·가족으로 확대 방안에 대한 고려 필요
- ② 양자가 된 자가 사망 시, 성년인 직계비속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 필요

입양기록 보존 규정이 미흡하였던 기간이 있음을 고려, 60년대 이전 입양인의 고령화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 필요

3. 정책적 개선방안

02. 입양정보공개 및 친생가족 찾기의 대상 확대

현행 공개대상 정보

- ✓ 입양인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
- ✓ 친생부모 동의 시, 친생부모의 개인 정보



개선방안

- ① 친생가족찾기를 확대하기 위하여 친형제자매 등 친생가족의 정보로 확대 필요(친생가족 동의 시)
- ② 입양이 이루어질 당시, 아동보고서 상 친생가족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수집하도록 개선 필요

3. 정책적 개선방안

03. 수집 및 공개 대상인 입양정보의 범위 확대 및 서식화

현행

- ✓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기재된 입양배경정보 공개가 어려운 상황
- ✓ 입양관련 서류 상 작성내용의 충실성에 대한 기준 미비



개선방안

- ① 입양인의 욕구에 따라 입양절차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 ② 입양 당시에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내용 중 신원정보를 제외한 사항이 아동보고서에 비식별정보로 모두 기재될 필요
- ③ 입양관련 서류 상 기록의 충실도를 상향 평준화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작성지침 마련 필요

3. 정책적 개선방안

04. 업무 책임 기관의 확립

현행

- ✓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이 담당
 - 최초 청구는 입양기관, 재청구는 아동권리보장원
 - 친생부모 개인정보보호 ↔ 입양인의 알 권리 사이에 판단 및 조정 주체가 모호
 - 불법적 실무와 관행 발견 시 조치 규정 미비



개선방안

- ① 아동권리보장원의 책임기관으로 역할하도록 개정 필요
- ② 친생부모 개인정보보호 ↔ 입양인의 알 권리 충돌 시, 판단의 역할을 법원에 맡기는 방안(미국 일부 주, 독일)
- ③ 불법적 실무나 관행 발견 시 조치에 대해 명문 규정 추가

3. 정책적 개선방안

05. 입양관련 기록 관리의 일원화

현행

- ✓ 입양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에 분산

개선방안

입양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공기관(아동권리보장원) 중심으로 중앙집중화 및 일원화



3. 정책적 개선방안

06. 입양인 편의 증진과 신뢰회복 방안 필요

현행

- ✓ 청구방식은 입양인 본인이 직접 청구
- ✓ 최초청구 시 식별정보와 비식별정보의 동시 청구 가능
 - 비식별정보 제공가능 여부확인에 장기간 소요
- ✓ 친생부모 동의의사 확인 방식: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
- ✓ 입양기록이 없는 사례에 대해 언론홍보, 무연고입양인 유전자 등록, 위탁모 찾기 등 가능

개선방안

- 1 입양인이 지정한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수령 등 대리 가능하도록 개선
- 2 최초청구 시 비식별정보 제공, 비식별정보 수령 후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식별정보 청구(단, 예외허용)
- 3 친생부모 핸드폰번호 활용, 현장방문조사 실시
- 4 유전자뱅크 도입을 위한 법제도 마련 고려, 입양 전 입양인이 머물렀던 장소, 돌보았던 시설, 가정, 사람 등에 대한 접근 가능하도록 지원 확대



3. 정책적 개선방안

07. 업무의 표준화

현행

- ✓ 입양인에게 제공하는 비식별정보의 내용 및 제공방식 상이
- ✓ 입양당시 수집하는 비식별정보의 내용 및 유형 미흡
- ✓ 미성년 입양인 대상 서비스의 비표준화
- ✓ 서비스 서식이 기관마다 다름



개선방안

- 1 비식별정보 표준화, 원본열람 가능하도록 개선, 입양서류 간에 기록된 내용 차이/미흡 시 업무수행지침 마련
- 2 수집하는 입양아동 배경정보 중 비식별정보 추가, 첨부서류로 의료보고서, 심리(학교) 보고서, 친부모 관련 보고서 등 첨부 제안
- 3 미성년 입양아동 대상 서비스 표준화(심층 대면상담 후 원하는 정보를 선택 제공)
- 4 유전자 뱅크 도입을 위한 법제도 마련 고려, 입양 전 입양인이 머물렀던 장소, 돌보았던 시설, 가정, 사람 등에 대한 접근 가능하도록 지원 확대

3. 정책적 개선방안

08. 정책 인프라 개선 및 확충

현행

- ✓ 업무의 데이터시스템 미흡 - 기관 활용도 낮음
- ✓ 담당인력의 부족
- ✓ 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



개선방안

- 1 데이터시스템 개선(통계 산출 가능하도록, 입양인 정보 중 가정 외 보호 이력 조회 가능하도록, 상담기록 기재 용이하도록)
- 2 아동권리보장원 담당 인력 규모 확충 필요(현재의 5배 수준)
- 3 인력의 역량 기준을 기관 내부 지침으로 포함,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이주연, 안소영, 류정희, 김재민, 주하나 (2022). 입양정보공개청구 등 입양인 가족찾기 업무 표준화 연구. 아동권리보장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연 (2023). 입양정보공개와 기록, 국가적 입양기록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감사합니다.

이별, 입양, 재회의 공명과 애도

신필식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먼저 국내에서 지금까지 연구가 부족했던 해외입양인 가족찾기와 재회, 입양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훌륭한 두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토론을 통해 두 발표자분의 발표에서 인상적인 두 가지와 질문 두 가지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호수 교수님의 발표는 해외입양인 171명의 설문조사와 친생가족 10명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2022년 뿌리의집 연구 보고서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에 관한 기초연구』(이하, 재회연구 보고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주연 연구위원님의 발표는 같은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로 발간된 『입양정보공개청구 등 입양인 가족찾기 업무 표준화 연구』(이하, 가족찾기 보고서) 중 정책 제언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두 연구 모두 국내의 실제 가족찾기 경험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관련 정책의 표준화라는 중요한 과제에 대한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신 귀중한 연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수 교수님의 재회연구 보고서에서 첫 번째로 인상적인 점은 입양인들의 친생가족 찾기에 대한 95%가 넘는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족과 재회를 한 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한 36%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의 전체 한국 해외입양인의 재회율을 보고서에는 2%에서 4%¹⁾로 인용한 것에 비해, 36%는 월등히 높은 비율로 볼 수 있으나 입양인과 친생가족이 당연히 재회할 수 있어야 하는 관점에서 볼 때 36%는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연령별로 20대와 30대 해외입양인 즉 1990년대 이후 해외입양인의 경우 50%가 넘었던 반면, 1990년대 이전에 입양된 40대의 경우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러한 가족찾기 성공률의 차이는 해외입양된 시대별로 현재 진행되는 가족찾기는 물론 해외입양 기록과 입양동의 절차 등에서 어떤 유의미한 차이, 즉 부실한 기록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재회연구 보고서에도 나타난 것처럼 이러한 낮은 재회율은 결국 59%의 높은 가족찾기 유전자 등록과 연결되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재회연구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인상적인 점은 재회를 전후로 입양인과 친생가족이 겪는 복합적 감정과 이런 감정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기록과 분석이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실제로 입양인은 재회를 통해 ① 벽참, 놀라운, 압도적인 느낌, ② 복잡함, 혼란스러운 감정, ③ 정신없음, 지침, ④ 정체성 확인, 궁금증 해소, ⑤ 슬픔, ⑥ 현실 장벽, 기대와 다름과 같은 아주 복합적인 감정을 동시에 경험함은 물론 재회 이후에도 ① 이질감, ② 비밀에 부쳐진 관계, ③ 여전히 베일에 싸인 진실, ④ 언어 장벽, ⑤ 입양기관의 정보조작 확인을 하게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입양인에게 재회는 거의 압도적이고 너무도 복합적이어서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경험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족상봉을 위한 통·번역과 같은 기초적 서비스에 대해서도 70% 내외의 입양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현재의 지원이 최소한의 수준도 보장되지 못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친생가족의 경우도 ① 재회를 위해 용기를 내어 입양기관을 찾아가도 모멸감

1) 한편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정보공개청구 현황(비공개 내부자료)에서 최근 5년 간의 평균 입양정보 공개청구 수는 1,625건이었으며, 그 가운데 입양정보공개 동의 건수 평균은 338건으로 20.8%였으며, 상봉 건수는 평균 67건으로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 냉대를 겪지만 결국 입양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② 실제 입양기관이나 중앙입양원(현 아동권리보장원)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마음이 없이 행정적으로만 일을 처리하거나 전문성 부족, ③ 친생부모의 입양인 정보청구권이나 정보열람권이 어디에도 없는 점, ④ 재회를 통해 겪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감정으로 흥분과 기대감, 삶의 안정감, 어렵게 찾은 이후의 관계를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한 조심스러움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기존의 가족찾기와 상봉에 대한 인식과 연구가 담아내지 못했던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재회연구 보고서와 관련한 질문은 첫째, 입양동의를 포함한 입양과정에서 친생부모의 경험은 어떠하였으며, 그것이 가족찾기와 상봉에 어떠한 상관성을 갖는가입니다. 많은 친생부모가 자신이 직접 찾아 나설 수 없다고 여기거나,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로 인한 재회의 어려움이 과거의 이별과 입양의 과정과는 어떠한 상관성을 가질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가령, 헤어지는 과정에서 적절한 설명과 이해, 동의를 거쳤다면 그 경험이 친생부모 자신이 이후 현재까지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욕구, 선택을 존중할 가능성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재회에 대한 태도와 선택과는 어떤 상관성을 가질지요? 반면 부적절한 동의와 헤어짐은 친생부모가 이후 입양을 기억하고, 자녀와의 재회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다른 태도와 선택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질문드립니다.

둘째, 친생가족과 해외입양인의 재회에서 제도적 개선이 정체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포괄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이러한 열악한 재회 관련 상황과 제도적 지원 공백이 왜 발생했고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질문드립니다. 입양기관과 함께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법적·제도적 규정에 따라 입양정보공개 및 가족찾기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실제 재회 비율은 극히 낮으며, 전반적 가족찾기 관련 제도적 수준은 당사자의 필요를 충족하기에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재회와 관련된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체계는 과거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동시에 변화의 가능성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으며, 이때 어떠한 당사자 역할이나 참여의 가능성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주연 연구위원님의 가족찾기 보고서는 구체적 제도로서 가족찾기를 지칭하는 입양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어떠한 현황과 쟁점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뜻깊은 연구 성과였습니다. 가족찾기 보고서는 민간 입양기관에 의해 비공식적이고 비표준화된 가족찾기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제도화된 가족찾기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표준화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의 민간 주도적 가족찾기의 관점과 방식의 한계를 성찰하고 개선해내지 못한 상황을 정리하고 그 개선 방향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가족찾기 보고서에서 인상적인 점으로는 첫째, 현재까지 친생가족찾기 현황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친생가족찾기 이용현황으로 국외 연구에서 외국의 국가간입양인은 평균 30~50%의 입양인이 친생부모 찾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2012년 8월부터 2021년까지 누적 입양인의 전체 해외입양인의 5.8%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회연구 보고서에서 95%가 넘는 해외입양인이 입양정보 확인과 친생부모 찾기에 대한 욕구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 해외입양인은 가족과의 재회 욕구에 비해 가족찾기 제도 실제 이용률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입양정보공개청구는 접수기관으로 입양기관이 79.6%로 재청구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의 11.4%에 비해 훨씬 높은 빈도를 보였습니다. 정보공개 결과로는 최근 3년 간 친생부모 중 한 명이라도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가

29.8%였던 반면, 친생부모 중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아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비율이 41.4%로 높게 나타나 동의 비율은 낮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정보공개 동의 현황은 연령이 높을수록 정보공개 동의를 얻지 못하는 비율이 증가했으며, 입양기관별로도 동의 비율, 연락 닿지 않는 비율의 차이가 있었는데, 국가별²⁾로도 덴마크가 가장 낮은 공개율을 보였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친생부모 양측의 연락이 닿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입양정보공개 신청과 공개동의와 관련된 확인은 추후에 이어지는 논의와 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가족찾기와 관련 논의에서 활용될 중요한 기초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족찾기 보고서에서 인상적인 점은 입양정보공개청구와 친생가족 찾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었습니다. 입양인과 관련 전문가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① 업무의 표준화와 창구의 단순화, ② 가려진 진실을 알 권리, ③ 유전자 검사 등 대안적 방안의 확대, ④ 친생가족찾기 대상 확대, ⑤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를 보고서는 개선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입양정보통합시스템에서 미아, 기아, 고아, 유기아동의 경우 핵심정보 51개 이외의 정보가 필요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기록물 관리 권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의 관련 업무 담당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인력 확충과 함께 친생가족의 소재 파악을 위해 더 적극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체계, 경찰 등과 협력을 통해 현행의 등기우편과 전화 방식을 넘어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는 방안을 포함한 확대된 소재 파악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업무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이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여러 복합적 상황을 포괄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주신 권고로 관련 당국과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할 귀중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정책적 관점에서 진행된 가족찾기 보고서인 관계로 실질적 제안과 현황에 관한 질문보다는 연구를 진행하며 생각하셨을 보다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은 왜 가족찾기의 발달이 지체되었는지, 어떻게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질문은 지금껏 가족찾기와 관련하여 입양기관과 같이 다양한 관련 참여 주체가 있어 왔고, 제도 또한 비교적 촘촘하게 갖추어져 있음에도 실효성이 높은 제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가족찾기 과정은 실제 입양인 친생가족 찾기 현장의 필요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많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고서에 더해 관련 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① 입양인의 부모찾기에서 입양인 가족의 친생가족찾기로 청구권자 및 찾기 대상 확대, ② 관련 기록의 범주 확대, 기록 범주 분화 후 신원정보 외 비공개 범주 최소화 후 전면 공개, ③ 청구 창구 및 자료 일원화 이상의 역할 조정, 법원의 역할과 재회 관련 사례 추적 필요, ④ 대리인과 지원자 역할 확대를 정부 지원 필요(법률, 상담, 통역·번역, 이동 등), ⑤ 친생부모 연락 방식 개선 및 재회 결정 관련 위임, 대리 또는 지원 역할 제도화와 정부 지원, ⑥ 유전자 بانک 도입 시 친생가족 이외의 일반인 참여 확대 여부 결정 필요, ⑦ 가족찾기 홈페이지, 유전자 بانک, 가족찾기 관련 인력의 연계 강화와 인력 확충, ⑧ 관련 전문인력 및 당사자 단체, 지원단체 양성 지원을 통한 가족 상황유형별 재회 사례의 추적, ⑨ 매뉴얼화와 표준화와 동시에 사례 관리 접근으로 복합적 가족찾기 관련 체계 연계 강화 필요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선과제는 지금껏 오랫동안 제

2) 이때 국가별로 입양기관이 달랐던 점을 고려할 때 입양기관별 입양기록 작성과 가족찾기 절차에서의 방식에 대한 비교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덴마크의 경우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사회봉사회가 입양을 진행하였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한국사회봉사회가 입양을 담당하였다.

기되어 왔지만, 그 개선은 극히 부분적으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족찾기 보고서 연구와 조사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확인하거나 느끼셨던 지점이나,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총체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둘째, 가족찾기 보고서에 따르면 입양정보공개청구 등 입양인 친생가족찾기 업무 수행에서 입양기록의 원본을 입양기관 가지고 있고 아동권리보장원은 그렇지 못하다. 반면 아동권리보장원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지방자치단체에 친생부모 소재지 확인과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지만, 입양기관은 그렇지 못하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입양기관이 입양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과 지자체를 통해 친생부모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차단된 현재 상황에 대한 개선과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특히 실제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족찾기에서 입양기관이 주된 역할을 하면서도 정보 접근이 이렇게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입양기관에서 진행해온 가족찾기의 과정과 의미, 한계를 명확히 되짚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지금까지는 물론 현재의 가족찾기 제도에서 입양기관이나 민간 중심적 성격이 갖는 특징과 한계가 추후 제도적으로 공적 가족찾기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어떤 과제를 던져주는지 그리고 연구위원님께서 공적 가족찾기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새로운 전망과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 질문드립니다.

현재의 제도를 바꾸기 위해 당사자들의 삶과 목소리, 필요에 따라 수정된 적 없는 재회 관행을 이제는 바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애도’ 이 한 마디가 모든 것을 가를 수 있습니다. 이별, 입양, 재회의 과정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그 곁에서 필요한 도움과 위로 그리고 애도의 마음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애도할 수 있을 뿐. 애도라는 감정을 갖고 입양, 이별, 재회를 헤아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난 우리 사회가 헤어짐을 고민하고 결심해야 했던 이들을 대해온 방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헤어짐을 고민했던 그들은 무엇이 필요했고, 우리는 무엇을 주거나 주지 않았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돌아봄은 이별과 입양을 겪은 이들의 사랑과 슬픔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뒤늦게라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의 돌아봄, 떠올림, 기억과 깨달음에서 애도는 가능하고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애도 없는 이별, 입양, 재회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또 과연 재회가 제도화된 지금의 재회는 애도의 마음 없음까지 제도화하고 있지 않은지 질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도와 존중의 시작은 헤어진 그들의 사랑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고, 헤어져야만 했음을 인정한다고 깊고 슬픈 사랑까지 지워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아는 것일 것입니다. 정부가 재회를 정책의 개입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행한 일입니다. 기억할 것은 애도가 없는 이별, 입양, 재회의 반복과 확대가 되지 않는 제도화는 저절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기를 결심한 입양인과 친생가족 모두에게 그들 자신이 최선을 다한 진심 어린 지원을 받고 있다는 느낌은 상봉 여부의 통지보다 먼저 필요로 하는 점입니다. 가족찾기가 여느 다른 서비스나 행정과 다를 수 있는 점입니다. 해외입양 70년에 이르는 2023년, 제도와 법률이 이제는 진실을 숨기거나, 최선과 진심이 좀처럼 느껴지지 않는 현장을 정당화하기보다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토론문을 마칩니다. 끝으로 자리를 마련해준 뿌리의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재회 조력 시스템의 문제점 - 친생모의 관점에서

전현숙 (TheRUTHtable)

저는 1990년 6월 1일 미혼모로 아들을 출산하여 해외인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임신을 인지한 순간부터 21살의 어린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고민을 거쳤지만 결국 친정엄마의 간곡한 부탁으로 해외입양을 결정했습니다. 친권포기각서를 쓴 후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제게 말했는데 "미국과 유럽 중에서 어디로? 크리스천 가정과 아닌 가정에서 어디로? 친자녀가 없는 집과 있는 집중에서 어디로?"였고 저는 "미국, 크리스천 가정, 친자녀가 없는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한국 이름도 사회복지사가 지어서 제게 알려줬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입양기관으로 보내졌고 약 5개월 정도 한국의 위탁 가정에 있다가 11월 15일 캘리포니아로 출국했다고 들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아들을 다시 찾아와서 직접 키우고 싶다고 몇 번을 말했지만, 그 뜻을 이룰 수 없어서 울면서 적었던 그때의 일기장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들은 조산소에서 단 하룻밤만 보낸 후 헤어졌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움이 커서 아들의 첫 번째 생일에는 너무나 보고 싶어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 몸 안에서 아홉 달을 길러서인지 결코 잊을 수 없었고 한국에서 오직 나만 기억할 아들의 생일을 해마다 기념하면서 아들이 살아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재회는 해외입양인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재회 이전에는 제가 입양기관에 아들의 연락을 기다린다는 소식과 거주지 변경주소와 연락처를 남기고 가끔은 전화를 걸어 아들에게서 소식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그때마다 입양기관의 대답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아들에게 먼저 연락이 오기 전에는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 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저와 교류해 온 해외입양인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손을 내밀어 줘서 아들을 발견했고 DNA TEST 까지 완료한 후 최종적으로 아들과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은 문자만 하다가 2021년 11월에 드디어 미네소타의 해외입양인 커뮤니티에서 주관한 연례 행사에서 해외입양인들의 축하 속에 재회했고 2022년 9월에는 아들이 사는 샌디에이고를 방문해서 양부모님과 아들의 두 자녀를 만났고 아들과 단둘이 5일을 지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들이 사는 곳으로 제가 방문했던 이유는 아들의 현재와 과거를 제가 배워야 한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저는 잠시였지만 아들이 그 곳에서 자라면서 겪었을 여러 가지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아들 역시 경험을 통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제게 있어서 재회는 자녀를 낳았지만 기를 수 없다는 것을 매년 알아차리는 경계선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뱃속에서는 나와 한 팀으로 생명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배에서 나와서는 나와 닿을 수 없다는 것을 늘 자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만난 기쁨을 유지하면서도 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공간은 오직 '상실이란 지평' 아래서만 가능한 첫 번째 엄마가 자신의 그것을 딛고 일어나야 할 지점이기도 하며 재회한 자녀를 위해 버텨주어야 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재회 이후, 마치 첫 번째 엄마를 다시 갖고 싶고 친권 포기로 잘린 공생관계를 획득하고 싶어

신생아로 돌아간 듯 퇴행하거나 재회한 첫 번째 엄마의 책임을 다시 시험하는 입양인에게 첫 번째 엄마는 인내심을 가지고 관계 속에서 '성숙한 사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되새깁니다.

저는 사회복지 실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사회 구조와 문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배웠습니다. 관련 연구자들과 사회복지사들은 사회 구조가 우리에게 종용했던 폭력적 맥락에 대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책감에서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우리의 수치심을 덜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가진 죄책감과 사회에서 주는 수치심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자의든, 타의든 낳은 자녀를 입양 보낸 첫 번째 엄마들은 '자식을 잃어버린, 지키지 못한, 또는 버린 엄마'라는 사회 낙인에 더욱 위축되어 숨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입양을 보낸 자녀에게 유익한 행동'이라는 외부로부터 온 말을 내면화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제게 사랑을 주셨고 저는 사랑 받았습시다."라는 아들의 말은 내게 있던 죄책감을 거두어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는 내게 수치심을 줍니다. "어떻게 낳은 자식을 버릴 수 있어? 엄마가 어떻게 그래?". 이처럼 사회가 첫 번째 엄마에게 던진 시선으로 내면화된 생각은 자신의 모습을 외부로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한국의 첫 번째 엄마가 가지는 정체성은 이처럼 이중적입니다.

아들과 재회 하기 전에는 25년이 넘는 동안 많은 해외입양인과 그들의 부모님을 만나 첫 번째 엄마로서의 경험 나눔을 통해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 웃으며 치유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은 아들을 위해 내가 할 일이라 생각했고 나도 성장해야겠다고 결심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방문을 한 성인 해외입양인들과도 오랫동안 교류하면서 해외 입양의 또 다른 모습도 알게 되었습니다. 친생 가족을 포함해 나라와 문화, 언어와 음식과 정 서까지 상실한 채 먼 땅에서 그 나라 사람으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쓰지만, 수시로 맞닥뜨리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 우울감과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내가 최선이라고 선택해서 아들에게 준 삶이 과연 아들도 최선이라고 인정했을까?"라는 의문이 들면서 무척 괴로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입양은 개인의 또는 그 가족만의 일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그 개인을 둘러싼 가족의 이야기이고 가족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숫자가 20만 명이라는 건 적어도 낳은 주체가 40만 명(임신은 남녀의 관계이므로)이며 생각보다 훨씬 입양의 서사로 둘러싸인 가족이 많다는 말입니다. 저는 입양인의 딸이기도 합니다. 입양인의 자녀, 그다음 세대까지 고려한다면 결코 입양은 개인만의 일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입양은 책임입니다. "언젠가는 엄마도 자녀를 찾고 싶을 때가 오며 자녀도 자신을 낳은 엄마를 찾고 싶어 한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입양을 보낼 마음을 가진 첫 번째 엄마들을 면접 상담하는 '모든 곳'에서 반드시 말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양인들이 "우리가 느끼는 상실감을 부모님들이 인정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입양인이 말하는 부모님들 속에는 입양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생부모들도 있다는 것을 입양인들을 통해 배워서입니다. 세상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친생모의 뱃속에서 아홉 달을 함께 있었던 아기가 세상에 나와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분리됨으로 인해 안전 기지를 상실한다는 것은 그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감정이며 아무리 감추려 해도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궁금해하기에 그 아기를 분리하는데 함께 했던 우리는 모두 회복하는데도 함께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회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재회 직후에 일어날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맥락에 대한 첫 번째 엄마와 출생 자녀의 관계를 조명하고 인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후서비스를 하는 기관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공공기관에 재회와 관련된 전문적인 공간과 인력이 있어서 언제라도 입양 당사자들이 재회 후 자신의 변화에 대해 편안하게 묻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어 입양 관련 기관들을 통해 재회 서비스를 신청할 때 입양인이 느꼈던 수치심, 불안감, 절망감을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입양인지 감수성'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입양은 끝이 아니라 끝없는 이야기의 시작이며 재회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한국 입양사회는 첫 번째 가족에 대해 알 권리를 원하는 입양인들에게 답을 주어야 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사실 입양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는 입양을 축복과 사랑의 한 방편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했을 때 이 상황을 예견하고 준비했어야 합니다. 사랑에 책임이 없다면 어떻게 축복으로 성립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5년전에 재회를 한 친생모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과 이야기를 더 이상하지 않습니다. 난 그 딸에게 지쳤어요." 그 모녀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재회를 했는지 알고 있던 나로서는 무척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친생가족과 재회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의 성공률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재회 후 연결이 끊어진 사례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 일을 도와줄 심리상담사나 사회복지사를 만날수 있는 방법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 친생가족을 찾는 일과 함께 그 재회가 성공적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지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개인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아는 한국의 지인들은 저와 아들의 재회에 대해서 이제 다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숙제의 장을 펼친 후 하얀 도화지를 어떻게 써나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오히려 재회 이전보다 지지와 격려는 줄어들었고 혼자서 감당해야 할 수고는 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의 입양을 주선했던 입양기관에서는 아직도 저와 아들의 재회 소식을 모릅니다. 재회에 애써주지 않은 곳에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입양을 주선해야 할 아기가 내 몸 안에 있을 때 그들이 쏟던 열정은 어디로 가고 재회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에 실망했습니다. 입양기관의 입양 사후서비스에 첫 번째 엄마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잊힌 여성'이고 '잊혀야 하는 여성'입니다. 제가 '엄마'라고 쓰지 않고 '여성'이라고 쓴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제가 재회를 한 첫 번째 엄마로서 끝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끝-

재회의 구조적 장애물에 대한 논의

참고 사항: "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를 위한 조력 시스템"에 대한 패널의 토론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뿌리의집과의 오랜 인연으로 이 초대에 응하게 되었고 현재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의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토론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입양인의 친생가족 찾기와 재회 경험에 정통한 임상 사회복지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재회 과정 중에 있는 입양인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 경험에 대한 연구가 저의 연구 분야도 아닙니다. 또한 저는 문화인류학자나 발달심리학자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의 토론 내용에는 입양인들이 재회 과정 중 겪을 수 있는 문화적,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을 가진 교수, 전문가 및 단체가 많이 있고 아쉽게도 저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분야에 대해 전문가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적 영역과 전문 지식 간 구분: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인 입양인으로 한국에 있는 저의 친생가족과 재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재회를 경험했다고 해서 재회에 대한 전문성을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 재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겪은 재회 경험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입양인으로서 저의 재회 경험을 온전히 개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소화하고자 하는 제 마음을 존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개 포럼에서 제 경험에 대한 공유를 요청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에서 제가 발언하는 내용은 한국의 해외 입양 제도의 고질적 문제인 '잠재적 권력 관계'에 대해 제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생가족과 재회한 입양인들은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 규범을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양인들이 전형적인 백인 가정에 입양되어 유아기때부터 백인 문화에 동화됨을 고려할 때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갖기란 불가능함에도 말입니다(버그퀴스트, 봉크, 킴, & 페이트, 2007; 김, 2010). 저는 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에 관련된 이런 잠재적 문제는 전세계에 퍼진 백인우월주의와 같은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 권력관계를 반영하고 재생산한다고 생각합니다(크렌쇼, 고탄다, 펠러, & 토마스, 1995).

강제이주(displacement)를 이주(placement)로 왜곡하는 한국의 해외 입양: 저는 거시사회복지학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자로 주요 연구 분야는 지배를 위한 제도로서의 한국의 해외 입양 제도입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입양인 인종 예외주의(adoptee racial exceptionalism)" (한국 입양인 연대, 2007/2014; 콜린스, 1993/2013; 2019; 박 넬슨, 2016)라는 허구적 개념에 대한 반인종주의적 대안으로 한국 취약 가정들과 "입양인 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저는 한국인 해외 입양 제도가 "강제이주"를 "이주"로 왜곡한다고 생각합니다 (조, 2022). 제 입양 경험을 들자면, 저는 한국에서 강제 이주되어 타인종과 분리된 밀워키의 백인 교외

마을에 있는 백인 입양 가정에 보내졌습니다. 제가 저의 백인 입양 가정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백인 문화를 규범” 삼아 거기에 동화된다는 조건이 전제로 있었습니다”(델가도 & 스테판시크, 2017). 1985년 4월 27일에 제가 오헤어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상황을 녹화한 홈 비디오에는 제가 백인 입양 가족을 “고대하며”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거짓 주장을 통해 저의 한국 친생가족이 경시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해외 입양 제도는 저를 미국의 백인 입양 가정에 이주시키고 동화되게 만들었으므로 저에게 한국을 완전히 “낯선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의 입양인 연구는 재결합의 갈등과 가능성을 조명함.

작년에 저는 재회한 입양인과 한국 친생가족 사이에서의 갈등과 가능성에 대해 잠재적인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2022-2023 학년도 풀브라이트의 미국 학생용 개방형 연구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받아 저는 성인 한국 입양인의 일상 생활을 주제로 28회의 대면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영어 인터뷰에는 인터뷰 당시 한국을 방문했거나 한국에 살고 있던 20명의 한국인 입양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 연령은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참가자에는 기관을 통해 유럽 및 미국으로 보내진 입양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참가자들에게 한국에서의 “전형적인” 하루를 설명해달라고 부탁하며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한국에서 겪은 경험과 관계에 대해 대략적으로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마지막에는 한국에서의 “기억에 남는” 경험을 나누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다양한 개방형 질문에 대해, 다수의 참가자들이 한국인 친생가족, 한국인 시댁/처가, 한국인 연인 그리고 한국인 또래, 친구, 직장동료, 이웃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한국인-외국인 이분법(KFB)의 가시화. 인터뷰를 통해 특별히 저는 성인 한국인 입양인들의 일상 생활이 “당신은 한국인입니까? 아닙니까?”와 같은 때로는 명시적이고 때로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분법적 질문을 통해 구조화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회 현실을 한국인-외국인 이분법(KFB)이라 규정합니다. KFB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한국인 아니면 외국인으로 분류하는 배타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KFB에 의해 구조화된 사회적 현실 속에서는 “한국인”은 규범이 되는 반면 (모든 사람은 ‘한국인’ 또는 ‘한국인 아님’으로 구분) “외국인”에는 광범위한 무수히 많은 “다른” 인종, 민족, 문화, 국가의 분류(예: 프랑스인, 백인, 미국인, 국외 거주자)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입양인 참가자들이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된 카테고리 밖에 존재함으로써 “제 3자(non-binary)”로 부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한국인이며 외국인(예: “저는 한국인이기도 하고 외국인이기도 해요”)으로 설명하거나, 또/혹은 한국인도 아니며 외국인도 아닌 사람(예: “우리는 한국에는 잘 맞지 않아요. 미국에도, 유럽에도, 그 어느 곳에도요”)으로 묘사합니다. KFB란 틀을 통해 보자, 소위 말하는 입양인 정체성과 적응 문제는 “제 3자”에 대한 구조적 배제에 대한 반응으로 보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입양인 배제는 한국어와 문화적 장벽을 통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외국인 이분법(KFB)이 재회하는 입양인과 친생가족에게 어떻게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가? 한국에서의 일상 생활에 대한 설명을 통해, 연구 참가자들은 재회하는 입양인들이 한국 가족과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방해 요소들을 조명했습니다. 한 입양인은 그녀가 "한국적"으로 행동하기를 바라는 이뤄질 수 없는 기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입양인은 시어머니가 한국 드라마에서 묘사된 "전형적인" 한국인 며느리상에 그녀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을 "한국인"에서 다시 "외국인"으로 재분류했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입양인들은 두 개의 가족과 체제를 위해 두 명의 인물이 되어야만 하는 개인적인 희생을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친생가족과 재회한 한 참여자는 "두 개의 정체성"을 강요받는 불편한 현실을 강조하며, 한국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한국인으로, 미국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미국인이 되어야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이러한 장애물들이 KFB의 배타성을 반영하며 이는 입양인들이 한국 친생가족 및 대한민국 사회에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완전한 한국인"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외국인 이분법(KFB)이 요구하는 동화를 거부하는 것이 어떻게 입양인과 친생가족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 연구 참여자들은 또한 KFB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입양인의 "제 3자(non-binary)" 정체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수용과 포용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참여자들은 입양인의 자기 수용이 자기 거부의 대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본인이 정한 가명)는 자신의 전문 지식과 입양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양인들과 만나 그들을 격려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구사하더라도, 해외에서 자랐다면--한국에서 10년, 15년, 20년을 살아도--결코 완전한 한국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꼭 한국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자기 거부에 대한 대안으로, 마리아는 입양인의 자기 수용도 "동등하게 괜찮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마리아는 "저는 완전한 한국인이 될 수 없어요. 항상 그들의 눈에 저는 입양인으로 비춰질 겁니다"라며 자신을 거부하는 대신 불가능한 KFB의 조건을 거부했습니다. 마리아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모습에 만족해야 해요. 저는 저니까요"라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마리아의 KFB 거부를 배제적 메커니즘으로 인식할 때, "자기 자신을 찾아라"라는 흔한 조언이 입양인의 자기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비동화주의적 개입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국인-외국인 이분법(KFB)의 거부가 더 나아가 한국 가족 거부에 대한 대안이 됨. 한국에서 각각 결혼하여 육아를 하고 있는 입양인 경아와 캐스퍼(본인이 정한 가명)는 "한국식"에 어긋나는 행동에 화를 낼 지도 모르는 한국 어머니들과 한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경아는 어머니 말씀을 경청은 하되 동화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따르지 않는다는 자신의 전략의 근간에는 "스스로의 마음을 보호"하겠다는 본인의 다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머니가 말씀에 부담을 느꼈던 것 같긴 해요. "이걸 해야 하나?"를 스스로 되묻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단 알았다고 하고 나중에는 그냥 안 해요. [웃음] 그냥 듣고 있을 뿐이에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할 거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경아가 KFB 에 대해 정한 기준선이 그녀 자신과, 한국인 시어머니를 포함한 그녀의 가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를 거부하는 대신, 경아는 한국어로만 말하라는 동화주의적 요구에 대한 자신의 수용 기준을 세움으로써 KFB 의 조건을 거부하는 대안을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경아는 시어머니가 아기에게는 한국말만 쓰라고 부탁하는 등 육아 관련 조언을 하는 것이 "관심과 사랑에서 나온 것이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경아는 KFB 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그녀의 어머니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외국인 이분법(KFB)의 거부는 다름을 이유로 한 입양인 거부의 대안이 됨. 반대로, 캐스퍼는 한국 가족이 KFB 를 거부함으로써 입양인이 가지는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캐스퍼는 배우자와 가사일을 "한국식"으로 분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인 어머니와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몇 년이나 어머니와 소원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소원했던 동안 어머니는 캐스퍼의 가정에 대해 "그들 나름의 방식"을 따를 수 있는 "자율성"을 주기 위해 노력하며 변화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바라거나 생각했던 대로 한국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어머니는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한국인과는) 그냥 다름 뿐이라는 점, 그리고 제가 한국인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런 한국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그 점을 깨달으신 것 같고, 그 부분을 인정해주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전에는 캐스퍼와 어머니 둘 다 어떻게든 캐스퍼가 그들이 바라고 생각했던 한국인이 될 것 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캐스퍼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저는 제가 (완벽한) 한국인, 또는 거의 완벽한 한국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며 몇 년 안에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단번에 적응하여 동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캐스퍼는 "이런 긴 여정"을 겪게 될 줄 몰랐고, 그 여정 끝에 "아, 나는 확실히 다르구나" 라고 깨닫게 되리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입양인의 다름 인정을 통해 친생가족과의 연결이 가능해짐. 궁극적으로 한국인-외국인 이분법(KFB)은 입양인들에게 한국 가족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한국인이 되어야 한다"는 불가능한 동화적(assimilationist) 요구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입양인들은 스스로 이 불가능한 기대를 내면화하는 것 같습니다. 캐스퍼의 사례에서 그와 그의 어머니는 "전형적인 한국인"과 다른 "입양인의 다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캐스퍼와 그의 어머니는 함께 한국인-

외국인 이분법(KFB)에 저항함으로써 입양인과 친생가족 사이의 연결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재회를 통한 비동화적(non-assimilationist) 길을 조명합니다. 따라서 입양인의 다름을 확인하는 비동화적 행동 개입에 대한 탐구는 친생가족찾기 및 재회와 관련된 향후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한국입양인연대(2014). 국제 입양 종료를 위한 탄원서. *ASK 기념: 입양인연대 10주년 기념* (pp. 37-39). 서울, 대한민국. ("ASK writes"에서 재출판, 2007, 국회의장에게 제출됨.)
- 버그퀴스트, K., 봉크, E., 김, D., & 페이트, M. (Eds.). (2007). *한국인 국제 입양: 50년 역사의 정책과 관행*. 뉴욕, 뉴욕 주: 로우틀레지
- 조, S. L. (2022년 1월). 저항 지식으로서의 반입양주의: 인종 간 및 국제 입양에서 비인종차별 왜곡에 대한 자기 민족학적 사례 연구. [포스터 발표]. Society for Social Work and Research 연례 회의. www.sswrvirtual.com.
- 콜린스, P. H. (2013). 새로운 비전을 향해: 인종, 계급, 성별. M. 아담스, W. 블루멘펠드, C. 카스타네다, H. 핵만, M. 피터스, & X. 주니가 (Eds.), *다양성과 사회 정의를 위한 독서* (제 3 판, pp. 606-611). 뉴욕, 뉴욕 주: 로우틀레지. (*Race, Gender & Class* 에서 재인쇄, 1(1), pp. 36-45, 1993년 원본 출판).
- 콜린스, P. H. (2019). 비판적 사회 이론으로서의 교차성. 더럼, 노스캐롤라이나: 듀크 대학 출판부.
- 크렌쇼, K., 고탄다, N., 펠러, G., 그리고 토마스, K. (1995년판). *임계 인종 이론: 운동을 형성한 주요 글들*. 뉴욕, 뉴욕 주: 뉴욕 출판부.
- 델가도, R. & 스테판틱, J. (2017). *비판적 인종 이론: 도입부*(제 3 판). 뉴욕, 뉴욕 주: 뉴욕 대학 출판부.
- 김, E. (2010). *채택된 영토: 초국가적인 한국 입양인들과 소속 정치*. 더럼, 노스캐롤라이나: 듀크 대학 출판부.
- 박 넬슨, K. (2016). 보이지 않는 아시아인들: 한국계 미국인 입양아, 아시아계 미국인 경험, 그리고 인종적 예외주의. 뉴저지 뉴브런즈윅: 럿거스 대학 출판부.

<참고문헌 영어원문>

- Adoptee Solidarity Korea (2014). A petition to end intercountry adoption. In *Celebrating ASK: 10 Years of Adoptee Solidarity* (pp. 37-39). Seoul, ROK. (Reprinted from “ASK writes”, 2007,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president.)
- Bergquist, K., Vonk, E., Kim, D., & Feit, M. (Eds.). (2007).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A fifty-year history of policy and practice*. New York, NY: Routledge.
- Cho, S. L. (2022, January). Anti-adopterism as resistant knowledge: An autoethnographic case study of colorblind distortions in transracial and international adoption. [Poster presentation]. *Society for Social Work and Research Annual Conference*. www.sswrvirtual.com.
- Collins, P. H. (2013). Toward a new vision: Race, class, gender. In M. Adams, W. Blumenfeld, C. Castaneda, H. Hackman, M. Peters, & X. Zuniga (Eds.), *Readings for diversity and social justice* (3rd ed., pp. 606-611). New York, NY: Routledge. (Reprinted from *Race, Gender & Class*, 1(1), pp. 36-45, Original work published 1993).
- Collins, P. H. (2019). *Intersectionality as critical social theory*.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Crenshaw, K., Gotanda, N., Peller, G., & Thomas, K. (Eds.). (1995). *Critical race theory: The key writings that formed the movement*. New York, NY: New York Press.
- Delgado, R., & Stefancic, J. (2017). *Critical race theory: An introduction* (3rd ed.). New York,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Kim, E. (2010). *Adopted territory: Transnational Korean adoptees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Park Nelson, K. (2016). *Invisible Asians: Korean American adoptees, Asian American experiences, and racial exceptionalism*.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Table of contents

Keynote Speeches	1
Bastic Research on the Reunion of Intercountry Adoptees and Their Birth Familes (summary) ...	57
Hosu Kim (Professor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at City University of New York, Staten Island Campus)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ing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Petition & Birth Family Search Service	89
Joo-yeon Lee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ocial Services Policy Research Dept., Centers for Child and Family Policy Research)	
Panel Discussion	
Resonance and Mourning of Separation, Adoption, and Reunion	99
Phil-sik Shin (Center for Human Rights, Chung-Ang University)	
The issues on reunion assistant system - From first mother's perspective	105
Hyun-suk Jeon (TheRUTHtable)	
Discussion on Structural Obstacles to Reunion	109

Basic research on the reunion of intercountry adoptees and their birth families (summary)

Kim Hosu

(City University of New York, Professor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Staten Island Campus)

This study recognition of an issue was started from raised by drawn from KoRoot and Professor Kim Hosu who had spent his career working on birth mothers in the context of intercountry adoption history based on their respective activities and research: *How to should we remember and solace* remember and comfort the life experiences, wounds and pains of the 200,000 intercountry adoptees *who were sent away from Korea to grow up in foreign lands the their as part of the past 70 years'* intercountry adoption project By analyzing their collective aspirations and experience in for family reunion, we aim to take this topic seriously and lead the intercountry adoption practice and discourse as a responsible realm for the nation and public, which had long been in not as an individual's narratives of unfortune, success, or growth.

This study aims to (1) grasp the current landscape of reunion and the processes involved therein based on the fan processes process of their real efforts taken by intercountry adoptees and their birth families, (2) recall the improvements of the current system and the relevance of reunion identify 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concerned parties, (3) and thereby shed light and make sugges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policy addresses needed in the entire process of the reunion as well as on the role of private organizations.

In a survey of intercountry adoptees in Korea (2013), out of a total of 1028 intercountry adoptees, 82% said they wanted to find their birth family and 72.1% said they had tried. In various previous studies, the reunion of intercountry adoptees with their birth families was understood as a universal will and right to know their birth, but there are relatively few systematic research on the birth families' commitment to reunion. According to a book 『Korea's Intercountry Adoption and Birth Mother』 (Original title: Transnational Adoption Practice and Birthmothers in South Korea, 2016) authored by Kim Hosu, from 2000 to 2005, about 100 birth mothers passed through the 'Daum' community named "Sad love stories of mothers who sent their children for adoption," where almost all birth mothers were yearning for post-adoption reunion. According to the oral history of birth mothers, which was discussed

in the same research paper, there were even about half of the 22 oral history cases in which birth mothers actively strived for reunion. Furthermore, since 2014, more than 100 birth families have requested KoRoot to register their gene test in a the hope of reunion. It is fair to say that the reason why there has been few systematic research on the birth families' commitment for reunion is not because birth families lack of are not willing to reunite, but because our society are not interested in them or they have been stigmatized for their immoral behavior.

As around 4,000 adoptees have visited Korea every year for various purposes including finding their birth families since the 2000sand this, a post-adoption support service system and dedicated agency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meantime, family search and reunion have been carried out mainly through adoption agencies that have been keeping adoption documents. However,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formerly the Korean Adoption Services)¹ was founded as a public institution that provides post-adoption services including family search. However, despite the public support system put in place, adoptees and their birth parents who aspire to reunite are still left on their own to struggle in finding families. For instance, intercountry adoptees pay a lot of money to come to Korea, they have to find their way to the adoption agency and search for information on their families, run back and forth between the police stations and orphanages to track down their birth family's whereabouts while facing a language barrier, and sometimes wait indefinitely for their birth families to reach out. KoRoot, a corporate body that operates a guest house for intercountry adoptees, witnessed such hardship experienced by the intercountry adoptees as it assisted the reunion process every year and put forth a plan to conduct this study to improve the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the reunion process and identify problems therein by focusing on the biggest stumbling block in the reunion journey for both the intercountry adoptees and their birth families: i.e., the right to access adoption information; inaccuracy or intentional manipulation of adoption documents; communication barrier with the supporting organizations. In particular, by closely examining the experience of intercountry adoptees and their birth families in contacting and communicating with the primary supportive organizations (i.e., adoption agencies and NCRC), civic groups, and government agencies, we aim to put in place the support system and institutional policies that are in need and provide basic research data to urge for improvements.

¹ The Korea Adoption Services (KAS)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as established on August 5, 2012 pursuant to Article 26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It carried out tasks such as △ establishment and spread of a sound adoption culture, △operation of an integrated database on adoptive children, their family and birth family search, △building and integrating a database on adopted children, △research on Korea and overseas adoption policies and services,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ed to adoption, and △other projects consig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With the amendment to the Child Welfare Act in 2019, KAS was integrated into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NCRC) on July 16, 2019.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NCRC in order to centralize various projects such as child abuse, adoption, family foster care, and missing persons that had been dispersed in seven institutions and to deal with them in more systematic and integrated manner. As a result, KAS which had been in charge of adoption policies, was integrated to NCRC, and NCRC succeeded KAS's work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 policy.

Recruitment of adoptee respondents for this study took place for one month from February 11 to March 10, 2020 via an event organized by KoRoot, and through email and Facebook accounts of adoptees accumulated from the operation of the guest house, and the adoptee contacts of other adoptee support groups such as 325 KAMRA and Me & Korea. A total of 171 intercountry adoptees living across 12 countries were recruit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The basic questionnaire for the intercountry adoptee reunion study, written in English, consisted of a total 62 questions, of which six questions were on basic personal information of the respondents and the remaining questions divided into seven categories by topic. Additionall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en birth families, consisting of six birth mothers, one birth father, one brother, and one aunt and one uncle who were directly involved in adoption.

1. Survey of adoptees

1) Background of respondents

The gender identity of the respondents consisted of 80% female, 18% male and one nonbinary with two non-responses. In terms of the assigned gender, women were 80% of the total participants accounting for a larger portion than men. 1990s marks a turning point in the gender ratio in the intercountry adoption. Prior to 1990s, female intercountry adoptees outnumbered their male counterparts but ratio was reversed from 1990s. A majority of respondents of this survey were born in the 1970s and 1980s, an age group where female adoptees outnumbered men. Nevertheless, the 80% ratio of female participants found in this study appears to represent oversampled women considering the gender ratio of the population. Previous studies reported that women are more active in searching for their families than men (Schechter and Bertocci, 1990; as cited in Jiseong Kwon et al., 2009), and this tendency is corroborated in other surveys. But even when taking these facts into consideration, it needs to be noted that the 80% ratio of female participants in this survey is higher than the ratio shown in other surveys.

The adoptee respondents were born between 1954 and 2003 and those who were born in 1969 took the lion's share. Those born in the 1970s and 1980s accounted for 73.1%. The age of the respondents ranged from 18 to 67 and those in their 40s accounted for the largest group(42.1%). Those in their 40s and older accounted for 68.4% of the respondents. This seems to reflect that the age bracket of the main visitors to the guest house of KoRoot are those in their 30s and 40s and that the survey was conducted 15 years after the guest house was first founded. Also, it is likely that the fact Me & Korea, an adoptee support group that participated in the recruitment, provides services mainly for mixed-race adoptees in their 50s and 60s, has affected the age bracket of the participants.

The adoption year of the respondents ranged from 1956 to 2004. There were more adoptees adopted between 1971 and 1986 than any other time bracket, and the year when the largest cases of adoption were made was 1976 (15 persons, 8.8%). The age at the time of adoption was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year of birth from the year of adoption. The age ranged from 0 to 13 with the largest share of adoptees adopted at age one.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62.6%) were adopted between the ages of 0 and 1.

Respondents were adopted to the United States the most (107 persons, 62.6%), followed by European countries such as Denmark, Sweden and Belgium. This shows a similar distribution overall compared to the adoption country distribution of the population (cumulative adoption country ratio from 1958 to 2018). Holt International (21.1%) of the United States, Terre des hommes (10.5%) of Switzerland took the lion's share of the respondents' adoption agencies, followed by many various other adoption agencies.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were adopted through Holt Children's Services (86 persons, 50.3%), followed by Korea Welfare Services (31 persons, 18.1%), Eastern Social Welfare Society (25 persons, 14.6%), Korea Social Service (21 persons, 12.3%) and others (8 persons, 4.7%).

Some 90.6% of the respondents have visited Korea. 70.8% of the respondents have visited Korea more than twice with 42.1% having visited Korea two to four times and 28.7% more than 5 times. Of the total respondents, 46.8% visited Korea only through a personal tour and 10.9% only through a guided group tour. Sixty-six persons (42.3%) experienced both. When counting multiple responses, 89.1% of the respondents visited Korea through personal tours and 53.2% through group tours. Respondents using group tours participated in various institutions' home country visit programs. Many were programs operated by Korean adoption agencies or private organizations to support adoptees. The Mosaic Tour, run by Me & *Korea*, had the largest number of respondents (25.8%), followed by the First Trip Home of Global Overseas Adoptees' Link(G.O.A.'L) (11.2%). Although Me & *Korea* is a new organization that has been established seven years ago, many respondents participated in its tour program. This seems to be due to the fact that Me & *Korea*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recruiting the survey participants. Other responses included programs run by embassies of adoption countries, media (Munwha Broadcasting Corporation), Korean language training programs, U.S. Army deployment exercise, travel agencies and friends.

Approximately 95.9% (163 persons)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have at least once in their lives wanted to find someone who was genetically or biologically related to them in Korea, and 86.8% (145 persons)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had contacted their adoption agency in Korea in the process. About 59.4% (101 persons)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had registered their DNA test results to find their families. In terms of the DNA test results registration percentage, it seemed that the higher the age, the higher the registration rate. In particular, the respondents in their 30s

showed a low DNA test registration rate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Respondents of this survey are generally identified as a group with a strong aspiration toward reunion. Considering the number of times respondents visited Korea and whether they contacted adoption agencies, the respondents of this survey are generally intercountry adoptees are viewed as those who are active in finding their families. Multiple responses were allowed in answering the DNA test sites, which resulted in a total of 185 test sites responded. This indicates that many of the respondents registered their DNA test results in multiple agencies. Among the responses for test sites, police stations in Korea were cited the most (36.4%, 36 persons), followed by genetic testing institutions of *23 and Me* (35.4%, 35 persons), *FamilyTreeDNA* (30.3%), *Ancestry* (26.3%) and 325 KAMRA (15.2%).

Some 37.4% (64 persons) of respondents said they had met their Korean family. This is much higher rate than the existing reunion success rate of 2-4%, and it can be said that the intercountry adoptees who have experienced reunion were densely sampled in this survey. Besides, this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number of respondents' visits to Korea and its frequency.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succeeded in meeting their birth family varied by age group. While the rate was over 50% for the adoptees in their 20s and 30s, the rate was less than half for those in their 40s and older. In addition, the higher the age group, the higher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had not met their birth family.

About 76.3% (129 persons)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had received adoption records from their adoptive parents, and the largest number of them at 35% (50 persons) were in their teens when they first saw the adoption records. Around 70% appear to have accessed the records before the age of 29. One of the notable findings from this sampled group was that the largest percentage of the adoptees in their 60s and older, at 37.5%, first accessed their adoption records when they were over 50. Presumably, this is explained by the fact that many of the intercountry adoptees in their 60s and older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visited Korea and accessed their adoption records for the first time through the Me & Korea's Hapa tour after 2014. The top responses to the open-ended question about the materials that they'd received from their adoptive parents include: "All documents possessed by the adoptive parents", and less concrete description of "The documents provided the adoption agency", or vaguely "adoption documents". The list of names of specific documents cited include: naturalization certificates, birth certificates, health(inoculation)records, record of child's life from the adoption agencies or childcare facilities (former orphanages), visa applications, passports, photos, letters between adoption agencies and adoptive parents, parental rights waiver. In some cases, contact information or copies of family registers were included, which are useful for family search. Yet, most adoptive families responded that the adoption records they saw provided insufficient information in finding their birth family members. Some adoptive parents did not allow the adoptees to see the documents and in some

cases, adoptees were allowed to see them only after they reached a certain age. In some cases, adoptees have seen or heard false information about adoption.

2) Information request to adoption agencies

Article 36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enacted in 2012 stipulates the intercountry adoptees' right to know about the adoption records specifying, "a person who has been adopted may request for a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to NCRC or his/her adoption agency." Additionally, the 'Hague Convention on Child Adoption', which establishes minimum standards for international adoption, also imposes an obligation on the Contracting States to preserve information on the birth of a child (especially information on medical history and the identity of its parents) and to ensure that the child or its agent has access to it (Article 30). There are two organizations at present where the adoptees can claim for their adoption records: 1) the Korean adoption agencies where the adoption was processed, and 2) NCRC (former KAS). Then, what experiences do the adoptees of this study have in claiming adoption records?

The number of respondents who contacted adoption agencies and claimed adoption records was 152, or 88.9% of the total respondents, and 105, or 61% of the total respondents gained access to their adoption information at NCRC. Of the 152 people who contacted the adoption agency, 118 persons (77.6%) contacted via e-mail and 106 persons (69.7%) visited the adoption agency. Considering that 271 responses were selected by the 152 respondents to this question, it can be inferred that the respondents used multiple channels such as visits, e-mails and phone calls.

It was found that about half of the adoptees who requested adoption information did not receive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51.9% (80 people)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were provided with sufficient information from the adoption agencies whereas 48.1% (74 persons) answered that they did not. Only 24.5% (24 persons) responded that they had been provided with appropriate services from NCRC to view adoption documents, while 75.5% (74 persons) responded that they had not been provided with appropriate service.

When asked about whether they were provided with additional adoption information when they made a request to the adoption agency, 33% (58 persons) answered that they received information while 56.1% (96 persons) said they did not. A mere 13.5% (23 persons) received additional information from NCRC, while 76.5% (75 persons) did not. This seems to be because NCRC is far less effective than the adoption agencies in providing information as it must go through the

adoption agencies to check and retrieve the information before it can provide the adoptees with information when it receives requests. The additional documents received upon requests included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adoption background than the existing information the adoptees had (i.e., adoption background, orphan family register, child handover report, record from children's home(orphanage), place where they were found, records of foster families, clothing at the time of discovery, records of the police station where they were found). Among those records were birth dates of birth mothers/fathers, letters from birth mothers, letters from family, family photos, and photos not given to adoptive families. There were also some cases where the additionally provided information revealed that the birth family's phone number had been changed; that the birth family has been searching for the adopted child; or that the adoptees' biological brother or sister had also been adopted. In many cases children's homes, police stations, or community centers provided help in the process of gaining access to adoption records.

About 50.3% (86 persons) answered that they were able to access the adoption documents when they visited the adoption agency, while 39.8% (68 persons) said they were unable to access them. Around 51.6% (80 persons) responded that they had received copies of adoption documents from adoption agencies, while 43.9% (75 persons) responded that they could not or did not get copies. As to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copies of adoption documents they had received, many responded that they received documents that were the same or less substantive than the ones owned by their adoptive parents.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some cases when new information or documents such as family registers or adoption background were found. Many also questioned whether the adoption agencies provided all the information they had.

The most frequent response as to the number of visits to the Korean adoption agencies to acquire adoption information was once (73.1%, 98 persons). Respondents who visited more than twice accounted for 26.8% (36 persons), and there were also a few respondents who had made the visit five times or more (2.9%, 4 persons).

When asked to choose who accompanied them when visiting the Korean adoption agency (multiple responses allowed), the most frequent response was 'with their family (adoptive family, spouse or partner, etc.)' at 30.3%, or 36 persons. A similar number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had visited with adoptee friends (22.7%, 27 persons) and volunteers of civil/social organizations (22.7%, 27 persons), where Global Overseas Adoptees' Link(G.O.A.'L) and Me & Korea were specifically cited several times. Around 23.5% (28 persons) answered that they had visited alone. As for the 'other' category, 'visit during a group tour', 'with the media', and 'with staff at the adoption agencies in the country of adoption' were mentioned.

As for the factors that helped in obtaining information from adoption agencies (multiple responses), the most answered that 'frequent contact (e-mail, phone) was helpful' at 60.5% (69 respondents). Around 20.2% (23 persons) selected 'frequent visits', and 27.2% (31 persons) responded that accompanying a Korean interpreter was helpful.

In response to the open-ended question asking which information is needed in finding family members, the most cited answer was 'the names, birthdates, and/or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him/herself and the birth parents'. Many raised the need for 'specific information' and 'accurate information' and some commented that improved access to adoption documents and a set process for finding family members were needed.

Fifteen persons (9.68 %) said they had paid fees to adoption agencies in exchange for receiving the adoption documents. Thirteen persons (7.6 %) said they had ever been asked to make donations in exchange for the adoption documents.

About 38.3% (59 persons) of the respondents experienced that the employees of the Korean adoption agencies were reluctant or hesitant in giving them access to the adoption documents. Regarding the attitudes of adoption agency's staff, a large variation was reported in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staff. The timing of contact was also identified as a factor influencing the variance in the services. Overall, many respondents described the staff's attitude as being passive or defensive toward information provision, and some reported that the staff expressed their personal negative feelings toward family search. There were cases reported where the staff told the respondents not to find their birth families, did not provide information, or provided false information. There were also many cases where the respondents were denied access to the information for the reason that they had not made a prior appointment.

The average level of adoptee's satisfaction with Korean adoption agencies on providing adoption information was 2.86 out of 5. The level of respondents' satisfaction with the adoption agencies in requesting and receiving information was higher when the respondents were reunited with their families (average 3.10) than when they were not reunited (average 2.62).

Intercountry adoptees have the right to claim adoption information. In particular,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secure the '*original*' version of the records owned by the Korean adoption agencies when searching for adoptees' families because the document that adoptees receive from their adoptive parents are often the translated versions, with critical information such as accurate names of people and regions sometimes missing. The adoption agencies and NCRC are responsible for responding to adoptees' requests for information. Although the adoption agencies play an extremely important role in the Petition for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which guarantees

adoptees' right to know, there is no legal basis for claiming a complete enumeration survey, preservation, and access/view of all records kept by the adoption agencies. Plus, as the petition process is initiated by the requests of the individual adoptees,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adoptees' right to know is being fully fulfilled.

3) Family search

Not all the adoptees who make a request for their adoption information start to search for their family immediately. Some adoptees simply view their adoption records without trying to find their birth family and only later, possibly a few years later, start to search for their family on another occasion. In this chapter, adoptees' experiences of family search were analyzed based on the level of cooperation the adoptees had with the supporting agencies.

a. Assessment of assistance of Korean adoption agencies

Those who responded that they were provided with sufficient guidance on the process of family search from Korean adoption agencies accounted for 32.4 percent (48 respondents) while those who said they were not provided with sufficient information marked 67.6 percent (100 respondents). While 31.3 percent (46 respondents) said that adoption agencies offered proper services that helped them access their adoption documents, 68.7 percent (101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had not.

Among those who said they had received follow-up information from the adoption agencies represented 27.4 percent (40 respondents) of the respondents while those who answered they had not accounted for 72.6 percent (106 respondents). For those who had received follow-up information, the frequency varied from 'once every month' (18 respondents, 36.7%) to 'once every three months' (12 respondents, 24.5%) to 'once every six months/every year' (38.8%).

The variance found in the frequency of providing follow-up information as well as the high number of cases in which follow-up information was not provided, calls for the need to examine whether the agencies, as service providers, have consistent guidelines on the frequency of providing follow-up information. According to 『2020 Adoption Practice Manual』(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gencies that retain adoption records should disclose adoption information within 15 days of receiving a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If there is an inevitable reason, the period may be extended up to 30 days.

The average satisfaction score on the general attitude and performance of the Korean adoption agencies' staff with whom the respondents had interactions stood at 2.84 points on a scale of one to five. Those who responded they were unsatisfied (one or two point(s), 41.8%) outnumbered those who said they were satisfied overall (four or five points, 31.5%).

The vast majority of respondents (97.7%, 137 respondents), except three, had communicated in English. Even if we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such high rate is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the survey was conducted in English, the finding confirms that the communications with Korean adoption agencies are generally conducted in English, given that 35 percent of respondents were adoptees from non-English speaking countries including France. The satisfaction score o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ervices provided by Korean adoption agencies the respondents had communicated with was, on average, 3.26 points out of five.

When asked if they had experienced discrimination and rudeness from employees of adoption agencies, 25 respondents (17.4%) said they had. Also, lack of sympathy, repeated suggestions to give up searching for families based on the employee's arbitrary judgement, attempts to conceal information and telling a lie were mentioned.

The satisfaction score on adoption agencies' response to and assistance on family search was measured 2.77 points on average on a scale of one to five. There were more unsatisfactory responses (one or two point(s), 42.8%) than satisfactory ones (four or five points, 28.3%). Respondents'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ir adoption agencies varied depending on whether they were able to reunite with their birth families. The group of respondents who had reunited with their birth families (3.13 points on average) was more satisfied than the group of respondents who had not reunited (2.56 points on average).

b. Experiences with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NCRC)

Questions in this section were asked only to the respondents who had an interaction with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hereinafter referred to as NCRC) during their search for their families. Sixty-one percent of the total respondents, or 105 respondents, answered the questions.

Among those who had contacted NCRC, 35.2% (37 respondents) said they had been provided with proper explanation and information on the process of family search while 61.4% (68 respondents) said they had not. Only 24.5% (25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had received proper services from the center that gave them access to the adoption documents while 75.5% (74 respondents) said they had not. The percentages of those who were able to

receive additional information through the center and those who were not stood at 13.5% (23 respondents) and 76.5% (75 respondents), respectively.

Except one respondent, nearly every respondent (98.7%) had communicated with the center in English. The average satisfaction score on translation services provided by the center was 3.08 points on a scale of one to five. When asked if they had experienced any communication issue with employees of the center, 6% (5 respondents) said they had. More specific descriptions of the issue include 'no response from the employees' or bureaucratic attitude of the employees. For instance, one respondent said that (s)he had contacted the center but received no reply from the center.

The overall satisfaction score on the center's family search service was 2.77 points out of a full score of five. There were more unsatisfactory responses (one or two point(s)) than satisfactory ones (four or five points).

c. Experiences with other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le searching for their birth families, adoptees had also visited police stations (51.7%, 62 respondents) and childcare facilities (orphanages) (36.7%, 44 respondents) on top of visiting Korean adoption agencies and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When asked whic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y had contacted, the largest number of respondents (50.8%, 61 respondents) answered Global Overseas Adoptees' Link(G.O.A.'L). There were many adoptees (41.7%, 50 respondents) who had contacted individuals like their adopted friends and Korean friends. It is found that adoptees who have come to Korea seeking reunion have visited sever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hose who had contacted the Korean government such a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local governments to search for their families accounted only for 11.3% (17 respondents), which is quite low. Only 35 respondents answered the question asking whether they had received enough support from the Korean government in their family search, to which many (68.6%) said they had not.

4) Experiences of reunion with birth families

Sixty-four respondents (38%) out of 171 adoptee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responded they had reunited with their birth families. The year they had reunited with their birth families is spread evenly between 1992 to 2020 and 93% of the respondents reunited after 2000. The largest number of respondents reunited in 2019 (8 respondents). Their age at the time of reunion ranged between 14 and 62, with an average of 31.5. Those who said they reunited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represented 47.6% and 37.7% of the total respondents respectively. It appears that most respondents reunited when they were in their twenties or thirties.

The respondents' success in reuniting with their birth families was affected by the number of their visits to Korea. Those who visited Korea twice or more had higher success rate in reuniting with their families. In general, the group of respondents who had more frequently visited the country had a higher chance of reunion. However, the result cannot be construed as the grounds for an assumption that reunion can be achieved only after adoptees visit Korea several times. Instead, we nee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that respondents who reunited with their families may have visited Korea several times after their reunion.

Also, there was a correlation found between reunion and communication with the adoption agencies. The group of respondents who had no contact with the adoption agency had a very low chance of finding their families. This demonstrates that family search through adoption agencies is highly effective.

When asked to write all members of birth families they reunited with, the lion's share of 44 respondents (69%), said they had reunited with their mothers, and 20 respondents (31.7%) said they had reunited with their fathers. Twenty-nine respondents (60%) reunited only with their birth mothers while 8 respondents, or 15.7% of the total respondents, reunited only with their birth fathers, and 14 respondents, representing 27.5% of total respondents, reunited with both parents. Meanwhile, 17.5% of the respondents reunited with their siblings (including half-siblings) and 24% reunited with other relatives (including grandparents, uncles, aunts and etc.,) showing that many of the respondents met multiple family members either simultaneously or consecutively. There was a case where a respondent reunited with his/her father living in the States, and a respondent who reunited with a sibling who had been adopted into different adoptive families. While many respondents reunited with their parents first, and then met other relatives, some respondents reunited with their siblings or other relatives first before reuniting with their parents.

Fifteen respondents, which accounts for 23% of 64 respondents who had experienced reunion, answered that they had been able to reunite through a DNA test. In particular, those over 50 took up a higher proportion of respondents who had successfully reunited through a genetic test. When asked whether they had reunited through a genetic test, answers varied by age. Among the respondents in their 30s and 40s, only a small portion answered that they had reunited through a genetic test. But among the respondents in their 50s, a higher percentage responded that they had reunited with the help of a genetic test. Among the respondents in

their 50s, there were a high percentage of 'mixed-bloods' and one of them had found his/her American father.

In this survey, adoption agencies were cited as the most influential agent for reunion with Korean birth families (29 respondents, 42.6%), followed by individuals (8 respondents, 11.8%)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7 respondents, 10.3%).

The time taken to find birth families varied from one week to 62 years. Thirty-one adoptees (49.1%) reunited with their birth families within one year of seeking to reunite and 15 adoptees (23.7%) reunited after one to five years of their attempts. Also, as many as 16 adoptees (27.3 %) succeeded in reunion after more than five years. Reunions that took more than five years calls for a closer investigation into the process of the reunion. It needs to be checked whether the duration of five plus years is a time taken to arrange the actual reunion after the biological parents had been identified or whether the (ten years of) time was spent in confirming the birth parents, or whether reunion had been delayed due to the procedural issues in the assistance of the adoption agencies. There can be myriads of factors that came into play and these cannot be fully understood with the results of this survey alone.

For the inter-nation adoptees who are preparing for reunion, the biggest obstacle is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ome adoptees recruit translators by themselves, others receive help from adoptees' rights advocacy groups, and still others receive help from the adoption agencies or NCRC in recruiting translators/interpreters.

5) Post-reunion

Out of 70 adoptee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90% (63 respondents) viewed reunion positively. However, most of them had complicated, multi-layered, and inconsistent reunion experiences with their birth families. When they described their experiences in detail, words like overwhelmed, mind-boggling, confused, curious, unrealistic and sad were mentioned. Negative or unresolved feelings were attributed to a language barrier, a cultural barrier, relationship that remained under wraps, feelings of anger and sadness, confirmation of lies told by adoption agencies, etc. These survey results showed that reunion is not a simple experience but an experience of complicated feelings and situations and calls for a future research that investigates the experiences and feeling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reunion in an in-depth qualitative approach. The survey also showed that to bridge different expectations held for one another and overcome cultural differences, a comprehensive support that encompasses the linguistic, psychological and cultural domains is needed.

When asked if they had any negative or unresolved feelings remaining after the reunion with their birth families, 45 respondents (64.3%) out of 70 said they had.

The question on satisfaction level on the reunion experience was designed to facilitate the adoptees to look back on a series of their experiences on the very day of the reunion and to evaluate the competence of organizations and people that assisted their reunion. Therefore, it is a separate question from the question above that asked about the subjective meaning of 'reunion. it is a question asking the respondents how they assess their reunion experience on the day of the reunion. The average satisfaction score on reunion experience was 3.84 points on a scale of one to five. Satisfactory responses with four or five points accounted for 65.2 percent, but as many as seven respondents (10.1%) gave one point, which denotes highly unsatisfied. The satisfaction score o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ervices provided at the time of reunion was 3.76 points out of five. While 66.7 percent gave positive, satisfactory responses with four or five points, 8 respondents (12.7%) reported highly negative experiences. When asked which special services they wanted to receive during the reunion with their families (with multiple responses allowed),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respondents said access to interpretation during reunion (71.4%, 40 respondents) and access to translation of adoption documents (67.9%, 38 respondents). In other words,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re found to be the most needed services.

6) Relationship with birth families after the reunion

A reunion is not an end to questions but is rather another beginning and is ongoing. How are overseas adoptees building post-reunion relationship with their birth families? Some 76.6% (49 respondents) said that they had revisited Korea after their first reunion. About 78.8% (52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were keeping in touch with their birth families in Korea while 21.2% (14 respondents) said they weren't. When asked how frequently they get in touch with their birth parents/families, respondents answered, 'more than three times a week (11.1%)', 'more than three times a month (11.1%)' and 'once or twice a month (19%)', showing that 41.3% of respondents get in touch with their birth families more than once a month. A quarter of adoptees who had experienced reunion responded that they get in touch once or twice a year.

When asked with whom and how they communicated when they were keeping in touch, respondents gave short answers as below. The vast majority of them communicated through social media such as KakaoTalk. Other communication methods included e-mails, personal visits, phone calls, etc. Many of them were keeping in touch with their mothers and/or fathers, but the methods and frequency of communication varied depending on the age of parents, use of social

media, proficiency in English or relationship with the parents. It is also shown that many adoptees communicate with their siblings via online communication channels.

None the less, as much as 90%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were having difficulty establishing relationship despite their continuous efforts such as revisiting Korea and making contacts after the reunion. A language barrier and cultural differences were cited as the biggest obstacles. Also, there were many cases where even after the reun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optees and their birth parents remained under wraps and (even if it was revealed) the birth parents' current spouses felt uncomfortable with the respondents. Some adoptees expressed hardship in building relationship due to this. As can be seen from the adoptee's reunion experiences, it seems essential for the society to pay more attention to birth families and eliminate the stigma against them so that adoptees' reunion experience can develop into genuine reconciliation. In addition, therapeutic and counseling programs for both the adoptees and their birth families that support the post-reunion process need to be provided so that removing a sense of distance between them caused by differences in culture and language as well as recovery of relationship after the reunion no longer remain as challenges for the individual adoptees and birth families.

Respondents also noted in the open-ended questions that the experience of reunion and its multi-layered and complex aspects should be shared with other adoptees who hope to find their families. Moreover, they illustrated that reunion is not a one-off event but a long-term process that includes rebuilding of relationship, healing and recovery after reunion. Therefore, post-reunion services need to be designed to provide long-term support for post-reunion recovery in the long term on top of the temporary assistance provided for the first-time reunion.

7) Impressions and opinions on reunion

Adoptees' short answers about their reunion experiences not just revealed room for procedural improvement in the beginning stage and the following process of reunion, but also demonstrated the significant meaning reunion has to adoptees in their identity and life journey. Individual adoptees' impressions and opinions on reunion, as surveyed below, call on us to revisit our simplified view that equates reunion to healing, reconciliation and recovery. In particular, adoptees' candid stories of their post-reunion experiences raise questions about the ethical responsibility that should be taken by the adoption agencies that have executed intercountry adoption, the Korean government which has encouraged adoption without taking proper responsibility and the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as a whole.

Reunion is meaningful in overcoming problems of identity crisis and difficulties in life that are unique to intercountry adoptees and in building their lives to the fullest.

We urge the Korean society and the Korean government that have engendered intercountry adoption to take responsibility and call for improvement in child-rearing conditions for single mothers and more active support in adoptees' reunion.

The true aspects about the adoptees' reunion, removed of fantasies and bias, need to be disseminated to adoptees and the general public.

Intercountry adoptees' support and expectations for civil society remind us that a large number of organizations, in addition to four major adoption agencies (Holt Children's Services, Eastern Social Welfare Society, Korea Welfare Services and Korea Social Service) and NCRC, have already taken up the task of communicating with them and assisting them with their reunion. Adoptees' collective opinions showed that they considered civil society's assistance very important and supported it.

In respondents' answers to open-ended questions, while some suggestions, such as providing adoption agencies and the NCRC with training on the reunion process of intercountry adoption and increasing expertise of their employees, show up repeatedly there are also very detailed and specific suggestions such as building cultural support networks and a mentoring system that pairs up a mentor with an adoptee at the time of reunion. What draws attention is a request for civil society to take part in checking and balancing the private adoption agencies and NCRC and taking up a role in leading the system improvement. A call for improved accessibility is particularly notable as well. Adoptees are asking improvement in linguistic, physical and informational access to numerous institutions that assist reunion.

2. In-depth interview with birth families

1) Reunion and Korean birth families

(1) The demographic background of the birth families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processes in the journey that the birth parents and families take as they attempt and make efforts to reunite with the adoptees and seek to build relationship after the reunion. This approach goes against the conventional notion that it is only the adoptees who aspire and reach out to reunite with their birth families.

Through the study, we inte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spiration of the biological parents and families for reunion. In order to ask biological families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KoRoot* contacted five biological families among those who participated in 325 KAMRA genetic data bank project who gave prior consent for being contacted through 325 KAMRA. The researchers explained the purpose and aim of the study, asked for their participation and obtained consents. Another five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a pool of birth families that *KoRoot* had come to know through its support activities for intercountry adoptees. The researchers explained about the study, asked for their participation and gathered consents. A total of ten birth families participated in the interview. The survey was conducted face-to-face or over phone from July to early November 2019. Interview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adoptee reunion experience questionnaire which was modified and reorganized to suit the situation of the birth family being interviewed. While the adoptee participants used an online platform to fill out questionnaires directly by themselves, birth families were interviewed by an interviewer who asked questions, wrote down their answers, and recorded their remarks.

Of the total ten birth familie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six were birth mothers, one was birth father, one was a sibling, and the remaining two were an aunt and an uncle who were directly involved in the adoption. As of 2021, their ages range from 40 to 74, and the year of adoption ranges from 1966 to 2000. All of them participated in the DNA Registration Project for Birth Families organized by 325 KAMRA. These ten birth families searched for a total of 12 adoptees, and five families said they succeeded in a reunion with their adopted children. Of the total participating families, three experienced separations from their children or their siblings due to disappearance, of which two of them found out about 325 KAMRA's DNA registration project after decades of search for the missing and had visited *KoRoot* to register their genetic information.

The reasons for adoption include disappearance (missing persons), family discord, economic hardship and difficulties in child rearing due to divorce, birth of a child with disabilities, unmarried childbirth and hardship in child rearing, inducement of families, and child abduction. However, family discord and divorce are set more as a backdrop playing accidental and complex role as the economic difficulties build up conditions that lead up to adoption. Putting together the stories of the study participants, only two mothers put up their kids for an adoption themselves. Likewise, only two fathers asked adoption agencies to send their children for adoption themselves. Another two family members were searching for their children assuming that their missing children, either due to kidnapping or disappearance, had been put up for an adoption, and an aunt and an uncle who had sent their nephews for adoption keeping the children's birth mothers in the dark, were also looking for their nephews.

Reflecting the participants' perspectives as much as possible,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 conducted with the structural questionnaire were reorganized focusing on each participant's experience of adoption, motivation for deciding to reunite, hesitation, and reunion experience. In the following, based on the testimony of the biological family, the administrative and customary procedures of the agencies involved and the difficulties facing the birth families were identified.

(2) Traces of attempts and efforts to reunite

What motivated each of these ten participants to take action for the reunion vary widely. Some of them reached out for reunion because they thought "they were getting old", others because they felt "so sorry", or "saw intercountry adoptees on a TV searching for their families," or "wanted to bring their kids back and live with them if something went wrong in the U.S." The emotions towards reunion that the birth families go through during the long journey of the reunion process which starts from the moment (s)he sends the child away -- seen from Shin Sun-hwa's remarks "I wanted to bring my child back from the day I sent him/her"-- until an actual action for the reunion is taken is well expressed below in the words of Oh Ji-young, another participating family.

"Even if you point your finger at me (crying), I want to apologize... I'd like to see my child. I want to ask for forgiveness, and I want to make my son at least one meal. I want to say I'm so sorry, and... I also want to say I miss him... But I don't know if it is a right thing to do. I'm afraid he'll blame me even if I find him. I'm afraid he doesn't want to see me. I'm afraid he'll say he doesn't want to see me. So even if he refuses to see me, I want to see him at least from a distance. Want to see him from a distance... (Sobbing) I want to hug him. Then... I want to tell him "You grew up so well" and apologize on my knees. I want to tell him I'm sorry...(Sobbing) that I love him and I'm sorry... I want to make seaweed soup and feed it to him." (Oh Ji-young)

Describing the feelings experienced deep down while trying to reunite and waiting for the reunion, Lee Mi-sun said, "I have a fear that this might not be the right thing for the child, what if my child gets in trouble because of what I am doing?" As can be seen from the above, people reach out and take action for reunion as they are torn between desperately wanting to find their children and agonizing over whether it is the right thing to do.

2-1) First step for reunion – Contacting adoption agencies

A reunion is what will allow you to check the well-being of your child, where you have to make apologies, that evokes complicated feelings that do not leave your heart. Reaching out for reunion, starts from seeking information on the adopted child who have disappeared into

the unknown like a black hole, which begins with contacting the adoption agency that oversaw the adoption of the child. Shin Sun-hwa said she had countless memories of being hung up without hearing a word when she called the adoption agency². She said that birth families experience inhospitality and shame once again when they finally make up their mind and contact the adoption agency after a long deliberation.

"When I visited the adoption agency, I felt somewhat let down, and I had to tell my story to the security guard to get permission to enter. Especially in the past, there was no post-adoption counseling service, so I remember talking in a dark small room." The adoption agency's uncooperative attitude, tone, nonverbal messages... their eyes." She said she felt discrimination and uneasiness from all the things she'd mentioned. (Lee Mi-sun)

Many birth parents and families say that they felt a sense of humiliation when they visited the adoption agency in person to find adoption information. "It hurt my self-esteem so much... They treated me not nicely and I felt like they were doubting my sincere intention and questioning what is the real reason behind looking for my child." They gave me an impression that they think I was looking for my child so that I could benefit from him/her. Simply put, "They treated me like a sinner and didn't treat me like a respectable human." (Kim Jeong-hwa).

Kim Jung-hwa explains the reason why she has no choice but to visit the adoption agency while enduring contempt and discrimination as follows. "In our case, we have no choice but to rely entirely on the institutions that sent adoption. But the adoption agency treated us like we are sinners. And regardless of how our situation changed, whether we are better off or worse off, we just want to know whether our adopted children are doing well, if something went wrong because of illness or something else... That's why we visit the adoption agency. And so when we visit the agencies, we know we're sinners, they don't have to treat us like sinners. I hope they welcome us with a little warmth. It's not like we're going there to pester them to find my child." (Kim Jung-hwa)

Shin Sun-hwa apparently heard from the Korean adoption agency that the U.S. adoption agency which handled the adoption process of her daughter, has disappeared. However, when she heard that the adoption agency that mediated her daughter's adoption was still in operation, with the help of an adoptee acquaintance, she asked the Korean adoption agency to re-affirm the facts again. Then Kim, an adoption agency employee, rebuffed, "If

² Shin Phil-Sik illustrates the hesitation for reunion and the high barrier of the adoption agencies experienced by the birth families in an interview with the birth families who have attempted and experienced the reunion. "I've searched for my adopted son, so I know that there are a huge number of birth parents who just keeps wandering around the adoption agency because they can't come inside the adoption agency even if they wanted to search for their children." Shin Phil-Sik's thesis, p.189-191, 340-341

you know so much then go and find out on your own." Despite the uncooperative and discriminatory attitude of the adoption agency, she said she is always careful in dealing with them because she worries "What if they don't contact me when my child comes?"

The first thing that the birth parents hear from the adoption agency, that they go through so much to reach, is that "it is impossible to reunite." "They said I can't find my son by myself. At first, I contacted Holt, and they said I can't find my son because I wrote a waiver, and Holt explained that since my son was sent as a child of a single mother under the name of a nurse at the Obstetrics and Gynecology department, I can't find my son unless the nurse is willing to find him... They said because they have the nurse's name (in the adoption documents), they might be able to track him but I couldn't." (Oh Ji-young). They said "Now my son, Choi ○○, is an American and since he is an American citizen, it is possible that he initiates the search from his side, but I cannot... not from my side. So only way for me to find him is if my son comes here to find me." (Lee Sun-hye)

In particular, in Lee Sun-hye's and Oh Ji-young's cases, where they were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adoption process, and their names were not written down in the adoption document as their children's birth mothers, the persons listed in the adoption document as mothers have to verify that Lee Sun-hye and Oh Ji-young are the real birth mothers. Lee Sun-hye and Oh Ji-young don't seem to have heard any explanation as to why, who, and how the adoption documents were arranged in this way.

Most birth families who participated in the in-depth interviews pointed out the uncooperative attitude, glare, and discriminatory words and attitudes of adoption agencies. Nevertheless, the biological parents seem to be reluctant to take issue with it or talk about its unfairness because Korean adoption agencies are the only communication channels and intermediaries for the reunion.

2-2) Birth families' experience in attempting to reunite and the role of NCRC

In 2008,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NCRC) (formerly Korean Adoption Services), the first government agency in the field of adoption, was established. Since 2013, NCRC has been helping reunions between overseas adoptees and their birth families after being transferred with part of the data on intercountry adoption documents from three private adoption agencies³. However, in the in-depth interviews with the biological families, more than half of the participants were not aware of the existence of the NCRC. The birth

³ As of December 2021, the number of adoption documents held by the three adoption agencies were 233,000 cases, but the computerization of the data at NCRC stands at 56,000 cases, or 24%.

family members who had visited NCRC said, "NCRC staff are not devoted to the work and they only approach the case as an administrative task (Kim Byung-ho), and that the staff are unprofessional (Lee Mi-sun)."

Shin Sun-hwa, one of the birth families participating in the study who is very actively preparing for the reunion said, "I thought Korean Adoption Services would be very helpful because it was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but it wasn't. I felt they didn't want me to visit them. I once made a suggestion to Korean Adoption Services that when adoptees came to Korea, it would be nice if they get a chance to meet their birth parents. I asked KAS to work with adoption agencies to let the adoptees' know that they can reunite with their birth parents when they visit Korea. But they didn't respond much. I've made various suggestions, but nothing seemed to be making much progress. Maybe it was because KAS was integrated into the NCRC, and things hadn't settled down with its name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going through changes" (Shin Sun-hwa)

2-3) Meaning of reunion to the birth families and their journey and expectations for it

The stories of the birth families tell you some very simple but important facts. (1) There are birth families looking for their children who were sent overseas as adoptees. (2) Just like the adoptees, the birth families are working towards the reunion on their own at an individual level. (3) The birth family is not necessarily limited to biological parents. (4) There can be birth parents and family members who are not aware that their children have been adopted abroad. (Families of disappeared, biological parents and families who were not directly involved in adoption) (5) Birth families experience discriminative and businesslike manner of the adoption agencies. (6) The existence of NCRC is not well known to the birth families.

Five of the biological familie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have been reunited with their adopted children, and the other five have not. Three families visited the police station, the adoptees network, civic groups, adoption agencies, and NCRC to reunite with their children, but eventually succeeded in reunion by chance or with the help of their acquaintance, and two were reunited dramatically through the 325 KAMRA DNA test. From an aunt who put up her brother's children for adoption 35 years ago and started looking for them because she was "so sorry", to a brother who registered his genetic information with an adoption support organization with a hope to find his younger brother who disappeared in the children's park with a woman, to a birth father who has been looking for his child for 35 years thinking that the child could have been adopted if he was lucky, and a birth mother

who wants to meet her child before her health or her vision gets worse, each one of them has registered his/her DNA data, and gave their contact information to the adoption agency.

Birth families' efforts to reunite with their children come down to waiting. I came to learn about a story of five birth families who succeeded in reunion after this long wait through the interviews. The emotions surrounding the experience of reunion are complex and multi-layered. Depending on where you are at in this reunion process, sometimes it is expressed as excitement, expectation, and sometimes stability and a sense of balance, and yet sometimes it is expressed as uncertainty and nervousness because you don't know how to start a relationship with the child hard found. Birth parents recall the feeling of reunion as "accomplishing a lifetime-task," "unleashing their inner curls" in their lives, and "things will go well" after the reunion. Reunion is also a very important inflection point for the birth families. But there seems to be little that the biological parents and families can do when reunion does not take place. The biological parents' right to claim information on adoptees or the right to access/view information is not specified anywhere. All that they can do is to visit the adoption agency and leave their address or contact information, conduct the DNA test, and then wait for a call that you may one day receive if you are lucky.

Interviews with the biological families raise questions about the procedure for overseas adoption and its illegality. Even if there has been no violation of the legal provisions on intercountry adoption at the time, concerns are raised over whether there were any cases of customary human rights violations as the adoption agency were handed over with the children. In particular, (1) the stories of ten birth parents and families reaffirmed that adoption was possible even when neither of the biological mother nor the father agreed to the intercountry adoption. In Oh Ji-young's case, the name of the nurse and in the case of Lee Sun-hye, the name of the spouse of her divorced husband's younger brother was written as a mother in the adoption document. (2) One of the ten birth family cases involved a case of a missing child being sent to the United States for adoption.⁴ While the stories of the ten birth familie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cannot generalize the practice of 70 years of overseas adoption, their cases show similarity to Hosu Kim's 2016 study on the oral narratives of adoptee's birth mothers (Kim, 2016). Many biological mothers found out about their children's adoption later on, and even in cases where the mothers decided on the adoption themselves they were not sufficiently informed of the procedures and the outcome of intercountry adoption and were parted with their children after a one-time counselling. This adoption practice can be seen as a ser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an act of denial of

⁴ The link between adoption and missing children in Korea has already been reported in newspapers since the 1970s. Currently, 30,000 out of 170,000 Korean-born overseas adoptees living in 14 countries are reportedly categorized as 'children without family due to abandonment' and have no record on their birth parents. It is estimated that missing children account for some significant portion of these family-less children.

the reproductive rights of women who are outside the boundary of the so called normal family including the low-income, the divorced, and the unmarried women.

What is shown clearly from the interviews with the birth families is that the issues surrounding the reunion of overseas adoptees does not end by simply upgrading the adoption assisting system to a more integrated and transparent one and by providing training/education to intercountry adoptees. Providing the support and back up for the reunion of overseas adoptees and their birth families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laying the legal foundation and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for this will become possible when the history of intercountry adoption is re-defined and the members of Korean society accept their ethical, collective responsibility.

III. Recommendations

This section consists of recommendations from adoptees and birth families to reunion supporting organizations including adoption agencies,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the NCRC), civil organizations, and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The adoptees' recommendations are grouped into three categories: those for the adoption agencies, NCRC and civil organizations. The responses from the birth families are summarized as recommendations directed towards the ROK government.

1. Recommendations from adoptees

1) Recommendations for adoption agencies

The adoptees' responses to the open-ended questions about recommendations to the Korean adoption agencies can be summarized as below.

Disclose the adoption information and family search procedures transparently and honestly. Show empathy towards adoptees and acknowledge adoptees' rights to reunion. Be proactive in providing assistance. Cease overseas adoptions.

Q. 58. Recommendations for adoption agencies

Topic	Details
Transpar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Transparent disclosure of the family search procedures• Sharing of adoption records without hiding any information• No lies and/or manipulation of information

Separation of adoption agencies and birth family search services (record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management of records should not be under the control of a private sector • Separation of birth family search services from adoption agencies
Linguistic assist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nslation service • Language program
Adoptee-centered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ve support and assistance / provision of detailed information • Recognize adoptees' aspiration for reunion as a right • Listen to and respect adoptees' opinions • No personal biases in birth family search
Discontinue intercountry adop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continue intercountry adoption and support children to stay in their home country • Support adoptees in their birth family search in a responsible manner

2) Recommendations for NCRC

The recommendations for the NCRC are about basic competencies of its staff in responding to basic inquiries and improving staff members' work stability and expertise. The adoptees recommended that as a government agency, NCRC needs to be committed to supporting adoptees' aspirations and search efforts for reunion proactively and sufficiently. The specific recommendations are as follows:

"Guarantee the adoptees' right to access information and enhance the quality of basic services including responding to inquiries about family searc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staff members. As a public institution for reunion, we expect NCRC to play a more proactive role."

Q59. Recommendations for NCRC

Topic	Details
Improvement of birth family search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hance staff members' expertise and hire professional workforce / swift work process • Improvement of the website (user-centered service on birth family search of NCRC) • Provide guidance on how to use the service • Establishment of a matching system using genetic tests

Reinforcement of the right to access adoption recor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sure the right of adoptees to access their adoption records
Adoptee-centered approa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rvice from the perspective of adoptees • Take a leading role in raising awareness of the state level responsibility in intercountry adoptions • Providing services for post-reunion procedures
Reduc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 Supervi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duc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 Supervision of the adoption agencies

3) Recommendations for the activities of civil organizations regarding reunion

According to the responses of adoptees in this study, in addition to overseas adoption agencies involved in arranging adoption and NCRC which has served as a government agency supporting adoptees since 2009, adoptee respondents also visit self-help groups and civil organizations. A summary of the evaluation and expectations regarding the role of civil organizations is described as follows:

“Increase expertise and make better use of online platforms. Disclose the procedures of family search, and provide information and limitations concerning family search to the adoptees transparently. Maintain oversight on the government while implementing necessary system improvements. It would be beneficial to have services to promote cultural understand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adoptees and their birth families and services for psychological support. Those services were helpful so please continue providing them.”

Q 60. Recommendations for civil organizations

Topic	Details
Securing experti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sure consistency • Better training and compensation for volunteers • Provide prompt follow-ups and clear procedures • The most preferred staff: bilingual in Korean and English, with a sympathetic attitude towards adoptees
Online uti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united platform connecting all the information and organizations • A post-reunion online community accessible to both adoptees and the birth parents • A website that can help find family members with existing information (location, date of birth, etc.,)

Transparent guid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p-by-step guide to family search procedures • Provide transparent guidance to reality to help adoptees handle negative situations • Inform adoptees about the possibility of false information in adoption documents
Support for cultural understan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cilitate adoptees' understanding of cultures of both Korea and adoptive countries • Help adoptees understand negative facts too such as Korean adoption history and discriminative view toward single mother

2. Birth families' recommendations for the government and organizations

1) Recommendations for the government⁵

1-1) Improvement of the right to information and legal framework for adoptees and birth families

- Establishment of a platform where families of long-term missing children can access information about intercountry adoptees
- The government's active intervention, diagnosis, and restoration are necessary regarding adoptees' access to adoption records
- Implementation of genetic testing for adoptees at the government level
- Reassessment of limitations on access to adoption documents fro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make institutional improvements

1-2) Support for reunion between adoptees and birth families

- Establishment of a reunion agency dedicated to overseas adoptees
- Financial support for adoptees and birth families who are unable to reunite due to economic reasons
- Foster professional talents with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to facilitate reunion of overseas adoptees with their birth families and build infrastructure
- Provision of translation/interpreting services during reunions

⁵ The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overseas adoption include the Division of Child Welfare Policy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the NCRC)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addition, there are other government departments such a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Justice related to visa issuance service for overseas adopted children, and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und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onducting research and supports.

- Discontinue the practice and beautifica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2) Recommendations for adoption agencies

- Ensure adoptees' right to access all adoption records
- Provide training to the adoption agency staff dealing with birth families to correct discriminatory words and behaviors, and promote human courtesy

3) Recommendations for Korean society

- A society that welcomes and treats adoptees with hospitality, and provide genuine assistance when they come to search for their birth families in Korea
- A society that does not discriminate against or ignore birth families

IV. Conclusions

1.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Based on this study, the key points highlighted by respondents of adoptees and birth familie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 Management of adoption records at public domain
- Establishment of a public institution dedicated to reunion
- Improve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concerning petition for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 Establishment of a genetic database for intercountry adoptees and their birth parents
- **1) Management of adoption records at public domain**

Adoptees have pointed out that it is unreasonable for their personal information, namely their adoption records, to be managed by private adoption agencies, and for access to this information to be subject to the arbitrary judgment and attitudes of agency staff. Both adoptees and birth families have raised concerns about the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the agencies. Besides, adoption agencies exercise exclusive control ove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o adoptees and birth families, causing both the adoptees and their birth parents to experience hierarchical relationship in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s with the agencies. In conclusion, among the suggestions from adoptees, there was a strong consensus that adoption records should be recorded, managed, requested, and viewed publicly. Furthermore, through interviews with birth families, adoption agencies' engagement in human rights violations (distortion, omission, and loss of records about birth parents and consent forms) was re-confirmed, and the concealment and manipulation of adoption records were found to be part of the process for creating adoptable

children. Against this backdrop, birth families attempting reunions also gave recommendations asking for the guarantee of the disclosure of adoption records, guaranteed access rights to records, and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 department dedicated to adoption records and reunions.

2) Establishment of a public institution dedicated to reunion: Creating a support system centered around adoptees and birth families

In this reunion study, both the adoptee respondents and the birth families demand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public institution dedicated to reunion and long-term follow-up care. The requirements for the dedicated reunion institution identifi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mpathize with the position of overseas adoptees and birth families, and assist their reunion with a supportive and pro-active mindset.

Second, strengthen expertise required for providing support, including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Korea's overseas adoption history, language proficiency in adoptive countries, psychological counseling skills for adoptees preparing for reunions, translation service with sensitivity to cultural differences, and more.

Third, provide services not only for family search and initial reunions but also for building and restoring relationship after reunion from a long-term perspective. Particularly, the importance of translation service is highly emphasized in the process of family search, first meeting, and relation formation after the reunion. Reunion translation goes beyond conveying the meaning of language, it is the work of understanding the context and perspective of adoptees and birth parents,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the reunion, and implementing translation in harmony with all of them. That is, providing reunion translation requires professional competencies. Additionally, the translation service should be provided on a long-term basis rather than as a one-time service.

3) Improve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concerning petition for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 reflecting the aspirations for reunion of both the adoptees and birth families

When adoptees request to search for their birth parents, the measure taken by the adoption agencies and NCRC is sending a registered mail. The process concludes if there is no response after three attempts of sending registered mail to the address on adoption records. In other words, sending registered mail to the address of birth families from several decades ago to obtain birth parents' consent is a very ineffective method. In the past three years, out of 5,174 requests made

by overseas adoptees for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only 277 cases, accounting for 5%, were rejected by their birth parents. For non-responses, accounting for 25% of the total requests, or 1,342 cases, it is unclear whether the birth parents refused to disclose information. It appears sending registered mail for consent requests is an ineffective method to confirm the actual willingness of birth parents to reunite. (Kim, Dong-gyu, 2020. 09.28)

The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system is designed to guarantee the adoptees' right to know. However, the personal information of birth parents including name, date of birth, contact information, and address can only be disclosed with their consent. Among the survey responses, many raised concerns about the fact that adoptees' right to know their birth parents is blocked by the laws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7 and 9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stipulate the children's right to know their parents. A recent review of the ROK's implementation report on the UNCRC recommended that "adopted children should be informed of their right to search for birth parents and access to their birth parents' information" (UN, 2019). Therefore, the more effective improvements in laws and institutions are necessary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successful reunions between adoptees and birth parents.

Also, just as adoptees' right to know is block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ell-being of their child. From the perspective of birth parents, the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system defines them as passive subjects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ir willingness for reunion. Only 5% of birth parents actively refused to disclose information, and even if 25% of non-responses could be interpreted as passive refusal. It can be still argued that 70% of birth parents are willing to accept reunion attempts by adoptees. The biggest obstacle in the reunion research of birth parents is the social perception toward the birth parents portrayed as heartless parents who abandoned their children. This was also witnessed in the present study from the adoption agencies' firm stance of "You cannot search until they search for you first." In 2014, Kang, Tae-in⁶ identified the birth parents' desire to search for their child as a social task that should be addressed collectively by the society. He advocated for the inclusion of legal provisions for supporting birth parents' search for their children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If the overseas adoptees' desire for reunion is regarded as a manifestation of their right to know, it is essential to include legal provisions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to facilitate and support birth parents' willingness for reunion.

4) Establishment of a genetic database for intercountry adoptees and birth parents

⁶ A Life History of Overseas Adoptee-Birth Parents -Focused on the Experience to Search Children (Kang Tae-in, 2014)

Lastly, 16 of the 64 adoptees, or 25%, said they had found their family member through genetic testing. Additionally, 2 out of 10 birth families, and the other adoptees who have not yet reunited, are placing their hopes and expectations on genetic testing. Since 2015, a transnational adoptee network called 325 KAMRA has actively carried out adoptees' family searches. In addition, since December 2019, the ROK government has allowed Korean-born adoptees to collect, register, and compare their genetic samples at 34 overseas missions across 14 countries through the joint effort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police. Particularly, genetic testing can be the only way for the reunion of adoptees in their 60s or older or for adoptees with missing or unknown records, such as missing/unidentified children. Over the past 70 years, around 30,000 people out of approximately 170,000 Korean-born overseas adoptees have been identified with no family or relatives, lacking any information about their birth parents. Furthermore, as can be seen from the stories of missing familie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establishment of genetic database should be actively promoted for adoptees and birth families. This is particularly necessary for long-term missing family members, birth families who had not given consent to adoption only to find out about the intercountry adoption later, and for birth families who desire reunion.

Moreover,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family search through genetic testing, it should widen the scope of identification, from one-to-one matching with birth parents to a range of relatives. Also, it is necessary to promote and encourage genetic registration as a way to help adoptees who want to find their families or as a potential means to help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at present or in the future.

2. Significance

The experiences of overseas adoptees and birth families collected in this study, along with their suggestions for supporting organizations, raise questions about the legal, economic, and social foundations required to support reunion in the Korean society. This ultimately brings to attention the responsibility of the ROK government, institutions, and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regarding overseas adoption. How will the Korean society respond to the desire for reunion among adoptees who have experienced forced deportation over the past 70 years?

While nameless and faceless birth mothers, fathers, and families had chosen adoption or had been forced to put up their children to adoption due to poverty, unmarried status, domestic violence, sexual violence, disabilities, and disappearance, what would be the environment that would facilitate them to actively engage in reunion? Reunion between overseas adoptees and birth families should no longer be treated as a personal act or desire. Reunion gives opportunity for both adoptees and birth families to acknowledge and mourn the loss caused by overseas

adoption. Especially, I believe that the efforts made by the ROK government, along with adoptees and birth families, to address and overcome the communication difficulties arising from linguistic and cultural differences experienced by those who have successfully reunited through rough reunion process, will serve as the starting point for reconciliation and mourning for overseas adoption.

In order to provide public support and substantial assistance for the reunion of overseas adoptees with their birth families, investigations and reassessments should be conducted first regarding the historical injustices of overseas adoption,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process of adoption, violations of women's reproductive right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experienced by adopted children, which have persisted under the ROK government over the past 70 years. A critical approach is called for in reviewing the practices and discourses surrounding overseas adoption, which have been developed alongside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studies in Korea. Systematic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on the various stakeholders, institutions and actors who have contributed to the welfare industry of overseas adoption, so that intercountry adoption which has functioned within the child welfare system for the past 70 years is no longer labelled as 'the issue with the single mothers'.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ing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Petition & Birth Family Search Service

July 2023

KIHASA, Social Services Policy Research Dept., Center for Child and Family Policy Research

Joo-yeon Lee,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LEADING THE WAY IN IMPROVING
PEOPLE'S QUALITY OF LIFE AND SOCIAL SECURITY

Table of Contents

Forum

- 1 Introduction
- 2 Issues with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Petition & Birth Parents Search Service
- 3 Policy Improvement Measur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LEADING THE WAY IN IMPROVING
PEOPLE'S QUALITY OF LIFE AND SOCIAL SECURITY

1. Introduction

1. Introduction



Government Policy for Supporting Adoptees' Reunion with Birth Family

Institutionalized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Petition & Birth Parents Search Service

Private sector initiatives 민간차원

Institutionalized adoptees' homeland visit program
 방문 사업 제도화

입양정보공개청구/친생가족찾기 서비스의 제도화

Introduction of Special Adoption Act in 2012

Article 12, Clause 6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and Procedure of Adoption, 1996

Homeland Visit Program for Adoptees

Petition for Adoption Info Disclosure

Birth Family Search Service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Petition system pursuant to Article 36 of the Special Adoption Act and began providing Birth Parents Search Service for Adoptees pursuant to Article 5-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Special Adoption Act

1. Introduction

Research results from “Study on Standardization of Adoptees’ Family Search Initiatives including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Petition” consigned to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NCRC) in 2022 was utilized

As-Is Analysis of the present system including Adoption Info Disclosure Petition and Birth Family Search Program for Adoptees

Analysis of current status of programs such as Adoption Info Disclosure Petition and Birth Family Search for Adoptees



Analysis of overseas cases including the US and Sweden

Analysis of Special Adoption Act and Proposed Amendments to the Act

2.

Issues with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Petition & Birth Parents Search Service

2. Issues with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Petition & Birth Parents Search Service for Adoptees

Synthesis of issues identified from the study (1)

<p>Issues with adoption records</p> <p>1 입양기록의 문제</p> <p>Discrepancy/variance in adoption information depending on the type of adoption agency</p> <p>Insufficient/incorrect adoption records</p> <p>Errors in information/ alteration of information by information providing agencies</p>	<p>Issues with implementation system</p> <p>2 수행체계에 대한 문제</p> <p>Relationship between the institutions implementing the programs/system needs to be sorted out</p> <p>Need for centr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contact points</p> <p>Difficult to access by overseas adoptees</p> <p>Requires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cross agencies</p>	<p>Issues with design of institutional system</p> <p>3 제도 설계 상의 문제</p> <p>Call for scope expansion of the system and services</p> <p>Procedural improvement needed (call for separating procedures for requesting personal identifiable info. vs. non-personal identifiable info)</p> <p>Mismatch between document preservation duration vs. preserved documents</p>	<p>Issues with unclear guidelines</p> <p>4 지침의 모호성 문제</p> <p>Discretion permitted to agencies and institution in the Manual gives confusion to adoptees</p> <p>Variance and inconsistency in the workload of staff and Inconsistent document format / level of detail of the information provided, depending on agency/institution</p>
---	--	--	--

2. Issues with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Petition & Birth Parents Search Service for Adoptees

Synthesis of issues identified from the study (2)

<p>Issues with system's unrealistic aspect</p> <p>5 제도의 현실화 문제</p> <p>Time limit needs to be adjusted taking into account level of difficulty of each case</p> <p>Improvement needed in how birth parents' consent is checked</p> <p>Difficulty in developing guidelines for minor adoptees</p> <p>Data system needs upgrade</p>	<p>Distrust of adoptees</p> <p>6 입양인의 불신</p> <p>Adoptees' distrust towards adoption agencies</p> <p>Adoptees' complaints and requests obstructing adoption agencies' business</p>	<p>Issues with operation system/service quality</p> <p>7 운영체계/서비스 질 문제</p> <p>Lack of staff and budget</p> <p>Difficulty in providing counseling service and need for tackling the issue</p> <p>Need for training and fostering talents with expertise</p>
--	---	--

3. _____

Policy Improvement Measures

3. Policy Improvement Measures

01. Expand eligible claimant/petitioner

현행

As-Is

- ✓ One who is adopted (requires consent from adoptive parents in case of a minor)
 Article 35 of the Special Adoption Act



개선방안

To-Be

- ① Consider expanding to birth parents/family
- ② Consider expanding to lineal descendants who are adults in case of death of the adopted person

Considering that there has been a period with loose mandate for preservation of adoption records, policy decision needs to be made in light of the aged adoptees adopted prior to the 1960s.

3. Policy Improvement Measures

02. Expand scope of info subject to disclosure

현행 공개대상정보 As-Is: Info. subject to disclosure

- ✓ Adoption information related to the adoptee
- ✓ Personal information of birth parents upon their consent



개선방안 To-Be

- ① Need to expand scope to include info. of birth family including birth siblings (upon their consent)
- ② Need to be improved to ensure maximum collection of information on birth family recorded on the document at the time of adoption

3. Policy Improvement Measures

03. Expand scope of information subject to collection and disclosure

현행 As-Is

- ✓ Difficult to disclose background information on adoption recorded on the birth parent counseling report
- ✓ Lack of standards on the information filled out in the adoption documents that ensures faithfulness



개선방안 To-Be

- ① Need to expand the scope of information collected in the process of adoption as requested by the adoptees
- ② Need to record all information in the birth parent counseling report, except for info. on birth parents' personal ID, in the Adoptee's Report as non-identifiable info.
- ③ Need to put in place a standardized instruction for filling out adoption documents to improve the overall faithfulness of adoption records.

3. Policy Improvement Measures

04. Clear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ion in charge

현행

As-Is

- ✓ NCRC and adoption agencies are both in charge
 - Adoption agencies responsible for filing the initial petition and NCRC for filing re-petition
 - When protection of birth parents' privacy conflicts with right to know of the adoptees, the party responsible for mediation and decision making is not defined
 - Lack of regulations on how to deal with illegal practices when discovered



개선방안

To-Be

- ① Laws and regulations need to be revised to name NCRC as the responsible institution
- ② When protection of birth parents' privacy conflicts with right to know of the adoptees, the court can be the mediator and decision maker (as in some states in the US and Germany)
- ③ Add a clause in the regulation that stipulates how to deal with illegal practices when found

3. Policy Improvement Measures

05. Consolidate management of adoption records

현행

As-Is

- ✓ Adoption information is scattered in many different organizations



개선방안

To-Be

Consolidate and centralize management of all adoption data, centered around a public organization (i.e., NCRC)

06. Offer convenience to adoptees and recover their trust

현행 As-Is

- ✓ Petitions can be filed only by the adoptees themselves
- During the initial petition stage, petition for both the identifiable and non-identifiable information can be filed simultaneously, causing delay as checking viability for disclosure of non-identifiable info takes long time
- ✓ Consent of the birth parents are obtained by sending registered mail to their postal address
- ✓ For cases with no adoption records, ways to search birth family is limited to utilizing the press, registering DNA as none-family adoptee, or searching for foster mothers



개선방안 To --Be

- ① Allow petition filing and data receiving by the agent(s) appointed by the adoptees
- ② Allow request of only non-identifiable information during initial petition and allow request of identifiable info. after counseling session post receiving non-identifiable information
- ③ Contact via mobile phone of birth parents and conduct home visits
- ④ Work on legislation of bills for establishing the DNA Bank, expand support to allow access to places the adoptees stayed, the facilities, persons, and homes that provided care before adoption

07. Work standardization

현행 As-Is

- ✓ Non-identifiable information provided to the adoptees vary widely in content and format
- ✓ Non-identifiable information collected at the time of adoption lacks quality in content and format
- ✓ Services for minor adoptees are not standardized
- ✓ Forms for services vary by agencies and institutions



개선방안 To-Be

- ① Non-identifiable info. needs to be standardized, original documents need to be permitted for disclosure, work instruction/guideline addressing variance and lack of quality in contents in adoption documents needs to be put in place
- ② Add non-identifiable info to the list of information on adoptees' background that should be collected during adoption
- ③ Standardize services for minor adoptees (allow them to select the information they want after in-depth face-to-face counseling)
- ④ Work on legislation of bills for establishing the DNA Bank, expand support to allow access to places the adoptees stayed, the facilities, persons, and homes that provided care before adoption

08. Improvement and expansion of policy infrastructure

현행 As-Is	개선방안 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sufficient data system – resulting in inactive use by agencies and institutions ✓ Lack of manpower ✓ Expertise in manpower need to be improved 	<div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 font-size: 2em; margin-bottom: 10px;">➤➤</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mprove the data system (add functions for computing statistics, searching data on care service received outside adoptees' home, allow user-friendliness in entering counseling records) 2 N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staff in NCRC (to five times the current size) 3 Add a clause on staff's expertise requirements in the institution's internal regulation, provide training to upscale staff expertise

References

Jooyeon Lee, Soyoung Ahn, Jeonghee Ryoo, Hana Joo. (2022). Study on standardization of birth family search service for the adoptees centered around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Petition, NCRC & KIHASA

Thank you!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LEADING THE WAY IN IMPROVING
PEOPLE'S QUALITY OF LIFE AND SOCIAL SECURITY

Resonance and Mourning of Separation, Adoption, and Reunion

Phil-Sik Shin (Center for Human Rights, Chung-Ang University)

I would like to begin by saying that it is an honor and a great pleasure to moderate the discussion of two excellent presentations on family search and reunion of overseas adoptees and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petition, which have been so far under-researched in Korea. I would like to share two aspects that were particularly impressive about the studies and two questions for the respective presentations. First, Professor Hosu Kim's presentation is based on KoRoot's 2022 research report, *Basic Research on Reunion of Overseas Adoptees and Their Birth Families* (hereinafter, Reunion Study Report), which is based on a survey of 171 overseas adoptees and interviews with 10 birth families. The second presentation, delivered by research fellow Joo-yeon Lee, covered the policy recommendations section of 2022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s research report titled *A Study on Standardization of Family Search Services for Adoptees, centered around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Petition* (hereinafter, Family Search Report). Overall, I think both studies are valuable research that have raised the level of research on important topics of in-depth empirical study on family search experiences and the standardization of policies on family search in Korea.

The first thing that stood out in Prof. Kim's Reunion Study Report was that despite the high interest of adoptees in searching their birth families (over 95%), the percentage of adoptees who were reunited with their actual families was a mere 36%, which is less than 40%. While 36% may seem like an exceptionally high rate compared to the existing 2% to 4%¹ of reunion rates for the whole Korean overseas adoptees cited in the report, 36% is not high when considering that the reunion of adoptees and their birth families is something that should happen just naturally. What is notable is that by age, the rate was over 50% for overseas adoptees in their 20s and 30s, namely, those adopted after the 1990s, while the rate was less than even half of that for those in their 40s adopted before the 1990s. This big difference in the success rate of family search may by age may indicate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overseas adoption records and adoption consent processes between these groups, on top of how the family search is carried out at present. In other words, the difference by age group shows the problem of poor records. It may be speculated that these low reunion rates are linked to the high 59% DNA registration rate in family search, as shown in the Reunion Study Report.

Another impressive aspect of the Reunion Study Report was the in-depth documentation and analysis of the complex emotions that adoptees and birth families experience before and after their reunions, and the difficulty of dealing with those emotions. It was found that adoptees experience a very complex set of emotions through the reunion, including ① overwhelming, surprising, and overpowering; ② complicated, confusing; ③ hectic, exhausting; ④ identity confirmation, questions answered; ⑤ sadness; ⑥ reality barriers, differences from expectations, and after the reunion, including ① a sense of otherness; ② a relationship shrouded in secrecy; ③ the truth still hidden; ④ language barriers; and ⑤ confirmation of manipulation by the adoption agencies. This means that for adoptees, reunion is so overwhelming and complex that the experience of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handle alone. However, around 70% of adoptees responded that basic services such as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for family reunions are in need, indicating that current support is not even minimally adequate. In the case of birth families, the findings such as ① facing insults and coldness even when they have the courage to visit the adoption agencies for reunion, but still having no choice but to rely on the adoption agencies; ② the actual adoption agencies or the Central Adoption Agency (now the Child Rights Protection Agency) not willing to actively help them, but only handling things administratively or lacking expertise; ③ birth parents not having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on adoptees or th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④ the complex and multi-layered emotions experienced through reunion, including excitement and anticipation, a sense of stability in their lives, and cautiousness about how to begin a relationship after such a difficult discovery, are deep and meaningful results that I believe have not been captured by existing awareness and research on family search and reunion.

Questions in relation to the Reunion Study Report are: first, what was birth parents' experience during the adoption process, including consent to adoption, and how does that relate to family search and reunion? Many birth parents do not feel they can do the search themselves, or do not know where to go for help, and I wonder if the difficulty of reunion may be related to past separation and adoption process. For instance, if there was adequate explanation, understanding, and consent during the separation process, how might that experience affect the likelihood that birth parents themselves will honor their feelings, desires, and choices in the years to come, and how might that relate to their attitudes and choices toward reunion? On the other hand, if there was inadequate consent and separation, what different attitudes and choices might result in birth parents remembering the adoption, and thinking about and carrying out reunion with their children.

Second, given the stagnation of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the reunion of birth families and intercountry adoptees (this may be a rather broad question), I would like to ask your opinion on why these poor reunion outcomes and institutional support gaps have occurred and persist. Despite the fact that the Child Rights Protection Agency, together with adoption

agencies, provides support for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and family search in accordance with legal and institutional provisions, the actual reunion rate is extremely low, and the overall institutional level of family reunion is substandard to meet the needs of the parties. Despite the institutionalization related to reunion, I wonder if you are of the view that the systems involved have not departed significantly from past practices, and I would like to hear your opinions on how the possibilities for change can be explored, and what role or involvement of the parties might be possible.

Research fellow Juyeon Lee's Family Search Report was a timely and significant research achievement in that it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the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system, which refers to family search as a specific system, and went one step further to suggest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e Family Search Report sorts out the circumstances that while the transition from informal and non-standardized family search by private adoption agencies to the current institutionalized family search system has been made, in fact it has not yet been standardized and furthermore we have failed to reflect and improve on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private-led family search perspective and methodology, and the report draws out directions for improvements.

First impressive aspect of the Family Search Report is the part that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birth family search. Of which part, the usage status of birth family search points out that while overseas studies show an average of 30 to 50% of intercountry adoptees attempting to find their birth parents, only 5.8% of all intercountry adoptees in Korea have done so from August 2012 to 2021. Considering that over 95% of overseas adoptees in the Reunion Study Report expressed a desire to verify their adoption information and find their birth parents, it is clear that Korean overseas adoptees are underutilizing the family search system compared to their desire to reunite with their families. According to the report, the frequency of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s was much higher with adoption agencies as the receiving agency at 79.6% compared to 11.4% for the Child Rights Protection Agency as the re-receiving agency. As for the results of information disclosure, the cases in which at least one of the biological parents agreed to disclose information in the last three years were 29.8%, while the cases in which information could not be obtained because at least one of the biological parents could not be contacted turned out to be high 41.4%, indicating a low rate of consent and a high rate of not even being contacted. In terms of consent to disclosure by age, the rate of not being able to obtain consent to disclosure increased as the age increased, an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rate of consent and unreachability by adoption agency, and by country¹, Denmark had the lowest rate of disclosure, and the Netherlands had a high rate of

¹ Given the different adoption agencies for each country, this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compare how each adoption agency creates adoption records and handles the family search process. For Denmark, Holt Children's

unreachability of both birth parents. I believe that these findings related to adoption disclosure requests and consent to disclosure require further discussions and analyses, and are an important basis for future discussions related to family search.

The next thing that was impressive in the Family Search Report is that it provides specific suggestions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and birth family search.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adoptees and experts, the report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s: ① standardization of the tasks and simplification of the routes, ② the right to know the hidden truth, ③ expansion of alternative measures such as genetic testing, ④ expansion of the target scope of the birth family search, and ⑤ strengthening education and promotion of the system. In particular,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Integrated Adoption Information System in that information other than the 51 core pieces of information in the case of missing, starving, orphaned, or abandoned children is required but is not possible to check, and it raises the issue of authority in managing records. The report also points out the need to expand the number of personnel in charge of related work, and emphasizes the need for more active efforts to locate biological families along with the expansion of personnel. The report recommends that the Child Rights Protection Agency, in cooperation with local child protection systems and the police, establish an expanded locating system that goes beyond the current registered mail and telephone methods to include direct visits to addresses, and that the Child Rights Protection Agency play a role as a control tower in related work. I believe that these are valuable suggestions that the relevant authorities and society should listen to, as the recommendations are based on a comprehensive view of the complex situation on site.

As this is a report on family reunion from a more policy perspective, I would like to ask you broader questions that you may have thought of while conducting your research, rather than questions about practical suggestions and the current situation. The two questions are why the development of family search has been slow and how it can be accelerated. Specifically, the first question is why family reunion has not developed into a highly effective system, despite the fact that there are various participants involved in family reunion, such as adoption agencies, and the system is relatively well organized. The family reunion process does not fully reflect the needs and voices of actual adoptees in the field, and there are many improvements that need to be made. In addition to the report, the relevant challenges are: ① expanding the scope of claimants and search targets from adoptees' search for parents to adoptee families' search for birth families; ② expanding the categories of relevant records, full disclosure after minimizing non-public categories other than identity information after division

Welfare and the Korean Social Service Society were responsible for the adoptions, while for the Netherlands, the Korean Social Service Society was responsible for the adoptions.

of records categories; ③ adjusting the roles beyond unifying the window for claims and resources, and accumulating cases related to the role of the court and reunion; ④ government support for expanding the role of representatives and supporters (legal, counseling,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ransportation, etc.); ⑤ improving the method of contacting birth parents and institutionalization and government support for delegation, representation or support roles related to reunion decisions, ⑥ the need to decide whether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other than biological family members in the introduction of genetic banks, ⑦ strengthening the linkage among personnel working for the family reunion website, genetic banks, and family reunion and expanding the personnel pool, ⑧ accumulating reunion cases by family situation type through support for the training of relevant professionals, parties, and support groups, and ⑨ strengthening the linkage of complex family reunion-related systems through manualization and standardization, as well as a case management approach. These issues have been raised for a long time, but improvements have been made only partially. I'd like to ask you what you confirmed or felt from diverse voices in the field during the research and examination of the Family Search Report, and why you think these systemic issues are not being addressed.

Secondly, according to the Family Search Report, in the course of searching for birth families, the adoption agencies have the original adoption records, while the Child Rights Protection Agency does not. On the other hand, it is stated that the Child Rights Protection Agency can request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joint use network and local governments to check the location of birth parents and conduct genetic tests, but adoption agencies cannot. This raises the question of how to improve and harmonize the current situation where adoption agencies have adoption records, but are effectively blocked from accessing birth parents through administrative and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as a researcher who was not familiar with the actual process, I was surprised to learn that the adoption agencies played a major role in family search and yet access to information was so limited. Then, it seems necessary to clearly review the proces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family search conducted by the adoption agencies to date. I would like to ask you what challenges the features and limitations of the adoption agencies and private-centered nature of the current family search system pose to the design of a public family search system in the future, and whether you have new prospects and expectations for the transition to a public family search system.

To change the current system, I think it's time to change the reunion practices that have never been modified to accommodate the lives, voices, and needs of the people involved. One word, "mourning," can make all the difference. In the course of separation, adoption, and reunion, all we can offer is the support they need, comfort, and mourning heart. We can't save anyone; We can only mourn. As we navigate adoption, separation, and reunion with the emotion of mourning, we naturally encounter the ways in which our past society has treated those who

have had to contemplate and make decisions about separation. We can reflect on what they needed and what we gave or didn't give them. That reflection will remind us of the love and sorrow of those who have experienced separation and adoption and will awaken us, even in hindsight, to the obvious fact that they are people just like us. It is in that moment of reflection, recollection, remembrance, and enlightenment that mourning is possible and begins.

Where did all the separations, adoptions, and reunions without mourning come from? I may also have to ask if the present institutionalized reunions are institutionalizing even the absence of mourning hearts. Perhaps the mourning and respect begins in understanding and acknowledging the love that separated them, and knowing that deep and sad love may not be erased just by acknowledging that they had to separate. It's only natural and fortunate that the governments want to improve reunions with policy interventions. The thing to remember is that separation without mourning, adop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without repetition and expansion of reunion may not come on its own. And for both adoptees and birth families who are determined to reunite, the feeling that they are being supported in the best possible way is a need that precedes the notification of a reunion. This is where family search is different from any other services or administrative processes. I end this discussion paper with the hope that in 2023, 70 years into intercountry adoption, the system and the law will be a starting point for change, rather than hiding the truth or justifying the field where the best and most genuine support is rarely felt. In closing, I would like to thank Roots House for hosting us.

¹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Status of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Petition (non-disclosed internal data) of the NCRC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a Child) shows that the average number of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petition filed in the last five years was 1,625 cases, of which the average number of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agreements was 338, or 20.8%, and the average number of reunions was 67, or 4.1%.

The issues on reunion assistant system - From first mother's perspective

Hyun-suk Jeon (TheRUTHtable)

On June 1, 1990, I gave birth to my son as an unwed mother and sent him for international adoption to the US. From the moment I realized I was pregnant, I considered all the options I could as a young 21-year-old mother, but in the end, at the earnest pleads of my mother, I chose international adoption. After signing the relinquishment of parental rights form, the social worker from the adoption agency told me that there were three things that I could choose for my son: "US or Europe? Christian or non-Christian home? A family with other children or without?" So I requested that they send him to a Christian home without other children in the US. The social worker gave my son his Korean name and later told me what she had named him. He was sent immediately to the adoption agency and lived in a foster family for about five months and I heard he left the country on November 15, 1990 to California. I told my mother several times that I wanted to go get my son and raise him but I was unable to. I still have the journal that I kept during this time, crying as I wrote because I couldn't go back for him. I only got to spend one night with my son in the midwife's clinic after giving birth to him and my yearning for him grew larger as time went on. I still remember how hard his first birthday was for me because I missed him so very much. Perhaps it is because he grew within my body for nine months, but I could never forget his birthday. Every year, being the only person in Korea who would remember, I commemorated his birthday and prayed that he was alive.

Our reunion was possible through the help of other Korean international adoptees. Before we were reunited, I contacted the adoption agency from time to time to leave notice of any changes of address or contact information and to let them know I was waiting for any contact from or news of my son. Sometimes I would call and ask if they had any updates from my son, but every time the only responses I heard from the adoption agency were: "No news is good news" or "We can't give you his contact information before he contacts us first," so I thought the only thing I could do was wait for my son to come find me. But some Korean adoptees I knew reached out to me and told me they were going to help me. They were able to find him and after our DNA tests came back positive, I was finally connected with him. However, due to the Covid-19 pandemic, we spent a year only being able to text. In November of 2021, we were finally reunited in person at an annual event hosted by the Korean adoptee community in Minnesota; our reunion celebrated by many Korean adoptees. In September of 2022, I visited San Diego where my son lives and met his adoptive parents and his two children. I also got to spend five days alone with my son. My belief that I should learn about my son's present and past was the reason I visited the place where he lives. Although it was only for a short while, it was a time when I was able to feel

various emotions my son must have experienced while growing up there. Now, I hope my son will visit Korea. Like me, I hope my son will find some healing through this experience.

For me, reunion feels like standing on a boundary that forces me every time to come to the realization that even though I gave birth to my son, I couldn't raise him. Because I must always be conscious of the fact that although my son and I were connected as one life when I carried him, we could no longer reach each other once we were separated. For first mothers, although we remain happy to meet our children again, the time and space that we can meet lies only below "the horizon of loss" and we must rise above our realization of our loss and endure it for the sake of our child with whom we have been reunited. After reunion, adoptees may want to acquire the symbiotic relationship with their first mother that was cut off due to the relinquishment of parental rights. First mothers must always remind ourselves that we must have patience and make more effort to remain mature within our relationship with our reunited children who may regress emotionally or want to test our feelings of commitment towards them.

While studying for a PhD in Social Work, I have learned about the impact of social structure and culture on women. Social work scholars and social workers want us to acknowledge and free ourselves of the guilt from the violent circumstances into which social structures have forced us. But ironically, that cannot lessen our shame because our feelings of guilt to our child and the shame we feel from society exists together. For so long, first mothers who sent their children for adoption, whether voluntarily or not, felt that we had to hide due to the social stigma of being "a mother who lost her child, couldn't protect her child, or abandoned her child." Hiding was considered "doing what is best for your child that you sent for adoption" and because I lived while internalizing those words from others, I thought that was what I had to do. It was my son's words, "Mom, I didn't resent you. I wasn't angry at you. You loved me and I received love" that took away the guilt that I had. However, Korean society continues to shame us, "How could you abandon your own child? How could a mother do that?" It is these sorts of social stigmas thrown at first mothers that we internalize and make us hesitate to reveal ourselves. So Korean first mothers have a double identity.

Before I was reunited with my son, for over 25 years I have met many international adoptees and their parents and through sharing my experience as a first mother, we have each found healing as we hugged, cried, and laughed together. I thought this was something I could do for my son and it was possible because I decided I needed to grow. However, after interacting for a long time with adult adoptees who were living in or visiting Korea, I came to know another side of international adoption. Even though they make constant effort to live as a member of their adoptive country, far from Korea, after having lost their birth families, their country, culture, language, food, and sentiment, they can feel depression or even suicidal thoughts due to the confusion over their identities that they must encounter over and over. When I heard this, it made

me question, "Would my son also think that the life that I chose because I thought it was the best for him, was actually for the best?" and this troubled me greatly.

Adoption is often determined to be an individual or family matter. But it is the story of the family surrounding that individual and the story of the community to which that family belongs. It is estimated that 200,000 children were sent for international adoption from South Korea so at the very least, it involves at least 400,000 biological parents, since pregnancy is the resul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oth a man and a woman. This means that the narrative of adoption surrounds a lot more families than we would think. I am also the daughter of an adoptee. If we consider adoptees' children and their grandchildren, we can understand how adoption is never just an individual matter.

Adoption is a responsibility. "Someday, you will want to find your child and your child will want to find the mother that gave birth to them. That is natural." This must be told to every first mother who is considering adoption at every place where they receive counseling. This is because I have learned that when adoptees say, "I want my parents to acknowledge and understand the sense of loss I feel," they are not only referring to their adoptive parents but also to their biological parents. When a baby is separated from their mother after birth without any regard to their own will, after nine months of being in the womb, the place they feel is the safest and warmest, they lose the foundation of their sense of security. People who have not experienced this loss cannot understand it, and no matter how much they may try to hide it, humans are curious about their identities. So for those of us who participated in this child's separation, we have a responsibility to also participate in their recovery from their loss.

There is a golden time in reunion. The knowledge and guidance imparted regarding the psychological, physical, and social contex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mother and their child that will arise immediately after their reunion is incredibly important. Public institutions must have reunion-related professional spaces and experts where each party can feel safe to ask and hear about the changes that they are experiencing post-reunion. When adoptees register for reunion services at adoption-related institutions because they want to know their roots, there must be an "adoption competent and sensitive" social worker who has the training to understand and provide professional consultation about the shame, anxiety, and hopelessness that adoptees might feel.

Adoption is not the end, it is the beginning of an endless story and reunion is the most important of its subjects, even in cases when reunion does not come to fruition. Korean adoption society has reached a point where it must respond to adoptees who want the right to know about their first family. In fact, all of the parties involved in adoption should have foreseen and prepared for this when they insisted that adoption was an act of blessing and love. If there is no sense of responsibility for love, I question how it can be propagated as a blessing.

Last week I received a phone call from a first mother who was reunited with her adopted daughter five years ago. "I don't want to talk with my daughter. I am tired of her" It was very unfortunate for me, knowing how successfully the mother and daughter reunited. The possibility of overseas Korean adoptees who want to reunite with his or her birth family is very low. But I often hear cases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themselves is severed after reunion. There is no way to find a psychologist or social worker to help with this. Now, along with finding the birth family, a professional support system must be created so that the reunion can be successful. It is not desirable to let individuals handle the work as it is now.

Most of the Koreans around me who know my story, tell me that I will be happy now since I have been reunited with my son. But I'm not sure what to write on this blank paper of the new chapter of homework that I have opened. On the contrary, compared to before the reunion, the support and encouragement has decreased and the work ahead that I must manage alone has increased. Ironically, the adoption agency that arranged my son's adoption does not know that we have been reunited. I did not tell them because I didn't particularly want to tell a place that I knew would not do anything to support our reunion. Where has the passion they had when the baby that they wanted to send for adoption was in my womb? I am disappointed by the lack of effort given to reunions. The adoption agencies' post-adoption services appear to have nothing to support first mothers. To them, we are a "forgotten woman" and a "woman that should be forgotten." Note that I didn't write "mother," but I wrote "woman." This is the last thing I want to say today as a first mother in reunion.

Discussion on Structural Obstacles to Reunion

Opening Caveat.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to serve as a discussant on this panel for the “assistant system for reunion of adoptees and their birth families.” Because of my long-standing relationship with KoRoot, I accepted this invitation as a PhD student in social welfare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However, I am not a clinical social worker who is knowledgeable about adoptee birth family search and reunion experiences. I do not counsel adoptees in reunion. I do not conduct research on individual experiences. I am not a cultural anthropologist, nor a developmental psychologist. I will not, therefore, remark on the cultural and psychological difficulties that adoptees might experience in reunion. There are many academics, professionals, and organizations who have expertise on this important topic. I regret that I do not, nor can I speak on their behalf.

Personal v. Professional Knowledge. Notably, I am a Korean adoptee who is in reunion with my Korean birth family. However, I make no claim to expertise from my firsthand experiences with reunion. To be frank, I do not understand reunion and I dislike talking about it. The experiences I have in reunion are deeply personal. As an adoptee, I ask that you hold space for me to process my reunion in private and do not insist on my openness in this public forum. My remarks for this panel, therefore, will be limited in scope to my professional knowledge on potential power relations endemic to the institution of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Adoptees in reunion with Korean birth families, for example, might feel pressured to automatically “know” Korean language and cultural norms—despite the impossibility of such knowledge given their assimilation into typically white adoptive families since infancy (Bergquist, Vonk, Kim, & Feit, 2007; Kim, 2010). I posit that these potential problems associated with adoptee and birth family reunion reflect and reproduce broader structural power relations, such as globalized white supremacy (Crenshaw, Gotanda, Peller, & Thomas, 1995).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Distorts Displacement as Placement. Professionally, I am a macro social worker and research scientist who is concerned with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as an institution of domination. Broadly, I advance “adoptee solidarity” with vulnerable Korean families as an anti-racist alternative to the false notion of “adoptee racial exceptionalism” (Adoptee Solidarity Korea, 2007/2014; Collins, 1993/2013; 2019; Park Nelson, 2016). Specifically, I purport the institution of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distorts “displacement” as “placement” (Cho, 2022). In my own adoption case, I was displaced from Korea and placed into a white adoptive family that was living in the racially segregated white suburbs of Milwaukee, Wisconsin (USA) in the 1980s. My inclusion into my white adoptive family was conditioned by my assimilation into “whiteness as the norm” (Delgado & Stefancic, 2017). Home video from my arrival to O’Hare International Airport on April 27, 1985, moreover, shows the immediate marginalization my Korean birth family through the false claim that I was on the airplane “waiting” for my white adoptive family. The institution of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consequently,

made Korea totally “foreign” to me through my displacement and assimilation into a white adoptive family in the U.S.

Recent Adoptee Research Study Illuminates Conflict and Possibility in Reunion. This past year, I gained potential insight into conflict and possibility between adoptees and Korean birth families in reunion. As a Fulbright U.S. student open research award recipient for the 2022-2023 academic year, I conducted 28 in-person interviews on the topic of adult Korean adoptee daily life. The hour-long, English-language interviews included 20 self-identified Korean adoptees who were either visiting or living in Korea at the time of their interview. Participant ages ranged from 20s to 60s. The sample included both European and US adoptees who were adopted through agencies. I began interviews by asking participants to describe their “typical” day in Korea. Next, I invited them to share broadly about their experiences and relationships in Korea. Finally, I asked participants to share a “memorable” experience from Korea. In response to the various open-ended questions, multiple participants described encounters with Korean birth families, Korean in-laws, Korean romantic partners, and Korean peers, such as friends, co-workers, and neighbors.

Making Visible the Invisible Korean-Foreigner Binary (KFB). In particular, I found adult Korean adoptee daily life seemed to be structured by the explicit and implicit binary question of: “Are you Korean? Or not?” I characterize this binary social reality as the Korean-foreigner binary (KFB). The KFB operates as a seemingly invisible, exclusionary mechanism that categorizes people as either Korean or foreign. Within this social reality structured by the KFB, “Korean” is the norm (e.g., you’re either Korean or you’re not), whereas the broad categorization of “foreign” contains myriad “other” racial, ethnic, cultural, and national subcategorizations (e.g., French, White, American, Expat). Significantly, adoptee participants emerged as “non-binary” through existing outside of the separate categorizations of “Korean” and “foreign”—describing themselves as both Korean and foreign (e.g., “I am a mix of both”), and/or neither Korean nor foreign (e.g. “In Korea, we don’t fit in--in America, or Europe, or wherever”). By foregrounding the KFB, so-called adoptee identity and adjustment problems seemed to emerge as reflections of “non-binary” structural exclusion. In daily life, adoptee exclusion seemed most sharply articulated through Korean language and cultural barriers.

How might the Korean-foreigner binary (KFB) become an obstacle for adoptees and birth families in reunion? Through descriptions of daily life in Korea, research participants illuminated potential obstacles that adoptees in reunion might confront with Korean families. One adoptee described the impossible expectation for her to behave in the “Korean way.” Another adoptee seemed to describe being re-categorized from “Korean” to “foreign” when her Korean mother-in-law realized she did not fit into the “typical” Korean daughter-in-law depicted in Korean dramas. Multiple adoptees, moreover, described the personal cost of having to become two separate people for two separate families and systems. For example, a participant who was in reunion with their Korean birth family highlighted the inconvenient reality of being forced to have “two

identities”—seemingly being separately Korean with their Korean family, and being separately American for their American family. In conversation with my research participants, I posit these obstacles reflect the exclusionary KFB—which requires adoptees to be “fully Korean” to access full acceptance by Korean birth families and Korean society at-large.

How might adoptees and birth families make possible connection through resisting the assimilationist demands of the Korean-foreigner binary (KFB)? Significantly, research participants also illuminated the possibility of acceptance and inclusion through rejecting assimilation into the KFB and, instead, embracing adoptee “non-binary” identifications. First, participants indicated adoptee self-acceptance was an alternative to adoptee self-rejection. Using the self-assigned pseudonym, Maria described offering adoptee-to-adoptee encouragement using her professional knowledge and lived experience as an adoptee.

No matter what, even if you speak Korean and you're born in this country. Because you're raised overseas--so even though you're, like, living here [in Korea] 10, 15, 20 years--you're never going to be fully Korean. And that's OK, too. As long as you know you don't have to be Korean.

As an alternative to self-rejection, Maria insisted that adoptee self-acceptance is “OK, too.” In this context, when expressing, “I'm not going to be fully Korean. I'm always going to be adoptee in their eyes,” Maria rejected the impossible conditions of the KFB, not herself. Maria posited, “So. I think at some point you have to find yourself. And just be happy with that. Because you are what you are.” By seeing Maria's rejection of the KFB as an exclusionary mechanism, the commonplace advice to “find yourself” becomes discernable as a non-assimilationist intervention that makes possible adoptee self-acceptance.

Rejecting the Korean-foreigner binary, moreover, became an alternative to rejecting Korean families. Using their chosen pseudonyms, Kyungah and Kasper—adoptees who are separately married and parenting in Korea--described the specific household-level challenge of living with Korean mothers who might become angry with behavior inconsistent with the “Korean way.” Kyungah made explicit the commitment to “protecting her heart” as underpinning the strategic behavior of listening and then not conforming to seemingly assimilationist demands.

I don't have to do what she says. Because I think I felt the burden because she said it. Like, “Do I have to do this?” You know? But then I can just, like, agree and then just not do it later. [Laughter] I'm just like listening. “OK, OK.” But then it doesn't mean I'm going to do it.

I posit Kyungah's boundaries against the KFB benefit Kyungah and her household, including her Korean mother-in-law. As an alternative to rejecting her mother-in-law, Kyungah rejected the conditions of the KFB through setting boundaries with the assimilationist demand to only speak Korean. As a note, Kyungah did notice her mother-in-law “just cares” and is “trying to be helpful” when she gives parenting advice—such as imploring Kyungah to speak only in Korean to her

infant. Kyungah, therefore, made possible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her mother through rejecting assimilation into the KFB.

Finally, rejecting the Korean-foreigner binary became an alternative to rejecting adoptee difference. On the flipside, Kasper illuminated the potential for Korean families to reject the KFB for purposes of accepting adoptee difference. Specifically, Kasper described a conflict with his Korean mom that led to years of alienation--stemming from not performing a household task in the "Korean way." Kasper suggested that during that period of separation, his mom changed to "try to make room" for his household to be "in our way."

I think she knows that I'm not really going to be Korean. In the way that she hoped or thought...I think she realized that I am just different and there's not much, I think, I can do to change that-- even if I really try hard to be Korean. I don't think that I could be Korean her way. So I think she realized that, and she's--I really feel like she's putting effort into making space for that.

Previously, it seemed that both Kasper and his mom anticipated he would somehow become Korean in the way they both hoped and thought. "When I came here, I was definitely thinking that I was I was going to, I don't know, almost become Korean," Kasper noticed. He thought he would become fluent in Korean in a couple of years and "just adapt and fit in in no time." Kasper never anticipated "it would be such a long journey" that lead to the realization, "oh, I'm definitely different."

Accepting Adoptee Difference Makes Possible Connection with Birth Families.

Ultimately, the Korean-foreigner binary (KFB) seems to subject adoptees to the impossible, assimilationist demand of "becoming Korean" to participate in relationships with Korean families. Adoptees themselves seem to internalize this impossible expectation. In Kasper's case, both he and his mother came to understand "adoptee difference" from "typical Koreans." Through resisting the Korean-foreigner binary together, Kasper and his mom illuminate a non-assimilationist path through reunion that might be key to connection between adoptees and birth families. Future research and clinical interventions concerned with birth family search and reunion, therefore, might explore non-assimilationist behavioral interventions that affirm adoptee difference.

References

- Adoptee Solidarity Korea (2014). A petition to end intercountry adoption. In *Celebrating ASK: 10 Years of Adoptee Solidarity* (pp. 37-39). Seoul, ROK. (Reprinted from "ASK writes", 2007,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president.)
- Bergquist, K., Vonk, E., Kim, D., & Feit, M. (Eds.). (2007).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A fifty-year history of policy and practice*. New York, NY: Routledge.
- Cho, S. L. (2022, January). Anti-adopterism as resistant knowledge: An autoethnographic case study of colorblind distortions in transracial and international adoption. [Poster presentation]. *Society for Social Work and Research Annual Conference*. www.sswrvirtual.com.
- Collins, P. H. (2013). Toward a new vision: Race, class, gender. In M. Adams, W. Blumenfeld, C. Castaneda, H. Hackman, M. Peters, & X. Zuniga (Eds.), *Readings for diversity and social justice* (3rd ed., pp. 606-611). New York, NY: Routledge. (Reprinted from *Race, Gender & Class*, 1(1), pp. 36-45, Original work published 1993).
- Collins, P. H. (2019). *Intersectionality as critical social theory*.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Crenshaw, K., Gotanda, N., Peller, G., & Thomas, K. (Eds.). (1995). *Critical race theory: The key writings that formed the movement*. New York, NY: New York Press.
- Delgado, R., & Stefancic, J. (2017). *Critical race theory: An introduction* (3rd ed.). New York,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Kim, E. (2010). *Adopted territory: Transnational Korean adoptees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Park Nelson, K. (2016). *Invisible Asians: Korean American adoptees, Asian American experiences, and racial exceptionalism*.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